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46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8월 26일(음력 7월 7일) 수요일(주간)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인동초' 향기는 영원히…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조문… 불교계 애도문 줄이어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을 추모하는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거 이틀째인 8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임시 빈소를 찾아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박재완 기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 인권의 큰 별이었던 김대중 前 대통령이 8월 18일 서거해, 23일 국장(國葬)으로 장례가 엄수됐다.

8월 18일 오후 1시 43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김 前 대통령이 서거하자, 각계각층의 애도가 줄이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 등이 직접 빈소가 차려진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불교계의 애도문도 줄이었다. 애도문에서 김대중 前 대통령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인동초처럼 이겨낸 민주화의 상징'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인공 스님은 "우리 사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분"으로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분열의 고통 겪는 남북 동포의 등불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교계 각 단체의 애도문도 발표됐다. △실천승가회(대표 법안)는 "인동초의 삶을 살다간 이땅의 진정한 지도자"로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는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민족의 큰 어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김 前 대통령은 운암 김성숙(태허 스님) 선생님과 신민당 동지로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라며 추모했다.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엄수된 故 김대중 前 대통령 국장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371명으로 장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는 국민장으로 치러진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장례 때의 1383명보다 1000명 가량 더 많은 숫자다.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맡았고, 부위원장단은 국회 부의장 2명, 선임 대법관, 전 남지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세영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등 7명이 불교계 대표로 참여했다. 영결식에서 치러진 불교의식은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이 주관했다.

김 前 대통령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외환위기에 빠진 한국에 선진금융시스템 등을 도입해 경제를 살리는 한편, 정치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 등을 성사시켰다.

故 김 前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보수진영으로부터 '북한 퍼주기'로 비판받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 몇 안 되는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민족화해에 앞장섰다는 대승적 평가는 그를 200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게 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은 1925년 전라남도 신안 하의도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김운식과 어머니 장수금의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목포 북교초등학교와 목포상고를 졸업했다. 목포일보 사장 등을 지내다 1963년 목포에서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제7, 8, 13, 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故 박정희 대통령에게 석패했고, 1987년, 1992년 대선에서는 노태우, 김영삼 후보와 겨뤘으나 당선되지 못했다. 1997년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돼 진보세력의 염원이던 여야 정권교체를 이뤘고, 외환위기에서 한국 경제를 건져낸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서거에 국민들은 보수 · 진보, 여야를 떠나 그가 남긴 화해와 용서의 화두가 한반도를 평화의 꽃으로 가득 채우길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성우 · 조동섭 기자

한국불교 미래를 열다

'지리산 야단법석' 사부대중 호응 속에 성료

민족 성지(聖地) 지리산에서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불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고민했다.

움직이는선원(조실 무비) 등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 준비위원회'는 8월 14~18일 지리산 실상사 작은학교에서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법주로 나선 무비 혜국향봉 도업 스님을 비롯해 실상사 재연 스님, 황매암 일장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가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법석에 동참한 재가자는 100여 명에 이르렀다. 특히 참가자 중에는 개신교 목사 등 자신이 불자가 아님을 떳떳하게 밝히는 재가자들이 있어, 정법 갈구에는 출 · 재가, 불자 · 비불자의 구분이 없음을 보여줬다.

첫 법주로 나선 무비 스님은 <금강경> 소의경전 문제를 제기했다.

스님은 "<금강경>이 대승보살의 자비실천행을 강조하는 부분이 약하다"며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조계종 소의경전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법주로 나선 향봉 스님(익산 사자암)은 방장 법어 대필, 선지식 부재, 법거량 소멸, 과잉 해제비 문제 등 한국불교의 폐단을 집중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했다.

전국선원수좌회를 대표한 세 번째 법주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은 "선방의 문제는 스스로 개선될 것이고, 간화선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이나 간화선사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한국불교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도법 스님(움직이는선원 열중)은 행 · 주 · 좌 · 와 · 어 · 묵 · 동 · 정을 섭수해 수행하는 움직이는선원을 제안했다. 스님은 종정상, 총무원장상 등 스님들부터 상(相)을 버려야 불교가 바로 선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도법 스님 뿐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은 강도 높게 불교에 대한 비판을 퍼부었다. 성역과 같았던 <금강경>과 간화선 등 조계종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주제가 오갔다. 49재를 마흔아홉 번 지내는 1029재, 천불 · 만불을 조성해 법당을 불상창고로 만드는 문제 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가자들은 평소 스님에 대해 아쉬웠던 점들을 하소연하듯 쏟아냈다. 승가의 권위와 선방의 신비가 법석에 내동댕이쳐져 널브러진 상황에서 몇몇 재가불자는 승가를 외호하는 발언을 해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국불교에 한바탕 사나운 바람을 몰고 왔던 4박5일간의 야단법석은 끝났다. 하지만 안다. 그래도 선방을 지키는 수좌, 포교일선에서 활동 중인 대중, 불교를 외호하는 재가자들이 있어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조동섭 기자

지리산 야단법석 지상중계 5~15면

社告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법구경

영혼이 순수한 이는 즐거운 일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현대불교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상량식,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社團法人 大乘佛教 本願宗

봉행

제5대 종정 梵海堂 大和 대종사 추대 · 제5대 부종정 동광 대종사. 법용 대종사
제6대 총무원장 德山堂 卍赫 대종사 및 각 원장 취임 대법회

한국불교의 중추종단으로 거듭나는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은 제5대 종정 梵海堂 大和 대종사, 제 5대 부종정 동광 대종사. 법용대종사, 제6대 총무원장 德山堂 卍赫 대종사 및 각 원장 및 종단 임원진 취임**을 계기로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해 정진을 다할 것입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무루 동참하시어 뜻 깊은 법회의 자리가 되도록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9년 9월 9일 (음, 7월 21일) 오전 11시
장소 : (사)대승불교본원종 총무원 연화정사 천불전
문의 : 총무원 02)391-4376



제5대 종정 梵海堂 大和 대종사



제6대 총무원장 德山堂 卍赫 대종사

■ 제5대 종 정 梵海堂 大和 대종사
■ 제5대 부 종 정 동광 대종사. 법용 대종사
■ 제6대 총무원장 德山堂 卍赫 대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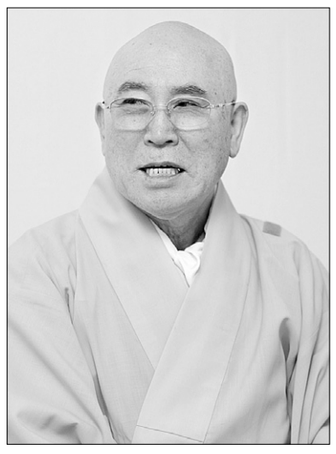
증명 : 무구 대종사.
고문 : 대월 대종사, 만공 종사
상임지도위원 : 혜운. 혜관. 자광. 혜공. 현공 법훈. 정오. 지연
봉행위원장 : 경산
봉 행 위 원 : 법성. 혜원. 도광. 법성. 지광. 지선

■ 임원진

원로원 원장 : 대 원
감 찰 원 장 : 대 능
포 교 원 장 : 대 련
연 수 원 장 : 현 담
문 화 원 장 : 송 담
부산경남종무원장 : 지 우
강원종무원장 : 진 묘
충북종무원장 : 대 월
전국신도회부회장 : 성덕화. 청연행
종 회 의 장 : 대 운
교 육 원 장 : 무 공
의 전 원 장 : 두 산
염 불 원 장 : 대 황
복 지 원 장 : 대 천
경북종무원장 : 자 광
충남종무원장 : 지 천
전국신도회장 : 대 광

■인터뷰-원로의원 종하 스님

"장기 대응 전략 · 전술 있어야"



2500여 조계종 사찰은 8월 20일(음력 7월 초하루) 사찰 경내지의 자연공원(국립 · 도립 · 군립) 해제를 위해 전국 동시법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19일 관악산 관음사에서 만난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 스님(관음사 주지 · 사진)은 사찰의 사유권과 관리권을 침해하는 현행 공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단의 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종하 스님은 "8월 2일 통도사에서 열린 전국본말사주지 결의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사찰 땅의 자연공원 제외를 정부에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각 부처를 이해시켜 관계 법령을 개정토록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를 상대로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해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의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공원 해제 후 전통사찰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할 것입니다."

스님은 "하나의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수 년,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령이 공포되기 전, 입법예고 기간에라도 제도 변경에 따른 불교계 피해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들이 건교부, 환경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를 뛰어다니며 법령 개정의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해요. 5개 이상 관계부처에서 합의가 돼야 국무회의 통과도 가능하고 대통령의 결단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일회성 시위 보다는 2~3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법률 검토와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소통할 전담팀을 갖춰야 합니다."

1973년 관음사 주지에 부임한 종하 스님은 당시 도량이 그린벨트에 묶여 법당 증축 등 오늘과 같은 사격(寺格)을 갖추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총무원에서 총무부장 소임을 맡을 당시 그린벨트 관계법을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한 후 건설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끈질긴 설득을 펼쳐 그린벨트 지역의 사찰 건물 증축이 이전 규모의 100%까지 완화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뭐든지 사무칠 정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종무행정에 대해 사무치게 연구하고 일념으로 일에 매진한다면 그게 바로 이판(理判)입니다. 자기 일에 투철하면 이판 사판(事判)이 한 판입니다. 애종심과 과감한 추진력, 전문성을 갖춘 종무행정 전문가들이 포교와 승가교육, 수행을 뒷바라지 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2월 치러진 제31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종하 스님은 오는 10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원로의원스님들과 주요 교구본사스님들, 중진 중앙종회의원스님들로부터 "종단을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해달라"는 광범위한 권유를 받고 있는 스님은 "돈 · 파벌선거 하면 종단 문 닫아야 한다" 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스님은 "원로 · 중진 스님들의 뜻이 간절해 그런 쪽(출마)으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종교 벽 넘어 불교에 무한 애정

故 김대중 前 대통령 불교사상에 매료… 전통문화 관점서 최대한 지원

8월 18일 서거한 김대중 前 대통령은 임기 중 불교를 전통문화의 관점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불교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김 前 대통령은 가톨릭 신도였지만, 어떤 정치인 보다도 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로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불교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지난해 8월 고창 선운사를 방문한 김대중 前 대통령 내외. 오른쪽은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장인 보문 스님 영향 불교 애정

김 前 대통령은 1957년 토머스 모어라는 영세명을 받았지만, 가톨릭을 우대하거나 이웃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차별하는 경우가 일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불교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넘어, <반야심경>을 외울 정도로 불교에 대해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졌다. 그 이유는 장인이었던 보문 스님의 영향이 컸다.

김 前 대통령의 장인으로 첫 번째 부인 차영애 씨의 부친인 보문 스님은 환속 후 목포에서 인쇄소 등을 운영하며 사위를 후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前 대통령은 보문 스님을 통해 입적한 백양사 만암 스님과 그 상좌 서옹 스님(조계종 종정 역임)과도 인연을 맺어 정계입문 후에도 몇 차례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 前 대통령은 1980년 신군부 세력에 의해 '내란음모'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생활을 할 때 원효 스님의 저술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이때부터 불교의 보살정신과 만유불성(萬有佛性)의 평등사상에 깊이 매료됐으며 이를 현실정치에서 자유와 인권, 평화운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애썼다.

#대선 불교 10대 공약 처음 제시

김 前 대통령은 1997년 제 15대 대선에서 대통령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불교 공약'을 발표해 불교계에 힘을 실어줬다. 김 前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당시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예방해 △종교편향 없는 종교정책 실현 △불교관련법 재 · 개정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문화재 보존 △불교전통문화의 복원에 최대한 지원 △국립불교박물관 건립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 개국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팔만대장경 한글화 및 전산화 지원 △남북불교교류 지원 확대 등 불교계 10대 공약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비용 지원, 팔만대장경 한글화 및 전산화 지원 등 예산 지원과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등 불교관련 법 제 · 개정을 원만하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불교교류 기여로 만해대상

김 前 대통령의 2002년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햇볕정책'을 기조로 한 한반도 화해모드 조성은 남북불교교류의 물꼬를 텄다. 금강산 신계사를 비롯한 북한 불교문화재의 복원사업과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불교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 이로 인해 김 前 대통령은 2003년 제7회 만해대상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61년 인제군에서 초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인연으로 만해마을 건립을 지원하기도 한 김 前 대통령은 당시 수상소감을 통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해 온 만해 스님을 존경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성우 기자

종성 스님 임명

동대 새 법인사무처장



조계종립 동국대(이사장 정련) 신임 법인사무처장에 종성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신임 사무처장 종성 스님은 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7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해인사 포교국장 등을 역임한 스님은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30안거를 성만했다. 현재 제14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이다.

조동섭 기자

청소년교리경시대회 지도위원 위촉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길을 연 제1회 전국 청소년불교교리 경시대회의 지도위원이 위촉됐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도후)는 8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지도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자승 스님, 도후 스님, 성효 스님(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혜자 스님(불교신문 사장)이 참석했으며 동대부속고등학교, 동대부속중학교, 은석 초등학교 등 총 21명의 전국 초 · 중 · 고 불교종립 학교장이 위촉됐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교리 경시대회가 젊은 불자들이 많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시대회는 9월 12일 오전 11시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등 전국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동국대 · 금강대 · 위덕대 입학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경시대회 접수기간은 9월 5일까지다. (02)723-6165~6

이나은 기자

범불교대회 1주년, 과제는?

범불교대책위, 24일부터 사진전 · 27일 세미나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 종식을 위해 2000만 불자가 한목소리를 냈던 범불교도대회가 1주년을 맞았다.

범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승원)는 8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8 · 27범불교도대회 1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24일부터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한국불교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범불교도대회 1주년 기념 사진전을 연다.

세미나 입재식에는 前 범불교도대책위원회 상임대책위원장 원학 스님(종정예하상) 등 표창을 받고,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사이버 감시요원 20명이 위촉장을 받는다.

발제자로는 중앙종회 종교차별특위 위원장 진화 스님(8 · 27범불교도대회 평가와 과제),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건강한 사회, 바람직한 종교문화), 조성택 고려대 교수(더불어사는 세상, 붓다의 희망찾기)가 참여한다.

승원 스님은 "범불교도대회 1주년이 지난 지금도 공직자 종교편향은 여전하다"며 "한국이 다종교 ·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범불교도대책위는 종단과 재야신행단체 등을 결집해 우리 사회에서 종교편향을 근절시키고자 지속적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범불교도대책위는 종교편향 관련 동영상 제작과, 종교편향 사례를 망라한 <주요종교편향사례집>, 종교자유와 인권 등에 관한 편람인 <종교차별바로알기(가제)> 발간도 준비중이다.

조동섭 기자

불교수행으로 마음다스려

체육인불자련, 법주사서 하계수련회



8월 18~19일 법주사에서 열린 체육인불자련 수련회.

체육인불자연합회(회장 이기흥)가 8월 18~19일 보은 법주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조계종 포교원 혜총 스님의 법문, 발우공양, 참회정진 108배, 새벽 숲 산책, 참가자 전원 수계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태권도 메달리스트 손태진 선수를 비롯한 배드민턴 남자 복식 동메달리스트 이재진, 레슬링 동메달리스트 박은철 선수 등 130여 선수와 지도자가 참가했다.

이기흥 회장은 "성적, 부상에 따른 좌절과 슬럼프에는 선수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극복해야 하는데 불교적 수행이 이 점에서 가장 적합하다"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참선 공부로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워 매 경기마다 경기력을 향상시킨다면 10월 20일 전국체전, 2010년 아시안게임 등에서 큰 활약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상언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사람 메이저골프대회 우승 양용은 선수

평상심是 우승


염주를 찬 오른 주먹을 번쩍 들며 우승을 자축하는 양용은. 사진=AP

"불교는 골프 경기에서 평상심(平常心)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된다."

8월 17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꺾고 아시아 남자로서는 최초로 메이저골프대회(PGA 챔피언십)를 제패한 양용은(37 · 테일러메이드) 프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공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여부동(如如不動)한 불교 수행에 있음을 밝혔다.

전 세계의 골프 매니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골프황제와의 진검 승부에서 당당한 자신감으로 타이거 우즈를 무너뜨린 평정심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승부에 대한 집착이나 패배에 대한 두려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결여 등 일체의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경기에 몰입할 수 있는 마음자세가 갖춰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지인들의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분위기에 절대 휩쓸리지 않는다" "정신력이 무서울 만큼 강하다" "멘탈(Mental) 골프의 일인자"라는 평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멘탈 골프의 일인자' 별명 생겨
구인사 신도인 부모님 원력 '큰 힘'

'평상심(平常心)'이란 마조 선사에 따르면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취사(取捨)가 없고, 단상(斷常)이 없으며, 범부와 성인이 없는 것"이다. 평상심은 중생심이 아니라 집착과 욕망, 불안과 같은 일체의 번뇌 · 망상이 없는 '무념(無念)'의 상태를 말한다.

양 프로가 무념의 상태에서 골프공과 하나돼 놀랄만한 성과를 일궈낸 것은 스스로의 마음공부의 결과로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간절한 원력과 신심이 큰 힘이 됐다는 후문이다.

아버지 양한준(64), 어머니 고희순(66)씨는 독실한 천태종 신도로서 부모는 틈날 때마다 충북 단양의 구인사를 찾아 불공을 드렸다. 2004년엔 부처님 전에 골프공 10박스(120개)를 올려놓고 불공을 드렸다. 아버지 양씨는 불공을 올리고 난 뒤 그 공을 아들에게 건넸고, 양 프로는 그 공을 가지고 대회에 출전했다. 부모의 정성 덕분인지 양 프로는 2004년 일본 투어에서 2승을 거뒀다. 2006년엔 유러피언 투어 HSBC챔피언스 대회에서 타이거 우즈를 물리치고 우승한다. 이번 PGA 챔피언십에서 우즈를 다시 한 번 꺾은 것도 그때 얻은 자신감이 큰 힘이 됐음은 물론이다.

한국 여성으로서 처음 메이저골프대회에서 우승한 박세리에 이어 양 프로가 다시 한 번 큰 성과를 이뤄내는 것은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자들은 그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초월하는 향상일로(向上一路)의 정진으로 불심을 드러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우 기자**

"불법으로 상생사회 이루자"

한국교수불자聯, 교수불자대회서 한반도 선진화 결의


'한반도 선진화'와 관련한 결의문을 낭독하는 불자 교수들.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불교사상이 절실한 때, 부처님 정법으로 소통과 상생의 사회를 이루겠다."

불자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선진화의 길을 모색하고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 상지영서대 교수)는 8월 17~19일 영월 법흥사에서 열린 2009 한국 교수불자대회 회향식에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불자교수들은 결의문에서 "한국사회가 짧은 기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면서 "상생의 정치가 부재해 사회갈등이 만연된 것을 비롯해, 빈부의 양극화와 물질에 치중한 대중문화는 도덕성 붕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자교수들은 "한국사회가 선진화를 이루려면 불교사상이 절실하다"며 "연기(緣起)의 자각으로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실천하는 불교사상은 우리 사회의 모든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불자교수들은 부처님 정법을 실천해 △상하가 소통하는 선진사회 △중생이 공존하는 선진환경 △대중이 공유하는 문화적 전통을 창출 · 계승하겠다고 결의했다.

결의문 발표에 앞서 행사에 참가한 100여 불자교수들은 17일 서울대 박세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불교와 국가 선진화를 고민했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과학 등 5개 분과에서 불자교수들은 각자의 전공과 불교를 천착시키고, 다시 이를 공론화시켜 학제간 연구의 물꼬를 텄다. 또, 매일 밤 108참회를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법흥사 주지 도안 스님은 회향식에서 "교수불자대회 기간 중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봤다"며 "보살정신으로 내가 더 한번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자"고 강조했다.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2005년도 <교육통계연감>에 불자라고 밝힌 전임교원이 5만여 명, 외래강사까지 합하면 10만 명에 이르나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은 1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인적자원의 누수와 공백을 메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전공(학과장 종호) 교 · 강사 30여 명은 8월 14~15일 양주 육지장사에서 워크샵을 열고,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교수법 등을 고민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東大 일산캠퍼스 건립 본격화

17일 의생명과학캠퍼스 착공식



동국대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착공식 중 시삽 장면.

동국대의 경기도 일산캠퍼스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8월 17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인근 부지에서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착공식을 개최했다.

일산캠퍼스는 1만5050㎡(4550여 평) 규모로 201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과대와 한의대, 생명공학 관련 학과가 입주해 강의동과 BT(생명공학기술) 창업보육센터 등 산학협력관 등을 갖출 예정이다. 일산캠퍼스와 함께 동국대가 고양시와 공동 추진 중인 고양메디클러스터가 2020년 완공되면 일산캠퍼스는 17만㎡(5만1500여 평)의 대규모 연구학술단지가 된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은 치사에서 "일산캠퍼스 착공식을 계기로 동국대는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의 · 생명과학의 거보를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오영교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국대에 약학대학 신설까지 결정되면 일산캠퍼스는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의 · 과학단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첨단 의료서비스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자대비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축하했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동국대 상임이사 성관 스님, 이사 정호 스님, 감사 상운 스님, 이명묵 동국대 의료원장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장경사 폐사 위기

2경부로 노선 백지화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제작한 고려말기 대선사 경한(景閑) 스님이 창건한 장경사가 폐사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2경부고속도로의 용인시 원삼면 통과구간의 노선이 장경사를 관통해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장경사 주지 정휴 스님은 8월 18일 간담회에서 "장경사를 경유하는 구간이 터널로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 바로 뒤 10m 떨어진 산등성에 다리를 놓는 방식으로 진행돼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장경사는 폐사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정휴 스님은 "노선도에는 다른 주변 사찰과 가톨릭 미리내성지 등이 표기돼 있으나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안에 가장 인접해 있는 장경사는 누락돼 있어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선백지화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노래 있는 연극 '아버지의 가수'

양지무리, 9월 19~23일 이해랑극장서


연극 '아버지의 가수'에 직접 출연한 극단 양지무리 남우성 대표(앞).

불교문화예술단체인 양지창작문화원과 극단 양지무리(대표 남우성)는 2008년 창단 연극 '매혹'에 이어 두 번째 작품 '아버지의 가수'를 무대에 올린다.

최송림 작, 김성노 연출의 '아버지의 가수'는 9월 19~23일(매일 오후 4시, 7시 30분 공연)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남우성 대표를 비롯해 조수정, 박정순, 박현미, 김도형, 양말복 등이 출연하는 이 작품은 죽은 아내와 함께 즐겨 들었던 (가수 이미자의) 추억의 노래를 들으며 사는 아버지와 오페라 가수가 꿈인 딸의 애환을 서정적으로 그린 노래가 있는 연극이다. 아버지를 위해 오페라 가수를 포기하고 악극의 배우가 된 딸의 노래를 들으며 아버지가 운명을 맞이하는 마지막 장면은 관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극단 양지무리 남우성 대표는 "생자필멸(生者必滅)과 업이라는 화두를 대중가요로 포장해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이 어떻게 투영되고 갈무리되는지, 저마다 마음속에 번뇌의 삶을 들추어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로 한 번쯤 비쳐보는 연극무대"라고 소개했다. (02)306-2005, blog.daum.net/yangjimuri **김성우 기자**

초월 스님 유품, 진관사에 기증

종손자 백외식씨 글씨와 그림 등 가져와


진관사로 돌아온 초월 스님의 글씨와 그림.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초월 스님(1878~1951)의 유품이 서울 진관사(주지 계호)에 일괄 기증됐다.

진관사는 최근 경내 홍제루에서 초월 스님의 종손자 백외식씨로부터 스님의 글씨와 그림 등 7점을 기증 받았다.

백씨가 기증한 유품은 초월 스님이 1920~30년대 후반 직접 쓴 글씨 4점과 사군자 그림 3점 등 모두 7점이다. 이 유품은 백씨가 부친인 백봉석씨와 전국 사찰의 초월 스님 제자들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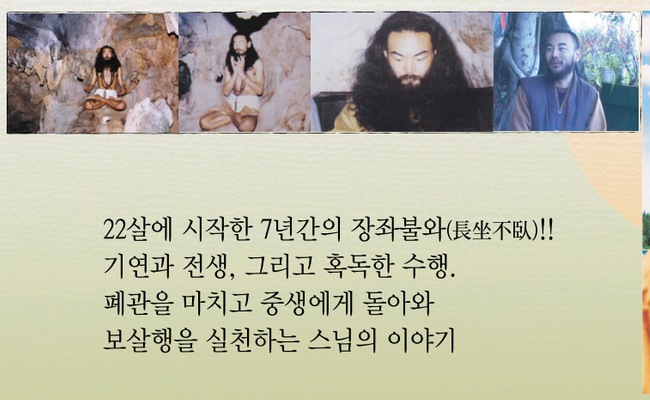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진관사 불사 과정에서 뜻밖에 귀한 자료를 발견한데 이어 초월 스님 유품을 모두 기증받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후손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진관사는 8월 11일 공개한 태극기 1점 등 독립운동 사료들과 이번에 기증받은 초월 스님의 유품 등을 정리해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2009 대유학당 신간

마음의 달 1 · 2



22살에 시작한 7년간의 장좌불와(長坐不臥)!!
기연과 전생, 그리고 혹독한 수행.
폐관을 마치고 중생에게 돌아와
보살행을 실천하는 스님의 이야기



마음의 달(전2권), 만행스님 지음.
1권(연화생수련) 166쪽, 올칼라(연화생수련 CD포함).
2권(마음닦는법) 334쪽, 각 1만원.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전시리즈

암송하거나 음미하실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포켓사이즈 경전.
각권 288~324페이지, 10000원

① 주역점
② 주역인해
③ 대학중용
④ 경전주석인물사전
⑤ 도덕경/ 음부경
⑥ 논어
⑦ 절기체조
⑧ 맹자 1 · 2 (9월 출간예정)

선물용으로 권해 드립니다.
10권 이상 주문하시면
30% 할인됩니다.



계좌 국민은행 807-21-0290-497 예금주
농협 046-02-067645 윤상철
우체국 011809-02-202255
www.daeyou.net www.daeyou.or.kr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문가용 프로그램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면 명반이 작성되어
운명 풀이를 쉽게 도와주는 프로그램.

① 평생운 년운 월운 일운을 보는
전문가용 하락리수 400,000원
② 14정성과 보조성으로 길흉을 보는
전문가용 자미두수 400,000원
③ 720과의 단답형 가부길흉을 보는
전문가용 육임 100,000원



고전의 미래
대유학당
(02) 2249-5630~1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8 서신빌딩 402호

학생 인성교육에 부처님 말씀 담아

'마음 나누는 안부전화' 캠페인 벌이는 충북교육청 이기용 교육감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교육이 이뤄져야만 참교육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불자인 충청북도 이기용 교육감(사진)이 최근 주력하는 일은 '마음 나누는 안부전화' 캠페인이다.

충북교육청은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과 이웃의 나눔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전화로 안부 전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올바른 가정교육이 바로 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바른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교육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런 기본교육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교육정책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나가고 있다.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 강화 △외



국어 교육 강화 △영재교육 특별프로그램 △사이버 가정학습 강화 △대입상담활동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가정기능 약화와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로 교육 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소외계층 자녀들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확대 중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무료 수강, 통신비 · 학비 · 급식비 지원 확대 및 다국어 학교생활 안내서 개발 보급,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센터 등을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밖에도 2010학년도 기숙형 공립고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형 마이스터고로 음성 충북반도체고등학교를 선정했다. 그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마이스터고가 전문계고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 ·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지하자원이 부족하고 불리한 지리적 조건에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한 것은 교육의 덕"이라며 "창의적 교육,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교육으로 사랑, 행복, 희망을 반올림 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수능생들에게는 "노력한 만큼 결실이 돌아올 것"이라며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더욱 초조해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차분하게 자녀를 믿고 안정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구경>에는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나눔의 생활을 실천하며 세상을 가꿔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기용 교육감은 "충북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알차게 영글도록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법력이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혜철 충청지사장

원봉장학회 설립 3억원 기부

보현사 원봉 스님 "시주 은혜에 회향"



청주 보현사 주지 원봉 스님(사진)은 8월 17일 원봉장학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3억 원의 장학금을 설립추진위원회에 기부했다.

원봉 스님은 "인재불사는 좋은 씨앗을 뿌려 놓은 소중한 일"이라며 "그동안 시주의 은혜에 회향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에 학비가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후학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마음으로 장학회를 설립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스님의 이번 장학회 설립은 보현사 개산 49주년과 자신의 고희 60주년을 맞아 신도들과 태고종도들에게 회향하고자 하는 발원에서 시작됐다.

태고종 충북교구 사찰인 보현사는 20년 전만 해도 작은 규모의 사찰이었다. 스님의 원력과 신도 및 지역불자들의 도움으로 현재 보현사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요양원, 납골당, 고시원 등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찰로 거듭났다. 보현사는 2009년 삼성각 낙성과 스님의 회고록 출간도 앞두고 있다.

원봉장학회 추진위원회에는 원봉 스님을 위원장으로 혜철 스님(대성사 주지), 혜성 스님(자재암 주지), 도운 스님(덕선사 주지), 김동훈 태고종 충북교구 연합신도회장, 배종하 보현사 신도대표, 성락관 · 성락준 가족대표 등 8명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스님은 끝으로 "보현문도회와 보현사 신도, 전 태고종도의 뜻이 모아져 장학회가 더욱 발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홍선 대조사 추모법회

불입종 창종조

대한불교불입종 창종조 태허홍선 대조사 열반 30주기 추모법회가 8월 14일 불입종 총본산 제천 송화사에서 많은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봉행됐다.

삼귀의에 이어서 호법원장 인수 스님의 태허 스님 법어 봉독과 총무원장 경암 스님의 추모사가 있은 후 교육원장 혜련 스님의 공양청이 있었다.

이어서 전국신도회장 서명의 거사의 추도문 낭독이 있은 후에 종정 면철 큰스님의 법문이 있었다.

면철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고자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불입종 종도들의 수행종풍"이라고 전재하고, "법화묘리가 온 인류에게 삶의 근원적 고통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날이 멀지 않았으니, 태허 스님의 자비 원력을 높이 받들어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법문했다.

노덕현 기자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인 되라"

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에 불교예절 강의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혜철 스님(옥천 대성사 주지)은 8월 18일 외국인보호소(소장 석태근)에서 종교 활동 참가를 희망하는 보호외국인 20명(중국, 인도, 태국)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와 불교예절을 가르쳤다.



혜철 스님이 20여 보호외국인들에게 '수처작주'를 설하고 있다.

이날 스님은 보호외국인들과 노사연의 '만남' 등 한국가요를 함께 부르고 인연에 대해 법문했다. 이어 한국의 사찰예법, 차 마시기, 절하는 법, 명상, 염불 등을 지도했다.

스님은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며 "어느 곳에 머무르더라도 주인이 돼 살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한국의 어려운 시절을 들려주며 "조상들이 땀 흘리고 절약한 결과로 부강하게 살게 됐다. 노동으로 땀 흘리는 보람을 통해 값진 희망을 품고 여러분의 나라에 돌아가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한편, 청주 외국인보호소는 2004년 7월 1일 개청해 보호외국인관리, 보호외국인 강제퇴거, 보호외국인 고충처리 등을 처리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보호외국인들에 대한 종교적 요구에 부응해 각 종교단체의 지원으로 2008년부터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종교 활동을 각각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종교 활동을 통해 보호외국인들의 권익향상과 심리적 안정 및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대산학교 문화행사

자비실천운동본부 등



자비실천운동본부(회장 해광, 자비사 주지)와 대한불교범종단연합회(회장 지암)가 주최하고 자비원미혼모센터, 한국불교임제종, 범종회 등록 종단 등이 후원하는 대산학교 문화행사(사진)가 8월 14~15일 법무부 대산학교(대덕 소년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자비실천운동본부 회원 50여 명과 봉사자 200여 명 등이 참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원생들이 직접 만든 자장면 점심은 이날 행사의 백미로 큰 추억을 남겼다.

한편 자비실천운동본부 회장 해광 스님과 자비원미혼모센터 원장 혜전 스님은 청주지역 비행청소년들과 불우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13일 청주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혜철 충청지사장

방학교실 수료식

대전 서구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지역아동을 위한 방학프로그램을 진행해 화제다.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8월 24일 복지관 3층에서 지역아동방학교실인 '제4기 더불어 꿈꾸는 뭉게구름' 방학교실 수료식을 봉행했다.

뭉게구름 방학교실은 8월 3일 개강해 지역 아동들에게 다양한 취미와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 알찬 방학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왔다.

대전 지역 아이들은 어르신들과 탁구를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를 즐겼고, 부모님과 함께 장구 등 사물놀이를 배웠다. 그 밖에 사군자, 요가, 댄스스포츠 등의 활동도 진행됐다.

서구노인복지관에서 특별한 방학을 보낸 아동들은 "개학하고 방과 후 봉사활동도 오고 싶다"며 봉사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약사 오복덕 수련으로 신심수양

안심정사, 제1회 오복덕 대성취 수양회 열어

'제1회 약사 오복덕 대성취 심신수양회'가 광복절 연휴를 맞아 8월 14~16일 2박3일간 논산 안심정사(주지 법안)에서 입제에 들어갔다.



8월 14~16일 열린 제1회 오복덕 대성취 수양회.

향후 안심정사는 토요철야법회, 일요법회와 더불어 2개월 마다 집중수련을 통해 오복석 수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오복덕 심신수양회에서는 전문가를 초빙해 다도와 차 마시기, 웃음치료, 기공훈련, 초기불교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지 법안 스님은 "장소 관계로 올해는 전국에서 신청한 30명의 불자만으로 <약사경>에 나오는 다섯 가지 복을 집중 수행하게 됐다"며 "첫째 건강, 둘째 재물, 셋째 명예, 넷째 자녀 다섯째 부처님의 깨달음 등 약사 오복덕의 수련으로 신심이 확고하게 자리잡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어린이불교학교

대한불교수도원

청주 대한불교수도원(원장 설곡)은 8월 14~16일 2박3일간 제48회 어린이불교학교(지도법사 · 광제사 주지 원행)를 개최했다.

어린이불교학교에서는 예불 및 공양법 교육을 비롯해 부처님 일대기 영화 감상, 불교퀴즈 풀이, 발원문 쓰기, 다례지도 등이 진행됐다. 어린이불교학교에 참가한 30여 아이들은 불교문화와 한국전통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수도원 초의 스님의 사물놀이 교육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원장 설곡 스님은 "도량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 풍선을 던지고 천진난만한 자유스런 모습들과 참을성 있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다"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사찰 여름불교학교에 학생들과 함께 입학해 스스로 성숙해지는 경험을 쌓게해 달라"고 권유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한국최면연구소

제43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오후5시 까지)

▶개 강: 2009년 8월 24일 (월)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200만원
▶특 전: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현재 접수중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지리산 야단법석 현장

한국불교 '오늘'을 토론하며 '내일'을 열다

200명 참가자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한 가족된 4박5일
과학특강 · 움직이는선원 · 작은음악회 호응 '만점'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은 8월 14~15일 오전, 오후 법주스님들의 강의와 토론에 이어 저녁에 진행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활기를 더했다. 저녁 공양시간 이후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 특별시간에는 이시우 박사의 '우주과학과 불교' 강연, 도법 스님의 '지리산 성지화'와 '움직이는 선원' 이야기, 지역민들이 꾸민 '이야기가 있는 작은 음악회' 등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첫 날인 14일 저녁. 야단법석이 진행되는 동안 각 방 방장부터 바닥청소, 화장실 청소 당번까지 출재가자를 막론하고 각자의 소임을 부여받았다. 200여 사부대중은 강의 중간에 제공된 간식제공 도우미, 친환경 재래식 화장실의 청결 유지 등 각자 소임에 빈틈없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활약은 원만한 법회 진행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했다.

용상방을 마치고 각지에서 모인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4박5일간 함께할 이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밝은사람들 연구소 박찬욱 소장은 "불교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중앙승가대 학인 성민 스님은 "승가대는 불교학, 역경, 포교의 기존 3대 과목에 불교상담심리학을 개설해 사회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스님들도 자기공부 뿐만 아니라 사회 환원에 뜻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설 <우담바라> 저자 남지심씨는 "더운 날씨에도 여기 오는 분들의 뜻이 모여 자비행을 완성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 여름은 정법을 구현하는 이들의 열기를 시샘하는 듯했다. 선풍기 몇 대에 의지해 좁은 공간 속에서, 장시간 법문을 듣고 저녁예불과 공양을 마치면 휴식을 취하러 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참가자들은 다시 용맹정진을 이어갔다.

15일 저녁에는 이시우 박사의 '우주물리학과 불교' 강의가 열려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시우 박사는 경북대와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한국과학기술원 한림원 정회원으로서 깨달음의 세계가 우주에도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 관측천문학의 개척자다.

이시우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별들의 집합인 성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의 강한 인력으로 작은 별들이 이탈한다. 이때 성단은 이탈로 인해 감소된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수축한다. 즉, 구성원이 이탈하면 조직을 수축 ·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현종단도 불자들의 외면과 교세위축에 대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박사는 "우주에는 별들의 생주이멸(生住異滅)에 그치지 않고 성단과 우주전체가 생명체처럼 연기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법칙이 있다. 연기법은 불법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불교 또한 연기적 공동체의 전체적 깨달음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끝으로 "우주와 성단은 모두 성단과 별의 충돌에 의해 탄생한다"며 "출가와 재가는 논쟁을 해야 발전이 있다. 야단법석에서 현 종단을 향해 제기하는 목소리가 결국 현불교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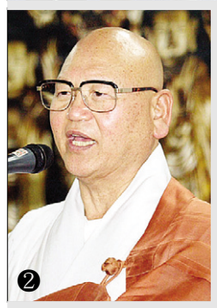
야단법석의 열기가 무르익어가는 16일. 도법 스님은 '지리산 성지화 운동'과 '움직이는 선원'에 대해 강의했다.

도법 스님은 "'지리산 성지화 운동'과 '움직이는 선원'은 나와 사회, 불교가 우리 시대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고 모두가 이로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물이다. 생명 · 공동체 · 지역 · 농업 · 불교계의 혼란과 위기에 대한 문명사적 대안, 불교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한국사회 현실에서 불교계가 주체적으로 일을 해서 불교계와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평가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답이 지리산에 있다"이라며 "앞으로 정책, 기획, 운영기구를 상설화 해 성지화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움직이는 선원'에 대해서는 "불교이론과 실천, 선불교와 교학불교, 대승불교와 초기불교, 세간과 출세간, 출재가자의 수행과 일상의 삶이 연기 중도적으로 통일되는 대안적 수행과 선원"이라며 "삶의 현장, 갈등이 벌어지는 문제의 현장이 모두 선원으로 사부대중 모두가 올해 동안거 지리산 팔백리를 침묵으로 걷는 수행"이라고 소개했다.

길고 긴 야단법석의 마지막 날, 실상사 작은 학교에는 꾸밈없는 자연의 모습이 담긴 작은 음악회가 펼쳐졌다. 음악회는 산내면 어린이들의 수준급 피아노 · 기타 공연, 이원규 시인의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외 3편의 시낭송, 이경재 선생의 실상사 작은학교 이야기, 이창수씨의 사진 이야기 등 소박한 공연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특별취재팀
글=김성우 · 조동섭 · 노덕현 · 이상언 · 박선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❶왼쪽부터 현각 · 향봉 · 혜국 · 무비 · 도법 · 재연 스님.
❷청주 용화사 주지 월탄 스님.
❸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학술위원장 월암 스님.
❹하동 쌍계사 주지 상훈 스님.
❺화엄학림 학장 법인 스님.
❻14일 지리산 실상사 작은학교에서 봉행된 야단법석 입재식 모습.
❼18일 전 강의를 마치고 출재가자들이 한 자리에서 법석을 소회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❽18일 야단법석 회향식을 봉행했다.
❾야단법석에는 200여 사부대중이 4박5일동안 난상토론을 펼쳤다.
❿이시우 박사가 '우주물리학과 불교'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⓫17일 저녁 '작은 음악회'에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산내면 학생들.



‘불상창고’ 같은 법당 이제 그만… ‘정법’만 생각해야

무비 스님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서 살펴본 수행지침 점검과 반성

講論 ①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은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통한 한국불교 진단을 주제로 8월 14일 오후 첫 문을 열었다. <금강경>이 조계종 소의경전이기에 앞서 현대사회의 불교에 적합한지, 사부대중은 소의경전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등이 주요논제가 됐다.

조계종의 대강백 무비 스님(움직이는선원 조실)은 야단법석 첫날부터 이틀간 4강에 걸쳐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서 살펴본 수행지침 점검과 반성’을 주제로 법석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는 ‘천불 · 만불로 만든 불상창고 같은 법당’ ‘1029일 천도재는 무속행위 같은 일’ ‘종정 상(相) 총무원장 상도 버려라’ 등 한국불교 현실에 대한 고언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무비 스님은 “선을 표방하는 조계종이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지만 <금강경>이 대승불교의 소의경전으로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금강경>에 보살정신을 세상에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미약한 것 등 <금강경>이 조계종 소의경전으로 정해질 때는 소의경전으로 손색이 없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사회변화에 따라 불교부터 발전하고 변혁해가야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님은 “불교가 할 일은 보살행이다. <금강경>에 보살정신이 담겨있으나 다른 경전에 비해 미미하다. 불교는 변화 · 발전하는 종교이다. 과감하게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법 스님은 토론을 통해 “무비 스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소의경전인 <금강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까 하고 놀랐다”면서 “무비 스님이 한국불교를 아끼는 마음이 절절했기 때문일 것”이라 말했다.



이어 도법 스님은 “나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한국불교가 대승불교다. 부처님 열반 후 500년 후 등장한 대승불교는 당시로는 천지가 개벽할 혁신적인 변화였다. 조계종단도 오늘의 현실에 응답하고 21세기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려면, 소의경전을 바꾸는 문제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범한 입장에서 화두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강경>의 소의경전 자격(?) 논란에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 다수의 재가자가 무비 스님의 문제제기에 동의한 반면, 일부 스님 중에는 무비 스님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췰오 스님(구룡사)은 “<금강경>이 완전하지 않다면 완성된 경전은 무엇인가? 행사가 ‘중생제도, 동체대비’를 주제로 달고 계속 몰아가는데 깨달음 없이 동체대비가 가능한가? <금강경>은 소의경전으로도, 중생제도로도 부족함이 없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자연히 중생제도로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금강경’ 완전한 불교 표현에 부족한 점 있어 소의경전 ‘대승경전 · 선종어록’으로 확대해야

이에 무비 스님은 “완전한 경전을 꼽으라면 <법화경>을 들 수 있다. <법화경>은 불자로서 사회에 어떻게 회향할 것인지를 강조하고 모든 것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굳이 소의경전을 한 권만 선택할 이유가 있느냐”며 “조계종의 소의경전을 선택하라면 대승경전과 선종어록 등이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무비 스님의 강연 요약.

1. 불교는 변화의 종교다

불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종교로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부단한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즉 안으로는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혁범성성(革凡成聖)을 목표로 해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고, 밖으로는 이 세상의 예토(穢土)를 정토화(淨土化), 불국토화(佛國土化)한다는 원력실현(願力實現)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서양의 물질문명이 들어와서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놀라운 변화와 혁신(革新)을 가져왔지만 아무리 훑어보아도 중생이 부처가 되는 혁범성성이나 예토의 불국토화와 같은 표현이나 그와 유사한 시도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꾀하고자하는 그 혁신과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가를 족히 짐작하리라.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불교이기에 초기불교에서 세존의 열반만을 기다리던 한 무리가 있어 세존이 열반에 들자마자 교단의 혁신을 꾀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교리나 사상이 아닌 승가생활의 규범인 서릿발 같은 계율의 문제에 제동을 걸고 혁신을 모색한 것이다. 아무튼 그것이 출발점이 돼 부단한 변화를 모색해 온 교단은 드디어 진보적 성향인 대중부와 보수적 성향인 상좌부로 나뉘더니 급기야는 20여개 부파로 쪼개졌으나 그와 같은 와중에서 실로 불교 그 자체에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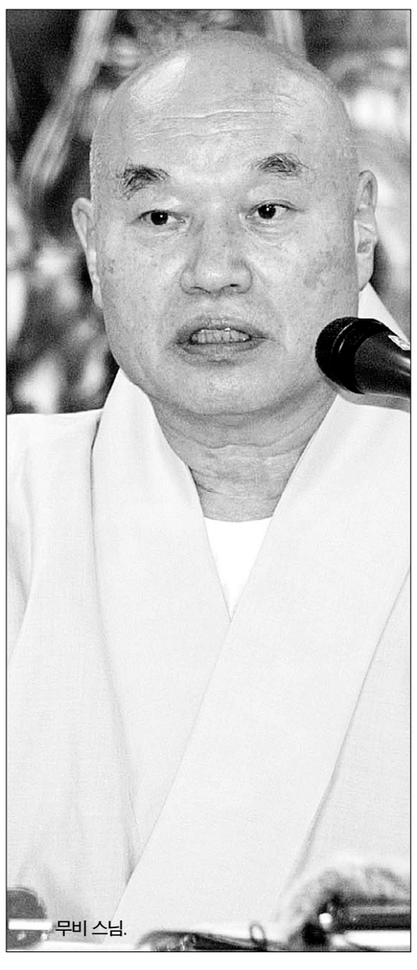
대중부나 상좌부나 당시 출가자들은 승가집단만을 위한 고착된 사고 때문에 정토화니 불국토화니 하는 사회적인 책무에는 뒷전이었다. 즉 바깥세상의 어려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불교가 살아있는 전통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도 변화와 성장과 발전은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로 기원전 1세기경 대중부 속에서 대승불교라는 급진적 교파가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승불교란 불교내부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이었으며 출가자와 재가불자 모두 수용하려는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이며 반란이며 쿠데타였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해탈로 인도하는 실로 큰 수레였으며, 부처님의 진정한 정신이었다.

비록 2600여 년의 시간은 흘렀지만 이와 같은 전통을 계승해 온 오늘의 우리들이다. 실로 자랑스럽기도 하려니와 그 책임과 의무도 또한 무겁기 그지없다. 돌이켜 선사들의 자취를 살펴보면 자신이 차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으며 지금 이 시대의 불교 상황도 참으로 암울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저의 관견(管見)으로 더듬어 본 불교 그 자체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한편 분에 넘치기에 차마 오늘날의 불교 현실이 눈에 밟혀 병든 노구지만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몇 분의 지사(志士)들이 자신과 그리고 불교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도모해 보고자 노심초사하기에 미력이나마 운력(運力)에 동참한 것이다.

그들은 몸부림치며 전 국토를 걷기도 하고 삼보일배를 하면서 실로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 보려고 무진 애를 쓴다. 그 걸음은 어제에 그랬듯이 오늘도 또 내일도 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수행이든, 불교의 정화든, 아니면 단순한 방선시간의 포행이든, 그렇게 나아가고 또 나아간다. 비록 한낱 꿈에 불과할지라도 이상적인 불교, 세계불교의 모델이 될 만한 불교를 위한 불사가 되고, 오늘의 불교와 미래사회를 선도할 미래불교를 위한 길이 됐으면 한다. 나아감은 곧 변화요, 혁신이요, 그것이 곧 불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무비 스님.

그래서 우리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근거에 의해 논의하는 것이 옳다 생각돼 <금강경>으로 이번 자리를 돌아보게 됐다. 마침 조계종에서 표준 <금강경>이 편찬돼 처음으로 함께 읽으며 공개강의를 하게 됐다.

2. <금강경>이 소의경전으로 정해진 배경

<금강경>은 한국불교의 소의경전이다. <금강경>이 한국불교의 소의경전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모든 불교도는 <금강경>의 정신에 의해 수행과 전법과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의 눈으로 오늘의 한국불교를 점검해 수행과 전법과 삶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일치와 불일치를 가려내어 그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시도해본다. 그것이 곧 정법불교(신 대승불교)를 모색하는 운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정법불교(신 대승불교)를 모색하는 운동이라면 사실 <금강경>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의경전으로, 또는 제일 각광받는 중요한 경전으로 정해지게 된 배경은 선불교의 역대 선사들이 특별히 애독한 관계로 우리나라에서 <금강경 오가해>가 편찬돼 전통 교육기관의 교과서로서 오랫동안 읽혀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사들이 그처럼 특별히 좋아한 이유는 조계종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 6조 혜능 선사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종파로 변천해 왔다. 사실 선불교는 대승불교가 쇠퇴하면서 생긴 불교다. 엄격하게 따지면 선불교가 아니라 그냥 선이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주장이 적지 않다. 선불교는 불교가 중국에 건너와서 기존의 민중종교인 유교, 도교와 만나면서 탄생한 매우 특수한 정신세계다. 한편 노자와 장자, 중용, 대학을 섭렵한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발전한 대승불교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그다지 특별한 매력은 주지 못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튼 유불선을 아우르며 그 모든 것들의 상위에 자리하게 된 선불교의 선사들은 하늘을 찌르는 고준한 의식과 거의 도교의 도사들과 유사한 간소(簡素), 탈속(脫俗), 자연(自然), 유현(幽玄), 고고(枯孤), 정적(靜寂), 변화(變化), 부동(不動, 八風不動), 무소유(無所有) 등 삶의 모습으로 기존의 불교도들에게 태풍과 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나는 이것을 선의 8대 정신으로 정리한다). 이러한 선불교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래되면서 선사들이 이미 즐겨 읽던 <금강경>이 언제부터인가 소의경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금강경>은 대승불교가 완전하게 발달하기 이전 초기대승불교에 해당하는 경전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불교 즉, 이상적인 불교를 표현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금강경>을 이상적인 불교, 완전한 불교의 소의경전으로 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점도 다시 점검해 봐야할 일이다. <금강경>을 포함한 위에서 보인 선불교와 선사들의 삶에서는 대승적 보살정신으로 예토의 정토화에 대한 노력을 찾아보기란 지극히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강경>에 의해 이상적인 정법불교를 모색하기란 어렵지 않은가?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선 소의경전인 <금강경>에서 수행지침이 되고 삶의 좌표가 될 만 한 점들 몇 가지를 대강 찾아 초록해 강호제현(江湖諸賢)들과 함께 오늘의 한국불교를 점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별취재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종 헌 공 포

우리 종단 중앙종회에서 2009. 8. 17자로 개정한 종헌과 종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우리 종단은 2009. 4. 13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종정중심제를 총무원장을 대표로 하는 총무원장중심제로 종헌과 종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2009. 8. 17 총무원장중심제로 종헌과 종법을 개정, 공포하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 종정 장영국(혜봉), 대표자 총무원장 김윤철(향운)으로 바뀌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우리 종단이 2009. 8. 17 부터 총무원장중심제의 종헌을 채택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 것이니 모든 종도는 착오 없기 바라며 , 우리 종단의 종지인 화쟁회통의 정신에 따라 오로지 불국정토건설에 매진할지저.

- 다 음 -

종 법 명	제정년월일	면 수	개정년월일
종헌	1985.07.01	18	2009.08.17
1. 종정추대조례	1977.11.20	1	2009.08.17
2. 원로원법	1985.01.05	2	2009.08.17
3. 중앙종회법	1977.11.20	2~9	2009.08.17
4. 감사법	2009.08.17	9~10	2009.08.17
5. 총무원법	1977.11.20	10~14	2009.08.17
6. 규정원법	1977.11.20	15~20	2009.08.17
7. 법규위원회법	1985.01.05	20~22	2009.08.17
8. 고시위원회법	1985.01.05	22~24	2009.08.17
9. 포상위원회법	2009.08.17	24~25	2009.08.17
10. 원효종단자산관리법	1985.01.05	25~28	2009.08.17
11. 종단재산심의위원회법	1985.01.05	28~31	2009.08.17
12. 신도회법	1979.01.01	31~35	2009.08.17
종학연구원법	1985.01.05	-	폐 지
상벌위원회법	1985.01.05	-	폐 지
분한요금규정	1982.01.01	-	폐 지
대한불교원효종종도회회칙	1979.01.01	-	폐 지

불기 2553(2009)년 8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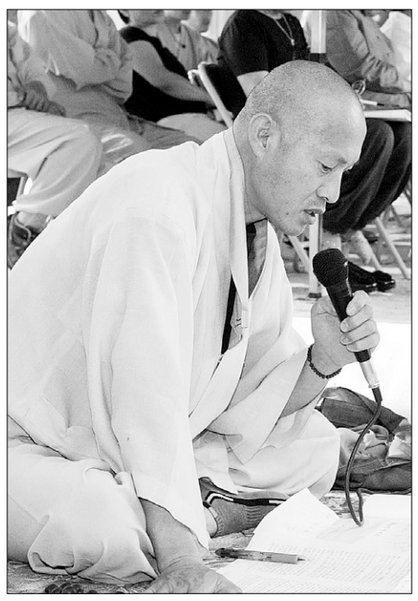
대한불교 원효종 종 정 혜 봉

‘깨달음 병’에 들지말고 중생 삶 돌보기 매진하자

무비 스님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서 살펴본 수행지침 점검과 반성

講論 ②


토론하는 진오 스님.


토론하는 현각 스님.


토론하는 남지심 작가.


토론하는 박찬욱 소장.

정신복지에 힘써야… 실생활에서의 치유에 관심
성지 있어도 중생에게 회향되지 않으면 의미 없어
‘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보살행 지평 넓혀야

소의경전에 대한 논란은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그러나 무비 스님의 법석은 <금강경>을 강독하고 각 분(分)마다 문제를 점검하며 무르익어 갔다. 스님은 대중과 <금강경> 각 분을 합송(合誦)한 후 점검 · 토론하며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전법에 겸손 · 정직해야

제1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무비 스님: “불교는 이렇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했다” 등으로 말하는 불자들이 많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며 오만한 태도다. 불교를 강의하고 법을 설함에 있어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한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바로 문 밖만 나서면 서로 다르게 이야기 한다. 한 사람만 건너가면 본래의 뜻이 와전되는 것이 현실이다. 올바른 불자라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단정 짓지 말고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하고 겸손히 말해야 한다.

#어려운 이웃 바로 돕는 불교 돼야

제1 법회인유분(法會因由分)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습니다.”

무비 스님: <금강경>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에서 설해진 것은 고독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살피고자 함이었다. 기수급고독원은 기타(祇陀) 태자와 급고독(給孤獨) 장자가 보시해 지어진 곳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았던 급고독 장자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보살피라는 취지에서 <금강경>이 급고독원에서 설해졌다고 표현한 것이다.

근본불교라는 아함부 경전도 부처님 열반 후 400여 년이 지나서야 성문화됐다. <금강경> 등 대승불교 경전은 짧게는 500년, 1000년 후 지어진 것도 있다. 대승경전인 <금강경>이 기수급고독원에서 설해졌다는 것에는 의도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라는 보살정신을 표현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과연 불자들이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수행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봐야 한다.

법인 스님(화엄학림 학장):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할 때 보살행이라고 칭해서는 안 된다. 노숙자들이 왜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사회적으로 접근이 있어야 한다. 참선하고 경전 읽고 깨달아 보시하고, 고통에 대한 인식이 낮은 까닭에 사회적 대응방법이라고는 법보시라는 법문이 대부분이며, 현실 사안에 대한 자선사업에 머물고 있다.

보살행을 할 때 보다 개인적 · 사회적 · 범인류적 문제와 환경 문제 등 고(苦)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인식으로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의 보살행은 자선사업으로 가는 좁은 의미로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토론자(우바새): 포교활동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지에 가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각 스님(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종교별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불교는 근래 들어서야 체면유지하는 정도다. 또,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종교시설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우리가 역으로 이들을 힘들게 하는 사례도 있어 반성할 필요가 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등에 얽매여 그들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주변을 돌아보면 해야할 일이 많다. <천수경>을 교재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한글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한 비구니스님이 한 예다. 요즘 다문화가정이 주변에 많다. 한국문화를 모르고 온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등도 찾아보자.

박찬욱 소장(밝은사람들): 보살행하면 이타행과 물질복지와 정신복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불교의 입장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신적 복지다.

일반인이 살다보면 고통의 문제,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고(苦)는 구체적이고 상세하지만 절에 오면 원칙적인 얘기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테크닉이 부족하다. 구호가 아닌 치유에 관심을 둬야한다.

진오 스님(청정승가대중결사 의장): 종책 소임자 등에게 목욕봉사 등 봉사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 자격조건 제한을 둬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포교종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가 남지심: 부처님 가르침 정말 좋다. 하지만 가르침만으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삶이라는 문제에서 아는 것만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 부처님 바른 법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안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삶의 실천, 인격의 완성이 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전법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천이 결여되면 부처님 가르침은 완성될 수 없다.

도법 스님: 지금 이 야단법석의 성격 자체가 <금강경>의 눈으로 한국불교 현실을 진단하고 길을 찾는 것이다. ‘진단’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보자.

스님들 가운데 ‘깨달음병 환자’ ‘부처병 환자’ ‘견성성불(見性成佛) 환자’가 많다. 이들에게 보살행을 하면 반드시 견성성불하고 부처된다는 확신을 주느냐가 중요하다. 법주스님(무비 스님)이 고통 받는 “이웃을 위해 보살행을 하면 성불한다, 부처된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면 그 다음 문제는 저절로 풀릴 것 같다.

해인사는 ‘현대의 국민선사’라 불리는 성철 스님이 심오하고 고준한 법을 가르친 곳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보면 사하촌 주민들은 스님들을 불신하고 기피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다. 조계종 종립선원인 봉암사를 보자. 근래 들어 사찰의 외형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졌지만 주변마을은 무참하게 버려졌다. 한국불교는 중생의 삶을 돌보는 근본적인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

무비 스님: 아픈 지적에 한 마디 덧붙이면, 어느 절에 주지스님이 새로 부임했다. 짠 스님인데 설을 맞이해 쌀 90포대를 준비해 한 동네는 40포대, 옆 동네는 50포대를 나눠줬다. 주민들 사이에 난리가 났다. “스님들이 어디 잘못된 것 아닌가” “다른 곳에 갈 쌀을 잘못 전한 것 아닌가” 하는 등 여러 억측이 난무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 동네가 바로 사하촌이었다.

봉암사 · 해인사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다. 고준한 성지가 있더라도 중생들에게 회향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그것은 소승(小乘)이다.

성도(成道)와 견성(見性)은 옆 사람을 볼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안목이다. 사찰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주변 사하촌부터 보살필 줄 아는 각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성불돼 있는 존재다. 보살행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성불하겠다는 간판을 걸고 정진하는 사람, 진정 성불하고 싶어서 앉아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정말 성불할거면 과연 그렇게 살 것인지, 불교계 치부이지만 이제는 다 깨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

특별취재팀

부산불교교육대학
2009년 하반기 신입생 모집

30여년의 역사와 1만여 동창생 전국 최고의 승 재가로 엄선된 교수진은 힘들고 바쁘고 피곤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줍니다. 기초부터 경전까지, 의식반과 한문반, 다도반, 수화반, 합창단 및 사회 봉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삶을 진정으로 값지게 만들어 줍니다.
최고의 교육시설과 편리한 교통 쉽게 이해되도록 여러분의 닫힌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부산불교교육대학과 인연하시어 새로운 삶을 가치로써 승화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학장 서해 홍교 합장

✲모집학과

기초교리반(6개월 과정)
강 의: 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입학금 : 4만원 월수업료 : 3만원
• 불자의 기본자세 • 불교의 핵심교리 • 법당의 예절
• 천수경 의미 • 부처님의 생애 • 불교음악미술
• 불교란 무엇인가 • 염불, 참선, 기도란 • 진리의세계

수화반 (6개월 과정)
강 의: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불교 한문반 (6개월 과정)
강 의: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

불교전통의식반 (6개월 과정)
강 의: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접수:2009년 7월 15일 ~ 9월 15일
한글인터넷 :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수소개

승 가	재 가
도업 스님 前 동국대 교수	강동균 동아대 교수
마성 스님 동국대 교수	강선태 前동의대 교수
성문 스님 선광사 주지	김용환 부산대 교수
성본 스님 동국대 대학원장	이 만 동국대 교수
시명 스님 前해인사 승가대 강주	정병조 동국대 교수
원광 스님 옥련암 주지	박도환 법사 전임교수
원일 스님 금용암 주지	현익채 법사 교법사
일광 스님 복천사 주지	조경미 강사 수화국제통역사
정인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종석 스님 중앙승가대학원장	

특전
• 재학중 성적 우수자, 포교활동 인정자는 장학금 지급
• 부부, 가족 2인 입학시 1명은 수업료 50% 면제

문의 (051)711-0700~2 FAX 711-0703

불교교육전문기관
사)삼보 부산불교교육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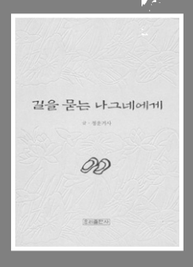
六祖慧能과 金剛經五家解



엮은이/청운
신국판 / 15,000원

마하반야摩訶般若는
제법諸法의 실상實相을 비추어
깨닫는 최극최승最極最勝의 대지혜大智慧이며
오음五陰의 번뇌煩惱와 진로塵勞, 망상를
때려부수는 금강金剛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이 반야바라밀법을 수행修行하면
반드시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길을 묻는 나그네에게



지은이/청운
신국판 / 10,000원

무엇이 정법(正法) 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수행(修行) 인가!

순수한 불자佛子로서 행여 본인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는 신심信心 있는 분들을 위하여,
누구나 바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자기 중심이 서야 하기에, 나름대로 공부한
부처님의 설법說法과 역대 조사祖師, 근대 선지식
善知識께서 설說하신 법문法文 중에서 언제나
가슴에 와 닿는 주옥珠玉같은 말씀을 모아
우리 불자들이 다만 한 게송偈頌 한 구절이라도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히 책으로 엮은 것이다.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뗏목의 비유와 '낯뜨거운 방편'은 분명히 다르다

무비 스님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서 살펴본 수행지침 점검과 반성

講論 ③


좁은 공간에서 마주 앉은 무비 스님과 사부대중은 시종일관 〈금강경〉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

진정성 담긴 살아 움직이는 중생제도 필요
"무주상보시 어려우면 상내는 보시라도 하라"
본질 잃지 않을 '법 다운 방편' 찾아야할 때

〈금강경〉을 두고 소의경전 타당성을 점검한 무비 스님의 법석은 〈금강경〉 각 분마다 대중이 함께 독송을 하고, 토론을 할수록 깊어지는 한국불교에 대한 애정이 분별심을 떠난 비판으로 줄이었다.

#깨달음은 없다

제2 선현기청분(善現起請分):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무비 스님: 범어사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스님에게서 수보리 같은 질문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신도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 스님들이 다 알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다. 지극한 발심과 열정, 참구(參究) 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

토론자(우바새 · 포항): 〈금강경〉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

무비 스님: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는다(無所得法). 깨달음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 깨침과 설법은 없다. 〈금강경〉에는 깨달음이라 할만한 정해진 법도 없고 여래가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다(無有定法)고 설했다.

도법 스님: 우리 머리 속에 있는 것을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도몽상(顚倒夢想)이라고 한다. 법주스님은 이런 까닭에 깨달음이 없다고 한 것 아닌가?

우리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이야기한다. 실제로 천개의 손 ·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을 만나면 다 도망갈 것이다. 우리가 머리 속에 그리는 깨달음, 부처는 실재하지 않는다.

#중생제도는 실천이 우선돼야

제3 대승정종분(大乘正宗分):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무비 스님: 대승불교의 삶은 모든 중생을 무한 제도하고 교화하는 일이다. 오늘날 불교에 중생제도를 위한 노력은 있는가? 오늘날의 포교는 과연 중생제도인가? 그리고 중생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참으로 중생제도를 하기 위해서인지 생색 내기 위해서라도 중생제도를 하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 중생제도를 하는지 분별이 많다. 작은 행동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중생제도가 필요하다.

#어려움 돕는 것이 최우선

제4 묘행무주분(妙行無住分):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무비 스님: 아름다운 행위는 집착이 없다. 떠날 때 시원하게 떠나는 사람이 아름답다. 집착 없이 보시하기 어렵다면 상(相)을 내도 좋다. 상 내도 좋으니 무의탁 독거노인, 어려운 아이들 돕는 것이 중요하다. 무주상보시가 어려우면, 유주상보시(有住相布施)라도 하라는 말이다.

#사회문제 차별 없이 대응해야

제5 여리실견분(如理實見分):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여래를 보리라."

무비 스님: 여래를 신체적 특징과 역사적 사실을 떠나서 이해하는가? 또, 사람을 외적 조건을 떠나서 고유하며 지고한 가치로서 이해하는가?

차별이 많은 사회다. 내면이 아니라 외형에서 비롯된 차별이 너무나 많다. 불교는 현상을 공(空)하다고 보고, 연기(緣起)를 강조한다. 부처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도법 스님: 노무현 前 대통령은 평생 일관된 행동을 해, 바보 노무현으로 살았다. 죽음도 일관된 것, 그래서 보살행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여래심(如來心)에서 우리에게 충격과 아픔을 준 사건이 노무현의 서거와 용산참사가 아니겠는가. 노무현 前 대통령에게는 범종단적으로 조의를 표하지만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불교계가 눈 감고 있다시피 한다.

무비 스님: 문제의 경중을 떠나 왜 한 사람의 죽음에는 거국적으로 조문하면서 죽어서 안될 사람들의 죽음은 외면시 하는가. 사람의 생명은 동일한데 왜 그런가. 그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다. 대통령의 죽음이 됐던 행복한 죽음이건 사람의 생명에 대해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

서울 시내를 다이아몬드로 재건한다고 해도 한 생명의 가치와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곳에 눈뜰 수 있는 의식이 아직 미약한 것이 불교계의 현주소다.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많아져서 진실로 중생의 아픔에 마음을 많이 쓸 수 있는 불교가 돼야 한다.

#한국불교 1번지서 영가장사 말아야

제6 정신희유분(正信稀有分): "나의 설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무비 스님: 방편불교는 과연 방편으로 이해하는가. 무당화 된 방편불교와 거품불교는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불교 천도불교 행사불교 등은 어떤가. 부처님 설법마저도 뗏목과 같은 줄 알라고 했으나 별의별 방편이 만들어졌다. 방편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도 낯 뜨거운 현상들도 많이 벌어진다.

법산 스님: 지금 조계사, 해인사에서 1029일 천도재를 하고 있다. 방편이라고는 해도 이것이 가능한가. 나도 가끔 천도재를 올리지만, 그 천도재를 통해 영가가 정말 극락 가는지는 알 수 없다. 내가 열심히 영가의 극락왕생을 빌어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 1029일까지 거창하게 천도재를 봉행해야 하는지, 그것이 종지종풍(宗旨宗風)에 맞는지는 의문이다.

무비 스님: 이것은 생각해봐야 한다. 해인사와 조계사는 각각 법보종찰과 한국불교 제1번지인데, 49재를 49번 지내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조계사 주지스님 요청으로 그 자리에 갔다. 참석해서 대중들에게 영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우리가 바로 영가다. 전생의 자손들은 지금 우리 이름을 붙여 놓고 천도할 것이다. 물론 천도재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해인사가 어떤 사찰인가. 법보인 '팔만대장경'을 모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찰이다. 서릿발 같은 법만 거량해도 모자란 곳이다. 한국불교 1번지인 조계사도 마찬가지다. 최상승의 법을 거량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사람이 모자라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이다.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불교를 세울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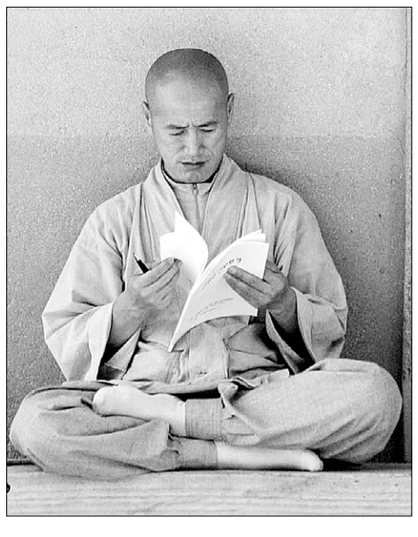
현각 스님: 직접 거론하기 어렵지만, 영가를 팔아서 큰스님이 된 스님도 있다. 지난번 본말사주지연수 때, 한 주지스님이 설법전에 걸린 영가를 소개하면서 1인당 2만원인데, 1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20억이 넘는 거액이다. 그 주지스님은 그렇게 모인 돈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방편은 우리 삶에서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도법 스님: 방편을 버릴 수는 없다. 법다운 방편, 법에 맞는 방법과 과정이 중요하다. 천도재는 상업화다. 법답게 하고 있는가, 법의 중심에서 48재를, 천도재를 하고 있는가, 상업화되지 않았냐는 돌이켜볼 문제다.

천도재를 통해 모은 돈을 합리적으로 쓰자는 의견도 있지만 위험한 발상이다. 49재를 하더라도 법의 정신에 맞게 해야 한다는 전제가 돼야 한다.

무비 스님: 신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 장사가 되니까 하는 것이다. 신도 의식 수준이 문제다. 염불, 참선 등 다양한 수행방법이 있는데도 천도재에 동조하니까 공급자가 생기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지나친 무속행위는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천도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지 않을 것이다. 양쪽 다 한심할 뿐이다. 우리 모두 같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지구촌 천지공사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비추니 유불선의 海道金卯 영도자가 전세계를 지배
즉시현문 현빈 현관을 열어 수재와 천재가 되어 도통하는 숙명통 육경신 대법회

진관진법 海道金卯의 비밀인 천지공사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뜻을 태일대사는 이 소식을 알아듣는 진인에게 전하노라

● 경신도통이란 인간의 수행으로는 죄와 업을 벗지 못하고 역대 그 누구도 상에 빠져 음과 양 유상과 무상의 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삼시구충의 원뿌리를 뽑아 눈으로 보는 세상을 초월 영원한 세상 생명의 빛 경신도법으로 탐진치 껍질을 벗는 수행법이고 음과 양이 바뀌고 산과 바다와 물질과 물질이 바뀌는 지구촌 천지공사로 천마리 닭과 마을이 있으나 봉황의 소리가 울려야 지구촌 닭이 울어 동방의 빛이 전세계를 비추니 단군이래 900여차례 침략을 받았던 대한민국 국운이 회춘 전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광명의 시대가 시작되는 기축년 윤오월 경신일 초복 무국성군이 양력 9월 11일 12일 자시와 오시에 天福大運이 태양진광진법을 경신일 소울음 우는 곳에 도통군자들에게 뜻을 전하고 하늘의 뜻을 받는 숙명통 득도법.

이제는 말이 소를 타니 소가 울어대는 울음소리가 나는 곳에서 생명의 빛이 혜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명을 열고 정신과 신심과 육신의 문을 열어 영원한 세상으로 팔자와 운명이 바뀌어 천하를 다스리는 천지공사 죽음의 뿌리를 끊고 시공을 넘어 행복한 삶과 견성도통으로 병없이 사는 최상승수행법이며 우리나라 국운이 세상을 지배하고 각나라에 해와 달과 별을 국기로 사용하는 나라는 운이 약해지고 전세계의 기운이 우리나라 운집하여 세계인류 평화촌 시대가 시작되는 대비밀법에 도전하시어 도통군자되시고 천지공사 주인되시고 천부팔력을 알아야 인류 최고 스승되는 수행법이고 중풍,치매,노화방지를 하여 젊음을 유지하는 수행법.

본 달마종단에서는 건강을 다스리고 수명을 관리하는 새로운 후천달마도법으로 뜻이 있으신 분과 본종단은 생활불교,거사불교,보살불교, 대중불교 머리깎고 승복에 구애 받지않으며 남녀노소 연령제한없이 불법홍포에 뜻이 있고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입종을 언제라도 환영.

◆**특별** 금년 윤달든해 기축년은 조상의 해이고 결혼, 생남, 사업, 일류대학, 진급, 고시, 취직 도통군자들에게 운이 막히고 방해하는 것은 자기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삼생의 죄업을 벗고 악한운과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경신일 자시와 우시에 현관을 열어 현재나 수재가 되어 일류 최고 스승과 자녀들에 머리두뇌가 약하거나 정신, 육신, 신심이 부족한 자와 대학입시, 사법공부, 사법행정, 고시 등 도전하여 견성도통하시고 일류 최고 스승 되소서.

숙명통 수행은 수행하는 자들의 능력과 말문을 열어 삼독의 뿌리를 끊고 마음자리에 부처를 모시는 것이고, 염불도통, 참선도통, 광명도통, 말문도통, 의술도통으로 만법을 얻어 중생을 제도하는 인류도통군자 사명자 지도 주문으로 천부팔력을 알아야 일류 최고 스승 되는 것이다.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천하대도 경신도통으로 기천문을 열어 상통천문하달지리로 자신의 일체의 병을 다스리는, 귀신마장의 포망을 넘어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천지공사 숙명통 도통군자 되는 법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 봉행. 금년 유행되는 신종플루 전염병을 막는 것은 배꼽을 덥는 것이 비방이다.

대한불교달마종조계종 부산범일동 약사도량 **진불선원**
부산 동구 범일동 830-295 삼환빌딩 3층 법당 **보현스님** 합장
051)635-3110 / 휴대폰 010-8533-1601,010-3239-3110

※ **특히, 천지공사달마 천궁회천법으로 혜안을 열어 거부장자로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천하명당 진인출현 경신수행 기도수행처. 기룡명당 봉황산**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259번지 ☎ 041)867-7763 / 010-7728-6707
세계불교달마종 천지공사경신도량 진불선원 태양의집 수행처
법당염불자, 맞이공양자, 수행자, 인연자 동참자. 달마종 입종 환영.

● **입제 : 양력 2009년 9월 11일(운, 7월 23일 금요일)(해시)**
● **해제 : 양력 2009년 9월 12일(운, 7월 24일 토요일)(해시)**
02-821-6622 , 821-7767, 010-3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교육원
천지공사미륵달마 **경 신 도 통 회**
실천 **세계불교 달마종 총 본산 태일합장**

현공풍수를 아십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풍수지리! 내가 직접 배워 생활에 적용하여 보십시오.
현공풍수는 중국 당나라 양구빈(834~900년)선생이 창안하여 그 동안 천년이 넘도록 사제지간에만 극비로 전해 내려온 독특한 풍수이론으로 최근에 대만에서 공개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최고급 풍수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공풍수이론에 대해 정보부족으로 잘 모르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공풍수는 1에서 9의 숫자조합만을 이용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고 1학기만 배워도 수 십년 풍수지리를 공부한 사람보다 주택(건물), 분묘를 더욱 명쾌하게 길흉화복을 감정 할 수 있는 천하 제일의 풍수지리학입니다.

현공풍수를 배우면

※아무리 좋은 대명당일지라도 좌향과 시기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 8운(2004년~2023년)중에 간, 인, 곤, 신, 술, 진 6개 좌향으로 신축한 주택(건물) 또는 이사한 주택, 묘 (이장 포함)를 쓰면 패가망신 하게 됩니다.
※특히 양택에서는 생극제화법을 이용하여 추길피흉 할 수 있습니다.
※현공풍수의 복잡한 이론은 조견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풍수학설(포태법과 동서팔택법)이 맞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 **대상자**
스님, 법사, 포교사, 건축, 토목, 도시계획, 조경, 인테리어, 전원주택, 펜션, 부동산컨설팅, 경매, (한)의사, 군지휘관, 장례업, 문중관계자, 민속학자, 문화콘텐츠, 감정사, 토지개발관계자, 역학인, 기존의 풍수사, 일반인
※ 기본 한자만 알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 및 문의전화** ◀
- 바보철학학원(경기평택) 018-308-1636
- 광양시평생교육관(전남광양) 011-626-0270
- 한림대평생교육원(강원춘천) 016-772-6688
- 군산대평생교육원(전북군산) 010-7788-1688
- 진주동남학원(경남진주) 055-761-1828
- 부천대평생교육원(경기부천) 011- 308-1830
- 원광대평생교육원(전북 익산) 011-659-1744
- 대전대평생교육원(대전광역시) 011-308-1830

대 한 현 공 풍 수 지 리 학 회
http://cafe.daum.net/gursrhdvndtn

불자의 첫 걸음은 부처님 가르침 깊고 넓게 배우는 것

무비 스님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서 살펴본 수행지침 점검과 반성
講論 ④


진지한 강의와 토론 가운데 박장대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선행 제대로 못해 불교 하락… 새 각오 다져야
종단 지도자 '相' 버리고 소의경전 실현을
"경전 근거 않고 멋대로 '간판' 걸면 불교 망해"

#부처님 말씀 바로 알면 남 도울 수밖에

제8 무법출생분(依法出生分):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무비 스님: 불자들이 우선 해야할 일이 부처님 가르침을 깊고 넓게 배우고 아는 것이다. 예전에 송광사에서 '보왕삼매론'을 복사해서 올리는 것을 봤다. 그때 부처님 깨달음을 알리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경전 문구를 한 장으로 정리해 1988년도 봄부터 알리기 시작했다. 불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느낀다면 저절로 희사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법의 실체 바로 알아야

제13분 여법수지분(如法受持分): "여래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까?"

무비 스님: 경전의 가르침을 무소설(無所說)의 안목으로 보는가? 진정한 <금강경>은 과연 무엇인가? 한 목숨의 가치보다도 <금강경>의 사구게(四句偈) 가치가 더 많다는데, 세상 만사 다 접고 <금강경>에만 매달려야 할 문제 아닌가? 언어 문자로 보는 <금강경> 말고 진정한 <금강경>은 무엇인가?

토론자(우바이): 교통사고로 왼팔을 못 쓰는 처사가 있었다. "처사님은 왼쪽 팔이 없어서 불편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오랫동안 안 써서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더라. 그 처사의 마음이 <금강경>을 대하는 우리들 마음 같다.

무비 스님: <금강경>의 진짜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평생 과제로 삼고 <금강경>을 수지독송해야 한다.

#법 아닌 법 알아야

제14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 "여래는 바른 말을 하는 이고, 참된 말을 하는 이며…."

무비 스님: 얼마나 바른 말, 참된 말, 이치에 맞는 말, 속임 없는 말을 하며, 양심대로 말하는가? 불교 교리를 사실 그대로 사찰운영과 관계없이 말하는가?

해진 스님(화엄학림): 이는 <금강경>에서 부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불법(佛法)이야 말로 불법(不法)이다.

도법 스님: 조계종단에 종헌 · 종법이 있어 조계종이 운영된다. 종정스님, 총무원장스님도 소의경전의 사상과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데 종단 소의경전의 사상과 정신이 종단에서 실현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상을 버리면 곧 부처"라고 말하면서 온통 상(相)노릇 하는 것이 아닌가. 종정상, 총무원장상, 주지상, 수좌상, 비구상 이런 상을 벗어던져야 한다.

#마음은 연기 작용의 결과

제18 일체동관분(一體同觀分):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래에게 육안, 천안, 혜안, 법안, 불안이 있는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무비 스님: 마음의 세계, 마음의 문제에 대해 논해보자.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구절. 주금강이라 불리던 덕산 스님이 노보살을 만나 떡을 두고 시험한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에는 그때 그 노보살 같은 숨은 도인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덕산 스님이 대답 못했다고 우리도 못 하라는 법 없으니 의견을 말해 달라.

각묵 스님: <금강경>에서의 마음은 범어 원전에서 '마음의 흐름'을 말한다. 마음을 흐름으로 보라는 것은 일체 유위법(有爲法)이 모두 찰나와 흐름(상속)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화두 때문에 출가했으나 간화선 공부를 해보니 안되더라. 철저히 교학적으로 마음을 표현한다면 마음은 흘러가 얻을 수 없다. 또, 미래의 마음의 흐름은 오지 않은 것을 말한다.

법인 스님: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應無所住而生其心)'는 뜻은 '생각의 덫에 갇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써라'라고 해석해야 한다.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지만 대부분 '응무소주(應無所住)'에 머물러 '이생기심(而生其心)'에 약하다. 상(相)내지 말라는 말에 갇힌 현실이다. 또,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두고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데 갇혀있는 건 아닌가?

마음은 실체가 아니라 육근(六根) 육경(六境) 육식(六識)이 화합해 만들어낸 연기작용의 결과다. 이것을 '이생기심'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선인도 악인도 연기(緣起)된 것으로 실체가 없다.

#선악 기준 없어

제23 정심행선분(淨心行善分): "진정한 선행(善行)이란 무엇인가?"

무비 스님: 선행이라 생각한 것이 악행이 될 수도 있다.

토론자(비구니): 법석의 논의가 사회봉사활동에 치우치고 있다. 불교가 수승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데모하고 피 흘리는 곳에 스님들이 모두 나가야 하는 것 아니다. 스님이 해야 하는 선행과 재가자의 선행은 다르다.

토론자(우바새 · 의정부): 현대불교신문 구독자다. 현대불교신문을 펼치는 순간, 불교의 신음소리가 넘쳐난다. 한국불교의 스님이 변해야 재가자가 변하고 불교가 변할 수 있다. 스님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불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하니, 옆 사람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무비 스님: 선행을 제대로 못해서 불교가 땅에 떨어졌다. 언론마다 곳곳에서 "불교 이대로 안 된다"라고 하고 있다. 불교가 새로운 각오 다져야할 때다.

#부처의 모습에 치중 말아야

제26 법신비상분(法身非相分): "여래의 신체적 특징과 그것을 떠난 여래란 무엇인가?"

제27 무단무멸분(無斷無滅分): "중도(中道)란 무엇인가?"

무비 스님: 신체적 특징을 떠난 여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절실하다. 절집안에서 상(相)에 집착해서 너무 많은 불상을 조성하고 있다. 또 바위가 이렇게 생겼다 해서 보살상이네 부처상이네 하는 것도 현실이다.

<금강경>에 비춰 보면 한국불교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다. 불교가 망해가는 것은 부처님 말씀인 경전에 기준을 두지 않고 제멋대로 불교 간판을 거는 것이 문제다. 광고비 준다고 불교언론이 신문에 게재해주는 것도 문제다.

천불 만불 등 너무 많은 불상을 조성해 법당을 불상창고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조화롭게 만드는 중도가 필요하다.

제32 관념을 떠난 교화[應化非眞分]

무비 스님: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상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不取於相 如如不動)'는 것은 상을 취하지 않은 행동이 법을 올바로 설하는 자세라는 말이다.

토론자(비구니): 선(禪)에 대해 바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선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강사가 영어문법을 강의한다면, 선사는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분이다. 화두 씨름해봐야 소용없다 하지만 안거마다 수천의 납자들이 화두를 들고 씨름하고 있다. 치열한 자기 구도 없다면 회향할 것도 없다.

복지센터 등은 스님이 아니어도 재가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스님들을 현장으로 끌어낼 것이 아니라 "선방 가서 공부하십시오. 바깥 일은 재가자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올바른 불자라 생각한다. 참선하는 스님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무비 스님: '불교란 무엇인가?' '출가 수행자란 누구인가?' 등 오늘의 한국불교 현주소를 바로 알고, 참된 목소리를 모으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성토하자고 했음에도 말을 아껴 4강이 진행되는 동안 정법불교에 대한 토론이 미진했던 점은 아쉽다.

특별취재팀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신앙·수행 무섭게 하라 오늘은 돌아오지 않는다”

향봉 스님

참불교 참사람에 이르는 길

講論 ①

두 번째 법주로 나선 향봉 스님(익산 사자암)은 8월 16일 열린 법석에서 근래 20여 년 동안의 종교적 체험을 중심으로 법문했다. 스님은 “인간의 감각기관 중 ‘입’ 아닌 것이 없어 구업(口業)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을 바로 알면 경전도 스님도 의지하지 않고 정법을 만난다”고 설했다.

또, 스님은 “20년의 침묵을 깨고 나선 첫 법회가 오늘 이 자리”라며 “그동안 종교적 체험을 했으니 이제 어느 곳이든 찾아가 법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스님의 강론이다.

나이 마흔이 됐을 때, 간절한 생각이 들었다. ‘영혼은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면 영가천도가 될까?’ 등 그런 궁금증이 나를 인도로 가게 했고 그곳에서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 그 순간이 어떠했는지 그것은 드러낼 일도, 가르칠 일도 아니다.

초등학교 5~6학년 때 동진출가해서 학문적인 교양을 쌓지 못했다. 그래서 인도에 갔을 때 참 간절했다. 간절한 만큼 공부 한 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든 화두가 ‘무(無)자’였다. 달력을 보면, 망망대해를 보면 눈물이 나고 한국이 그리웠다.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했다. 우연히 달력을 넘기는데 환하게 불이 켜졌다. 조명이 켜진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이었다. 그 빛은 나를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아름다운 체험 이후로 20년간 말을 하지 않았다.

중국에 가서 내가 아는 불교가 맞는지 공부했다. 부처님 경전을 통해 소승이든 대승이든 내가 본 세계가 정확한지 공부했다. 5년 전 한국에 돌아와 익산 사자암에만 기거했다.

<천수경> 처음에 나오는 것이 구업이다. 신 · 구 · 의(身口意) 삼업 가운데 악구(惡口; 악담), 양설(兩舌; 이간질 시키는 말), 기어(綺語; 꾸미는 말), 망어(妄語; 거짓말) 등 구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많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은 손과 눈만 천 개가 아니다. 귀나 코도 천 개이다. 우리 몸에는 아홉 개의 입이 있다. 코는 냄새 맡는 입이고, 눈은 보는 입이고, 귀는 듣는 입이다. 따라서 정구업(淨口業)의 바른 해석은 몸과 마음을 맑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생각을 내라’고 해석한다. 이것을 “한 생각이 일어났거든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로 바꿔보자. 생로병사는 모두 집착에서 온다.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는 하루에 천만 가지 생각을 한다. 너무 피곤하다.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려고 하기에 문제가 생긴다.

팔만 장경의 핵심은 중도(中道)와 연기법칙이다. 그러나 중도(中道)에 대해 많은 스님들이 헤매고 있다. 경전에서 소나의 거문고 타는 말씀을 인용해 유교의 중용과 같은 의미로 중도를 해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거문고 줄이 팽팽하면 소리가 맑지 않다. 느슨하면 둔탁하다. 좋은 소리를 내려면 줄이 고르게 돼야 한다.

<중용(中庸)>은 인(仁) 의(義) 예(禮) 지(知) 신(信)을 생활의 기본 덕목으로 삼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온당하게, 또는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알맞게 덕과 도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불교의 중도사상(中道思想)은 중용과 근본을 달리한다. 중용이 양변불락(兩邊不落)사상이라면 중도는 양변무애(兩邊無碍)이자 무변중심(無邊中心)사상이다. 불교의 중도에는 좌우가 없고 변두리가 없는 것이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쪽인가? 내가 서 있는 곳부터 해 뜨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한다. 그럼 서쪽은? 내가 서 있는 기준으로부터 해지는 곳이다. 어렵지 않다. 모서리에 앉아도 내가 앉으면 그곳이 중앙이다. 무하마드가 태어난 곳의 명칭이 메카로 바뀌었다. 어느 곳에 서 있어도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며 세상의 주인인 것이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린다. 목탁소리에 의해 운명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다. 참회하면 업장이 녹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제 선사는 불교의 중도를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으로 설명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시작해 ‘즉심시불(卽心是佛) 심외무불(心外無佛)’ 등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가르침과 ‘법등명(法燈明) 자등명(自燈明)’의 최후 유훈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번뇌가 보리요, 중생이 곧 부처’라고 <법화경> 등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스스로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 한다. 나 대신 그것을 해 줄 사람은 없다. 부처는 어렵게 전달하는 것이 진리라고 한 적이 없다. 진리는 내 주변에 널려있다. 진리와 한몸이 될 수 없는 것은 집착의 소유욕을 버리지 못해서다. 부처님이 태어날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셨다. 같은 이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다.

오늘이, 금생이 제일 중요하다. 불교는 오늘의 종교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우울하다거나, 돈 없다고 불평하면 안된다. 살아있다는 자체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가정은 안 살피고 밖에만 잘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맞아야 한다. 내 몸, 내 가족을 서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 때 “네 마음을 게을리 하지 말라. 네 마음의 스승이 최고의 스승이다”라고 말했다. <성경>에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고 써 있다. 하지만 부처님은 “구하지 말라, 구할수록 마음이 어지럽다. 두드리지 말라. 언제나 문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얼마나 홀륭한가?

오늘날 한국불교는 선방에서 정진하는 수좌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하지만 불교는 승려에게 의지할 일도 경전에 의지할 일도 아니다.

예를 들어 커피맛, 김치맛을 언어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 먹고도 설명 못하는 것은 그것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금강경>에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모두 녹아들어있다. 경전에 속아서도 안 되지만 스님에게 의지해서도 안 된다. 내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

12연기는 연기법칙의 큰 틀이다. 부처님은 연기를 순역(順逆)으로 꿰뚫어 깨달음을 얻었고, 나가르주나(용수보살)는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연기를 역순(逆順)으로 풀었다.

성철 스님은 “12연기는 순관이든 역관이든 설명이 안된다. 깨달아야 알지 그 이전까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12연기를 설명할 수 있다. 순서로 배열돼 있지 않고 흐트러져 있어도, 예를 들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섞여도 노래가 완성되는 것처럼 순서로 설명해서도 안 되고, 역으로도 안 된다. 단지 그렇게 나열해 놓은 것 뿐이다.

인과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 육도 윤회는 불교와 관련 없다. 부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부터 윤회설이 있었다. 육도 윤회를 불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교가 ‘내생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 마음이 열렸을 때나 닫혔을 때나 한 개체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뿐이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하나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생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회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깎은 사과를 책상위에 두면 산화작용에 의해 순간순간마다 그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연기의 법칙에서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연기의 원리에서는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한다는 범천(브라흐만)을 인정할 수 없듯, 나를 주재한다는 ‘거짓 나(아트만)’도 인정될 수 없다. 영원불변한 내가 없는데 무엇이 주체가 돼 육도윤회를 한단 말인가? 불교는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겼다 하면서 다른 종교를 나무란다. 하지만 ‘나’를 주재하는 것을 아트만으로 규정하는 우리가 더 웃긴다.

꽃나무가 있다. 그 꽃이 뿌리로부터 땅에서부터 받아 들여서, 눈 귀 코 입이 작동할 때 꽃 향기도 인식할 수 있다. 박수소리, 주먹소리, 보면서 들으면서 분별하며 작동한다. 희노애락, 설렘, 실망의 감정이 올라온다. 살아있는 오늘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 수행은 무섭게 해야 한다. 참으로 간절하게 수행해야 한다. 나는 종교적 체험을 하고난 뒤 20년을 침묵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 20년 동안 어록이나 경전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스님에게 “물속에 담긴 달을 보면 꺼내달라”고 했었다. 그 스님은 내게 말하길, “그 달이 연꽃으로 피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머리굴려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다.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 당당하고 넉넉해진다. 자유로워진다. 내가 본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좋은날이 된다.

(다음은 현각 스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요약.)


향봉 스님.

“살아있는 오늘이 소중” 불교는 오늘의 종교
경전 · 스님에 의존 말고 스스로 마음 열어야

도법 스님: 스님의 해석 가운데 ‘코도 입이다’ ‘눈도 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원래대로 경전을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향봉 스님: 아무리 유명한 학문이라 해도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있어야 학문이 발전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 안 된다. 나는 단지 다양한 해석을 하고자 했을 뿐이다.

재연 스님: 경전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약속이 있지 않은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경전의 의미를 국한하지 말고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더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원래의 것은 꼭 있어야 할 바탕이고 새로운 해석은 그 다음이다.

향봉 스님: <천수경>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僞經)이다. <천수경> 자체도 위경이니 제대로 이해하려면 확대해석도 필요하다.

화엄학림 학인스님 :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이나 아트만 등 향봉 스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불교가 전해져 신도들에게 끼칠 우려도 있다.

향봉 스님: 한국은 교학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것 같다. 동국대 불교대학도 일본 불교학을 연구발표할 뿐이다. 토시 몇 개 고쳐 그대로 교재로 삼고 있다. 한국 불교학자들은 수직으로 학문을 파고 들지 않는다. ‘정구업진언’에 대한 내 해석은 억지가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런 차원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독교 이단 해석이 아닌데도 도법, 실상사 주지스님, 화엄학림 스님 모두 전혀 맞지 않다고 말한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천수경> 문제는 넘어가자.

특별취재팀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힘든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차량구입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가격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요, 어머니는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선지식의 탈 쓴 가짜 판쳐… 의식개혁 절실한 때

향봉 스님

참불교 참사람에 이르는 길

講論 ②



향봉 스님의 수행 체험이 담긴 강의를 경청하는 사부대중.

해제비 · 생일잔치 등 문제… 바른 '공양운동' 필요
제도 없는 문제제기는 관념론, 제도 먼저 바꿔야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바탕으로 흡입력 있는 법문을 펼쳤던 향봉 스님은 8월 17일 두 번째 법석에서 "방장의 법어를 대필하거나 과도한 해제비를 주는 등 선지식이 없고, 배출될 수도 없는 풍토가 한국불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종의 종합수도 도량인 총림사찰에는 버젓이 폐쇄적인 형태가 실존한다. 해인사 출신이 아니면 해인사 주지가 될 수 없다. 강원장, 선원장, 율원장도 될 수 없다. 어느 한 곳이라 할 것 없이 통도사, 송광사, 수덕사 등 총림사찰 다섯 곳 모두가 부끄러운 전통의 못된 병을 앓고 있다.

총림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사찰의 어른인 방장 선출방식에 있어서도 그 사찰 문중이 아니면 모시기는 커녕 후보명단에도 끼지 못한다. 제발 마음을 열어라. 한국불교가 변화해야 하고 고쳐야할 부분이다.

결제 · 해제 때마다 발표되는 총림 법어를 보자. 교계 신문들에 실리는 방장스님 법어를 보면 아직 내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느낀다. 온통 짜집기 투성이다. 한 쪽에는 호랑이가 나오다가 다른 쪽에는 쥐 그림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법어의 흐름이나 법어를 통해 일러주고 싶은 메시지가 활자 속에서 이미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방장 법어가 왜 저런지 물어봤다. 놀라운 대답을 들었다. "방장스님이 쓴 것이 아니라 시자스님이 썼다"는 것이다. 구술을 하고 받아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써라"하니 "알겠다"라는 것이 문제다.

법문도 마찬가지다. 교계 언론에서 산중의 어른이라는 분들이 짜깁기식 '법문 아닌 법문'을 늘어놓는 것을 보면 애잔함이 느껴진다. 세상에 가짜가 넘치니 실력 없는 선지식, 선지식 아닌 가짜들이 불교를 흔든다.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선원 대부분이 짜여진 정진 시간표에 의해 죽비소리로 앉고 서기를 반복한다. 한국의 선원은 좌선의 뿌리가 너무 깊게 박혀 있다. 앉아있는 선원에서 움직이는 선원으로 전환해가야 한다. 새로운 시도와 출발이 있어야 한다.

한국불교에서 간화선은 불가침의 성역에 가깝다. 그러나 <육조단경>의 본문에 '화두'나 '공안'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땅에 구산선문을 열었던 시절에도 화두정진의 중요성을 제창한 조사는 없었다. 간화선의 화두정진에는 허물이 있을 수 없지만, 정진수행의 방법에는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많다.

육조혜능 선사는 좌선에만 집착함을 경계해 다음과 같은 게송까지 남기지 않았나? "살아서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 못하네. 송장이나 다를 바 없는 뼈덩이에서 어찌하여 깨달음을 얻으려 하랴."

안거 해제비도 문제다. 해제비는 선원에서 한 철을 지내고 나면, 소속 사찰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최근 충청도 어느 사찰에서 해제비를 750만원 줬다. 자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선수행 했는데 그 돈을 준 것이다. 90일 안거에 1인당 750만원을 줬다면 하루 임금으로는 7만원 이상이 된다. 그 돈이 누구 돈인가?

더 큰 문제는 해마다 기록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다. 적은 사찰도 물론 있다. 대중공양도 비구니스님 사찰에는 별로 없다. 비구니스님 도량 가운데 해제비를 많이 지급하는 절은 50만원, 보통 20~30만원 수준이다.

선지식이라 일컫는 해인사 성철 스님이 입적하고, 스님을 능가하는 제자가 배출됐는가? 그 반의 반이라도 도인이 출현했는가?

'닭이 천 마리면 봉(鳳)이 한 마리'라는데 왜 한국불교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가?

전국 100여 선원에서 2500여 명이 수행하는데 도인이 안 나온다. 1년, 2년, 10년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사미에서 비구 된 지 7~8년이 되면 타성이 생긴다. "몸과 마음을 던져서 부처님 말씀과 하나를 이뤄야겠다" "나는 왜 돈, 여자, 명예를 보면 흔들리는가" "나를 바로 잡기 위해 주력, 참선, 사경, 간경을 해야겠다" 하는 등 고뇌하는 모습이 없다.

그러다보니 선원에서 선문답의 법거량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왜 한국 선불교의 아름다운 전통인 선문답과 법거량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스님이 1만 명,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불교 발전을 좌우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저명인사들을 보자, 가톨릭 신자가 많다.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다.

49재는 죽은 영가가 부처님 위신력을 통해 업장소멸해 왕생극락하기를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스님이 죽으면 제자들이 49재를 지낸다.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조촐하게 지낼 수는 있다. 요즘 스님의 49재는 인연 있는 사찰, 스님들이 번갈아 7개 사찰에서 옮겨 다니며 지내고 있다.

생일문화도 그렇다. 출가자라는 사람들이 해마다 생일을 기억하고, 재가자들도 생략하는 환갑을 챙기기도 한다. 신도들은 주지스님 생일을 기억해 잔칫상을 차려준다. 특히 칠순, 팔순된 분들이라면 최소한 몇 십 년 수행해 온 분들 아닌가? 승가가 세속화되는 모습은 바꿔나가야 한다.

(다음은 현각 스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요약.)

토론자(우바이): 향봉 스님이 이번 법석에서 불교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알려줘,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았다. 불교계의 폐단에 대한 적나라한 진단이 문제제기 수준으로 머문다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은 뻔하다. 뜻을 같이하는 사부대중이 모여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잘못하면 향봉 스님 혼자만의 '원맨쇼'가 될 수 있다.

향봉 스님: 문제제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안다. 외침으로 끝내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야단법석을 펼쳤다. 재가자, 수행자 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하나하나 달라져야 한다.

토론자(우바새): 야단법석에 모인 스님들이 원하는 것은 바른 수행과 재가자의 적극적인 포교 참여 등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절 살림을 재가자들이 맡으면 어떤가? 스님은 법문과 수행에 전념하고 재가자들은 절 살림 살다가 모자라면 보태고, 남으면 사회에 회향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한국불교는 지나치게 스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법인 스님: 실상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실상사는 종무실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주스님도 없고 불전함도 종무실 직원들이 관리한다. 스님들은 수행지도에만 전념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봉은사 등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선원 해제비 문제가 나왔다. 이 문제를 선원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한국불교의 대량생산과 소비, 업적주의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의식전환을 강조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의식도 정착된다.

신도가 수행자에게 '밥'을 준다면, 수행자는 신도에게 '법'을 준다. 정법불교를 않는 수행자에게 재가자는 두 가지 권리를 갖는다. 법문을 듣지 않을 권리와 공양을 올리지 않을 권리. 정법과 비법을 구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 수행은 하고 있는가, 무속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대중을 현혹하고 있지 않는가 등. 신도들의 바른 공양운동을 제안한다.

토론자(우바이): 다수의 문제가 스님들 노후보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토론자(우바이): 한국불교를 보살들이 망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스님들 중에는 선방 들어가면서 어디 선방 간다며 대중공양을 당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 만행 나와서 오갈 데 없는 스님을 만나면 슬프다. 불편해도 스님은 꼭 절에서 주무셨으면 좋겠다. 토굴 등에 집착하는 모습도 안타깝다.

도법 스님: 한국불교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짚어졌다. 오늘처럼 적나라했던 경우는 없었다. 그동안 스님들로부터 "집안의 추한 꼬라지를 스님끼리 소문나지 않게 고치면 되지 왜 동네방네에 들추느냐"는 지적도 숱하게 들어왔다. 우리끼리 잘 해보자 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안에서 치열한 자기비판을 통한 자기혁신이 이뤄진다면 바깥사람들도 뭐라 하지 않는다. 불교계 폐단이 밝혀져 신도가 떨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곰팡이는 덮어두면 계속 확대재생산된다. 없애려면 드러내서 바람을 쐬고 햇빛을 쏘이는 것 뿐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야단법석을 지속적으로 연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를 환하게 이끌어 갈 것을 확신한다.

이민우 거사: 해제철 임에도 선원에서 올곧게 정진 중인 많은 수좌스님들이 있다. 잘못 생각하면 스님들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될까 우려된다. 올곧게 수행하는 스님들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처럼 우리의 인생좌표이다. 재가자로서 스님들이 모두 다같이 매도되기 보다는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봉 스님: 언로가 막히면 그 집단은 썩는다. 불교계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남대문 시장, 길거리에서 떠든 것이 아니다. 삼복더위에 야단법석을 찾은 참가자들이 무료로 오지도 않았다. 자기 시간, 비용 내서 참가한 사람들이다. 머리를 깎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다. 사부대중이 모인 자리면 머리를 맞대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의식개혁을 일으켜야 한다.

특별취재팀



유무·시비 따지기 전 모든 알음알이 화두로 바꿔야

講論 ①

혜국 스님

간화선 제일주의라는 지적에 대해

세 번째 법주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선원장, 전국선원수좌회 대표)은 8월 17일 '간화선 제일주의에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는 주제의 법문을 했다.

스님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수행풍토에 대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간화선을 부정하는 이는 부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설법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 가장 큰 일을 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 것이다.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한다. 연기가 무엇인가?

돌부터 출가, 환갑 진갑 할 것 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혜국'이지, 내 고정된 실체는 없다. 흔히 연기법을 설명하면서 '이것'과 '저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것' '저것'이 아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을 비롯해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 등에서 설한 법문을 두고 절벽과 같은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적이 있다.

처음 선방을 찾아 전강 스님에게 '판치생모(板齒生毛)' 화두를 받았다. 전강 스님이 '판치생모'를 의심하라는데 무엇을 의심해야 할지 몰랐다. 당시 나는 깨달음이 따로 있다



는 아트만 사상에 젖어있었던 것 같다.

도저히 알 수 없었을 때 경봉 스님 회상을 찾게 됐다. 경봉 스님은 "어찌해서 '판떼기 이빨'에 털난 것을 화두로 하는가?"라며 "판떼기가 아니라 '앞이빨'에 털난 거다"라고 했다. 전강 스님은 분명 "판떼기에 털이 났다" 했는데, 경봉 스님은 다른 말을 하길래 혼란스러웠다. 한자로 '판치생모'를 써서 명동 화교학교를 찾아가 물었다. 판치생모가 앞이빨에 털 난 것인지, 판데기 이빨에 털난 것인지를.

어떤 노인에게 앞니가 판떼기 같다 해서 '판치'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송곳니는 개이빨처럼 생겨 결치, 어금니는 식치, 앞니는 판떼기처럼 생겨서 판치, 전강 스님이 틀렸다고 생각해 전강 스님을 찾아갔다. 그런 내게 전강 스님은 "저 때려 죽일 놈"이라고 호통을 쳤다. 판떼기든, 앞이빨이든 말뿐으로, 아무 관계 없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아무래도 화두는 안 되겠다' 싶어 주력(呪力)을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철 스님이 "선방에서 주력하는 놈도 중이냐"며 크게 나무랐다.

그때 정리된 것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극미생으로 나아가 한 생각 이전의 자리. 이것과 저것을 포함한 중도가 '화두'라는 것이다.

화두에 대해 이론적으로 믿음은 가지만, 생각만 될 뿐 따라갈 수 없었다. 한 생각 일어나는 이전 자리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무척 애를 썼는데, 결국 참선하던 중 화두는 깨달아야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화두 자체는 앞뒤 전후좌우를 모르는, 사방이 모두 몰랐을 때라는 것을 알았다. "오직 모를 뿐"이 됐을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답한 상태에서 조사스님들의 활구(活句)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숨통이 트이는 길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간화선이 대혜 스님(1089~1163)에 이르러 새로 생겨난 수행법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간혹 있다. 대혜 스님 대에 와서 간화선이 정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면은 부처님 가르침인 '모든 유정과 무정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一切有情無情 皆有佛性)'에서 시작해 달마 대사에서 육조 혜능에 이르는 조사선, 간화선에 이르기까지 일맥상통한다.

앞선 법석에서 한국불교의 수행풍토에 대한 지적이 오갔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스님들이 강원에서 처음 배우는 <치문>의 첫구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으로 가득 차 생각의 세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나온다. 내 몸안에 생각이 가득 찼을 때 생각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무념(無念)·무상(無常)·무심(無心)이든 한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만이 "아차 내가 착각했구나"하고 알 수 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꿈인지 알 수 없다.

간화선사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한국불교는 존재할 수 없었다. 숱한 법난과 종단분규 속에서 선맥을 지켜온 것은 종단이 아닌 간화선사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었다. 나는 간화선이 목숨을 바칠 만큼 좋다. 이만큼 지탱해온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최근 선방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



혜국 스님.

"화두는 옛날 · 지금이 따로 없고 모양도 없는 것"

백장청규 정신 되살려 간화선 수행가풍 지키길…

내 생각이 업이지 내 생각을 벗어난 것은 없다. 수좌들에게 수행하는데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물으면 잠과 망상이라고 한다. 내 밖에 망상이 있다면 싸울 만 하다. 다만 안에 망상이 있다면 싸울수록 망상이 치성할 것이다. 싸움을 포기해보라.

내 생각 이전자리를 깨달은 분(부처님)이 보여준 소식이 '삼처전심'이다. 2000여 년 넘도록 명안 대종사들이 이어준 가르침을 안 믿는다면 불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무엇을 믿겠다는 것인가?

향봉 스님은 "내가 있는 자리가 중도(中道)"라고 했다. '나'가 있는 자리도 없어진다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나'는 본래 없는 것, '확연무상'이다. 대혜 스님 대에 간화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간화선을 대혜 스님 대에 와서 정형화시켰지만 부처님의 삼처전심은 무엇을 보여준 것인가? 화두다. 말이라고 하는 상(相)이 생기기 이전을 보여준 것, 생각이전을 그냥 보여준 것이다. 옛날 '화두'로는 수행이 안 된다는 지적은 잘못이다. 옛날 화두, 지금 화두가 어디 있는가? 화두는 모양이 없는 세계가 아닌가?

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에는 "지도무난 유혐간택 단막증애 통연명백"하다고 했다. 조주 스님을 비롯한 후대의 선지식들은 <신심명>에서 5칙(則)의 공안을 들어보였다. 언어 표현방식이 다를 뿐 말과 생각이 끊긴 도리를 이미 3조 승찬 대사 당시에도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4조 도신 대사의 안심법문을 지나 5조 홍인 대사에 이르러서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세계를 구체적인 선문답 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선사들은 표현 방법만 달랐지 3조스님 때도, 그 후도 화두는 일상이었다.

5조 홍인 대사가 "내게 한 물건이 있다"고 한 것과 '이뭣꼬' 화두가 무엇이 다른가? 부처님 불법과 조사선과 간화선은 조금도 다를 것 없다. 다만, 간화선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면 아집이다.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의 법맥>에서 "원오가 대혜에게 수시한 임제 정종기의 한 구절 등을 교가(敎家)에서 주석 붙이듯 알음알이 따라 해석하면 가소로울 뿐만 아니라 본분종사들이 금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옹 스님이 하루는 내게 물었다. "혜국 수좌, 조주 스님이 있던 관음원을 찾은 학자들이 잣나무는 없고 측백나무라고 했다네. 자네는 어찌 생각하나?" "스님, 저는 그냥 잣나무라 할랍니다."

측백나무와 잣나무는 모두 인간이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하다. 깨달음의 세계는 보는 눈이 남아있는한 결코 볼 수 없는 세계다.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를 바로 보여주는 말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도리가 보배로 있다는 것은 조계선맥의 큰 자랑거리다.

화두에게 '나'를 전부 바쳐봤는가? 화두가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내 모습인 것은 제법무아의 '나'를 말한다. 하지만 나와 내 영혼,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큰 병통이다. 이것은 이 방의 허공과 저 땅의 허공이 다르다는 생각과 같다. 벽만 허물면 이 허공 저 허공이 하나가 된다. 이 허공이 없어진 것도, 저 허공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

참선 수행자가 가장 실수하는 것은 유무(有無)와 시비(是非)를 따지는 것이다. '나'가 있기에 유와 무가 있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아집의 벽이 있을 때의 이야기다. 나의 모든 알음알이를 화두로 바꿔나갈 때 비로소 '나'는 없어지게 된다.

뜨거운 눈물 쏟는 수좌가 적다. 수행풍토에 대해 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화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선방의 문제이지, 간화선의 문제가 아니다.

선방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다. 선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 훤히 안다. 이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할 것인가. 선방에서 치열하게 수행하는 900여 수좌까지도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문제는 선방에까지 침투한 개인주의다. 선방까지 개인주의에 빠진 이유는 서구문명이 원인이다.

6세 때 서당을 다녔다. 훈장의 권위는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될 만큼 절대적이었다. 요즘 대학생들은 교수를 스승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젊은이들이 출가해서 선방을 찾는다. 선지식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스님들을 공경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노스님을 잔소리꾼으로 보다 보니 탁마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른 공경을 않는 것은 선방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다.

해제비도 꼭 고쳐져야 할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게 잘못 전해지고 있다. 몇몇 절의 해제비가 수백 만원을 넘는 것은 문제지만 한 달에 15만원 해제비를 받는 절도 많다. 간화선 자체가 아닌 현금에 의해 일어나는 수행풍토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경책을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한국불교 역사에서 인재불사는 등한시돼 왔다. 선방에서도 인재불사를 고민해 교육원과 함께 <간화선>을 발간하고 3년째 <선원청규>를 편찬 중으로, 완성단계에 있다.

백장청규 정신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다. 조계종이 종헌종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 백장청규가 생활화되기 어려웠던 점은 사실이다. 청규 정신이 되살아나 어른스님들이 어렵게 지키고 가꿔온 간화선 수행 가풍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

특별취재팀

■ 제품 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 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10%DC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삶과 수행 하나될 때 '확철대오'… 진정성이 중요

혜국 스님

간화선 제일주의라는 지적에 대해

講論 ②

혜국 스님의 진솔한 수행담은 법문에 이은 토론에서도 계속됐다. 스님은 참선 수행을 묻는 질문 등에 하나하나 성의 있는 답변으로 대중을 감동시켰다.

이 자리에서는 고액의 해제비 등 갖은 병폐로 도마 위에 오른 선방이, 그래도 한국불교의 미래이며, 그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는 희망도 강조했다.

특히 혜국 스님은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단이 나서지 않으면 선원수좌회라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전 스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요약.)

도법 스님: 혜국 스님이 하신 말씀이 선방의 수좌들에게도 일상적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혜국 스님의 "간화선이 제일 중요하다, 전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간화선 외의 것을 배제하고 경시하는 것은 문제 삼고 싶다. 간화선을 통해 깨달은 것과 다른 방법으로 깨달은 것이 같을 수는 없지만 다를 수도 없다. 깨달음을 향한 과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성전 스님: 선방에 있는 스님들도 간화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하다.

혜국 스님: 봉사가 눈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생각으로 깨달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차이는 참 중요하다.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깨달아야 한다.

성전 스님: 간화선 말고 다른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인가?

혜국 스님: 그렇다. '나무 아미타불' 염불도 화두가 돼서 간화선을 해야 한다.

진오 스님: 한국 불교의 문제는 무엇인가? 종단행정의 무능력과 후진 양성, 신도 교육의 부실이 문제다. 이는 선방스님들의 책임이 아니다. 불교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한 책임이다.

불교는 스님에게 거는 기대가 많다. 특히 선방스님들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스님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손길도 요구한다. 선방에서 '선(禪)'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혜국 스님: 나 자신부터 하심이 쉽지 않다. 경전에서 '지(地)·수(水)·화(火)·풍(風)'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또, 아버지의 정자 2억 마리 중 하나가 난자와 만나고, 어머니가 물을 마시면 그것으로 내 몸의 수분을 채우고, 어머니가 숨을 들이 마시면 나의 들숨날숨이 생긴다. 그렇게 보면 태양이 나를 비추고 있고, 물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 곧 우주 만물이 나를 지탱하고 있다.

언젠가 마티즈 자동차를 타고 하야트 호텔에 갔었다. 그런데 차를 못 세우게 하더라. 그 날 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떠 있었고 바람도 불며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해와 바람은) 차별이 없었는데 (기분이) 참 그랬다.

우리도 자신한테 도움될 것 같은 사람 아니면 말도 잘 안 걸지 않나? 상(相)을 보는 것이다. 내 안에서 일어난 내 문제라는 것을 못보기 때문이다. 내게 젖어진 습이 그런 것이다.

간화선은 삶과 수행을 하나로 본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단절으로 드러나고 있다.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로 서면 하심은 저절로 된다.

정안 스님: 많은 스님들이 큰 부담을 안고 안거에 들어가 하루 15시간씩 치열하게 정진한다. 그런데 사회봉사활동까지 하라는 의견이 나오니 참 부담스럽다.

큰스님(혜국 스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제자들이 대신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토론 사회를 맡은 성전 스님.


세 번째 법주 혜국 스님 법석에서 대중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다.

깨달음의 길 여러 가지… 염불도 화두 돼야
세계관 · 인생관 바로 서면 하심은 저절로

혜국 스님: 간화선을 하다하다 안되던 때가 있었다. 성철 스님에게 그렇게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갔다. 생각 끊어진 자리에서 화두가 있다는 말에 믿음이 안갔다, 그래서 성철 스님에게 "저는 법화사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법화경>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성철 스님은 "부엉이도 깜깜할수록 잘 보는데, 네가 안 보인다고 하다니 그것은 너의 습"이라고 말하며, "하루 5000배 씩 하라"고 했다.

성철 스님 말씀대로 절을 했다. 7만배 8만배 쯤하니 절하는 나를 잊은 적이 있었다. 내가 내 부처에 절하게 될 때 절하는 사람을 잊을 수 있다. 20만배 하고 태백산에 갔다. 가서 2년 7개월 동안 장좌불와 했다. 장좌불와를 하는 동안 배 고프면 음식생각, 예전 도반들 생각에 선은 제대로 못했다. 안됐다. 했다고 하면 중생을 속이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졸린 게 가장 큰 마장이었다. "성철 스님이 10년간 장좌불와 할 때 졸았을까 안 졸았을까" 이런 망상만 가득했다. 궁금증을 참다못해 성철 스님을 찾아 물었다.

성철 스님은 "내가 목석이냐, 안졸았게." 그 말만 듣고 "아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잠을 이겨내려고 밧줄을 목에 묶었다. 졸다가 밧줄에 쓸린 목이 너무 아파서 수행이 더 안됐다.

산에서 생식하다 독풀을 먹었다. 그대로 엎어져 죽었었다. 내 영혼이 나와서 어머니를 찾아갔다. 하지만 나는 영혼이 없다고 믿는다. (영혼이) 있다고 하면 있는데 빠지고, 없다고 하면 없는데 빠진다.

"어머니 저 왔어요" 했는데 어머니가 듣지를 못했다. 그 순간 누가 나와 닮은 사람(시신)을 끌고 가는 것이 보였다. 따라가서 "누군데 나하고 이렇게 닮았나"하는 순간 다시 몸으로 되돌아갔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다시 발심을 했다.

유서를 쓰고 절벽 끝 바위에 올랐다. 물그릇을 머리에 얹고 또 다시 졸면 죽겠다는 각오였다, 머리에 물그릇을 놓았을 때가 해가 질 무렵이었다. 다시 시간을 확인하려고 눈을 뜨니 해가 동쪽에서 떴을 때였다.

'일체개유불성(一切皆有佛性)'은 정말 맞다. 다만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될 때 확철대오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원효 대사가 다녀감은 대단한 일이다. 1초 사이도 극과 극이다.

간화선 교육에 대해 말하면,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설은 것은 익게 하라"는 말이 있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수좌스님들도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데 농사를 지어도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나는 그 진정성 담긴 행에 자신이 없다. 내가 수좌승들에게 그런 수행을 시키고자 하지만 잘 안 된다. (구참인) 내가 지도다운 지도를 못하고 있다. 죄송하다.

토론자(비구니): 선방에 있다. 안거가 끝난 뒤 1주일 정도 사회봉사를 할 방법을 실천한다면 한국불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자기점검도 되지 않을까 한다.

혜국 스님: 선방을 잘 지키기는 것도 중요하다. 봉사는 많은 스님들이 하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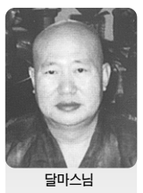
도법 스님: 선방은 선방으로 있어야하고 수좌는 수좌답게 존재해야 한다. 어떤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는 것이다.

문경 봉암사를 보면 크고, 화려하다. 산문을 닫고 수행하는 한국 제일의 선원이다. 청정하고 좋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여기가 진정 선원인가? 또 이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천적 삶이 수행인가? 이점에 대해 봉암사 대중들이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비워내고 비워내야 할 봉암사가 요즘은 물질로 풍요로워지고 있다. 반면 마을주민들의 궁핍은 더 해간다. 이것이 선원의 모습, 선원도량, 바람직한 수좌의 모습인가? 수좌가 수좌다워질 때 간화선이 살아날 수 있다.

특별취재팀

사주.퇴마.빙의.작명(신생아 이름)
수강생 모집


달마스님
KBS. MBC 방송출연

◆사주풀이 구궁팔괘법 ◆심령을 통하는 기도
◆하루일진 래정법 ◆육혼법
◆제갈공명 천비술서 ◆귀신뽑은 신통술

전생요법 모습의 접괘로 왜 왔는지, 무슨 조상 귀신이 붙었는지 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술

※ 스님들도 꼭 알아야 인기가 있고 신도가 많다
■ 모집인원 : 10명
■ 교육비용 : 100만원

❖부부인연 원진살 살풀이법 ❖신년운세, 직장취직운
❖조상원귀법 영가천도 ❖귀문관살 푸는 법
❖병을 일으키는 악령귀신 푸는 법 ❖백호대살 부는 법
❖육효점, 육임점, 하루일진 래정법

작명(신생아 이름) 음양오행 이름을 지어주면
만사형통, 건강, 재물, 학업성취

경기 성남시 성남동 2318번지 공설운동장 후문 입구(주차장은 공설운동장)
묘음정사 (달마 스님)
031)755-3775. 011-857-3775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것 왜 믿지 않는가?

도법 스님

講論 ①

본래 부처와 팔정도

지리산 야단법석의 마지막 법주 도법 스님(움직이는선원 열중)은 주제법문 '본래 부처와 팔정도'를 통해 수행과 삶, 선교의 합일, 수행과 현실참여의 조화 등을 강조했다.

오늘의 한국불교는 비연기적 사고인 실체론적 불교관과 비중도적 실천론인 이분법적 수행론에 빠져 매우 혼란스럽다. 초기 · 대승불교와 교학 · 참선불교 등으로 구분하는 비연기적 사고가 만연해있다. 이렇듯 서로를 분리시켜 선후 · 경중 · 우열을 따지는 왜곡된 불교관으로 인해 참불교, 정법 불교가 무엇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행자들도 비중도적인 양극단의 수행론(이론과 실천, 수행과 일상의 삶, 수행과 깨달음, 자리행과 이타행, 개인 수행과 현실 참여 등 이분법적 분별)에 회의와 갈등을 지닌 채 방황하고 있다.

이분법적인 양극단의 분별을 연기 중도적으로 통일시키고자 본래 부처와 팔정도론을 말하려 한다.

무심선(無心禪)을 펼쳤던 백운 선사는 <직지심체요절>에서 "특별히 불법을 따로 배울 것 없다. 다만 스스로 무심하게 살아가라(莫學佛法 但自無心去)"고 했다.

무심은 진리에 일치하는 마음 씀씀이와 삶을 뜻한다. 즉 '활동하는 것도 참선이요, 앉아있는 것도 참선이다' '눈 뜨고 감는 것 그대로 문수의 눈이요, 발 들고 내려놓는 것 그대로 보현의 행이다' 등으로 표현되듯이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선불교와 교학불교, 수행과 일상의 삶, 자리행과 이타행, 자기 수행과 현실참여가 분리되지 않고 연기 중도적으로 통일되는 활발발한 불교적 삶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부처님 가섭 아난 원효 진묵 등은 불교사의 대표적인 무심도인들이다. 그 분들이 목석처럼 살아갔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끊임없이 진리에 일치하는 대비원력의 정신으로 역동적인 사고와 실천, 만남과 대화, 배움과 가르침의 삶을 통일적으로 원융시키며 활발하게 살았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무심'의 참 뜻을 왜곡시켜 내면적이고 은둔적이거나 사고의 정지 또는 정적인 상태라고 알고 있다. 수행과 삶이 이원화되는 내면적이고 은둔적이며 소극적이고 정적인 삶이 마치 불교의 참모습인 것처럼 여기는 무지와 오류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일차적으로 무심, 깨달음, 수행 등 우리가 사용하는 불교 개념들이 중생과 언어의 속성을 헤아리지 못한 까닭이다. 중생과 언어가 가진 한계, 문제를 잘 모르고 그 속성대로 다루고 있다.

'하느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개신교인들은 좋아하지만, 불교인들은 싫어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하고 좋아하는 개념이냐 아니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 말에 놀아나고, 말에 속고, 말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과 말과 지식이 쌓이고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혼란스럽게 된다. 언어를 중도적으로 다루지 않고 극단, 즉 관념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본래 부처'라는 말을 중도적으로 생각해 보자. 불광사를 창건한 광덕 스님은 언제나 '구원성불(久遠成佛)', 즉 본래부처론을 가르쳤다. 스님은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했다. 지금 여기에서 본래 부처의 광명이 빛나고 있다. 지금 여기 현존하는 자신 밖에 그 어디에도 따로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자신을 떠나 특별하게 따로 있지도 않는 부처를 찾느라 헛고생하지 말고 지금 당장 본래 부처로 살아라. 본래 부처의 삶이 어떤 것인가? 바로 동체대비행인 보현행원의 삶이요 대무심행의 삶"이라고 말했다.

광덕 스님이 법회할 때, 신도들에게 "본래 부처라는 가르침을 들었는가?"라고 물으면 다들 "들었다"고 답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고 있는가?" 하고 물으면 대답이 없었다.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본래 부처론이 불조의 핵심적인 가르침인데 왜 안 받아들여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분리시키고 고정시키는 언어의 속성이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일단 언어로 표현되면 그 자체는 관념화된다. 실상은 분리되지 않았는데 분리된 것으로, 고정되지 않았는데 고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관념화된 언어를 중도, 즉 구체적 실상에 직결시켜 다루지 않고 극단, 즉 실상과 분리시켜 관념적으로 다루면 본질이 왜곡되고 나아가 혼란스럽게 된다. 불교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하나는 언어와 모양을 쫓는 중생의 속성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부처는 아주 특별히 거룩하고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말과 모양에 속고 지배받고 있다. 마음 · 부처 · 중생이 본래 차별이 없다는 '본래 부처'의 실상과는 관계없이 전도몽상, 즉 부처는 특별하고 거룩하고 신비한 존재라는 사고, 즉 자기 선입견 또는 관념대로 생각하고 믿는다.

"부처는 아주 특별한 존재, 신비한 존재, 거룩한 존재인데, 업장 덩어리인 내가 감히 부처라니, 말도 안 돼!" "맨날 미워하고 욕심 부리는 하찮은 존재인 내가 어떻게 거룩한 부처일 수 있단 말인가"하며 전도, 즉 비중도적 사고로 스스로를 비하한다.

부처는 특별한 존재, 거룩한 존재, 신비한 존재라고 하는 사고, 즉 자신의 관념에 지배받고 있는 것이다. 굳이 불교 언어를 사용한다면 전도몽상의 불교를 하고 있는 셈이다.


도법 스님

수행 · 현실 참여, 연기 중도적 통일 이뤄야 불교적 삶
이원론적 수행론 정리해야 한국불교 문제 해결돼

문제가 되고 있는 중생들의 관념들, 즉 허망한 분별망상을 타파하기 위해 옛 선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착각하지 마. 부처? 부처가 별것 아니야. 부처도 눈이 두 개야. 너희들도 눈이 두 개잖아. 너희들과 아무 것도 다를 것이 없어"라며 중도의 길을 제시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잘 보여준 경우가 바로 <금강경>에서 부처를 "여어자(如語者), 실어자(實語者), 불이어자(不異語者), 불광어자(不誑語者)"라고 한 것이다.

깨달음과 수행에 대해 지나치게 신비한 의미를 부여해 그 본뜻이 왜곡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불교에 일반화된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사고 경향을 정리해보면 수행과 일상의 삶, 수행과 깨달음, 깨달음과 현실의 삶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돼 있다.

이것이 불교계 문제의 원인이다. 문제의 원인이 된 비연기중도, 즉 삶을 갈등과 분열의 함정으로 빠지게 만드는 이원론적인 수행론을 해결해야 한국불교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원론적인 수행론을 극복하고 통일된 수행론을 확립해야 한다.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본래부처론'이다. 본래부처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바로 국가, 종교, 이념, 선악시비, 이해득실을 넘어서는 평등의 길, 즉 대무심, 대자비, 대자유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더 소유하고(所有心) 더 추구하고(所求心) 더 얻고(所得心) 더 빨리 이루려고 하는 마음(速效心)의 병 등 간화십종병(看話十種病)도 본래부처론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하다.

3조 승찬 선사는 <신심명>에서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것이 없다. 오직 분리시켜 차별하는 마음씀을 꺼려한다. 다만, 분리시켜 미워하거나 애착하지 말라. 그러면 확 트인 하늘처럼 명명백백하다(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라고 말했다.

이것이 부처님이 뜻하신 중도 정신을 잘 계승한 대승불교의 특징이고 탁월성이다.

존재의 실상을 논리적으로 개념화한 것이 연기법이라면, 실천적으로 개념화한 것이 중도이다. 중도의 내용은 팔정도(정견 · 정사유 · 정어 · 정업 · 정명 · 정정진 · 정념 · 정정)다.

한국불교인들은 중도 또는 팔정도의 중요함을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개념과 실상이 일치되도록 제대로 천착하지 않는다. 중도, 정도라는 개념을 중도적으로 실상에 직결시키지 않고 생각과 말만으로 극단의 사고로 다루고 있다.

팔정도(八正道)에서의 '바름(正)'이란 보편적 진리인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존재의 실상, 생명의 실상, 유아독존, 비로자나불, 본래면목, 본래 부처 정신에 근거하여 제시한 수행론인 사성제를 사실대로 알아보고(如實知見) 사실대로 실천함(如實知見行)을 뜻한다. 즉 중도적 실천이다.

무상 · 무아인 존재의 실상을 있는 사실대로 보는 것이 정견(正見)이며, 부처의 견해다. 이것이 정법불교다. 실상은 분리 · 독립되지 않았는데 분리 · 독립되었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고정 · 불변하지 않은데 고정 · 불변하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삿된 견해이고 중생의 견해이며 삿된 불교다.

수행은 익숙한 중생의 삶을 생소하게 하고, 생소한 본래 부처의 삶을 생활화 · 체질화해서 익숙하게 하는 것이다. '본래 부처'의 삶인 팔정도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수련해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다. 충분하게 익숙해지면, 얼음이 저절로 녹아 흐르듯이, 흙기와가 저절로 해체되듯이 무명 업식도 저절로 녹아나고 해체된다. 이런 상태를 일러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 됐다고 한다. 그 밖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다.

수행을 해도 불안한 것은 왜일까? 수행과 삶 등이 분리되면 온전한 삶이 되지 않아 수행한 만큼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다. 개인 수행과 현실 참여가 하나인 까닭도 여기 있다. 이분법적 구분들이 하나 되지 않고 분리되는 한, 아무리 불교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또 다른 전도몽상에 불과하다.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태도를 버리고 늘상 이론과 실천이 함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이론이 없이 길을 가는 것은 길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길을 가는 격이 되고, 이론만 있고 실천이 없는 것은 길을 알지만 길을 가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같다.

특별취재팀





곪은 자리 드러낸 야단법석, 한국불교 희망 보인다

講論 ②

도법 스님

본래부처와 팔정도


실상사 작은학교 법당 밖에서 도법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사부대중.

일회성 성토로 끝나지 말고 방방곡곡서 이어지길…
일상으로 돌아가서 진짜 보살, 진짜 부처가 되자

지리산 야단법석 마지막 날인 8월 18일, 네 번째 법주 도법 스님의 법석에서는 야단법석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나눔의 시간'이 진행됐다.

향봉 스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모습에 감사드린다. 이런 야단법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내용과 색깔이 다르더라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종교적 체험 이후 20여 년을 보낸 후 도법 스님을 만나 "나 깨쳤다, 나를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도법 스님에게 선방 수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권유를 받아 법석에 참여하게 됐다. 어록, 경전을 물어봐도 좋다. 어느 것이든 좋다.

앞으로 남은 20년 동안 참으로 어디서든지 토론하겠다. 회향심으로 살아가겠다.

도법 스님: 내 소감은 법석 시간에 말한 것들이 소감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부처님을 모시고 화엄법회를 했다 하더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이 자리는 여기 모인 우리끼리만 좋고자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불교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 문제를 드러내야 했다. 시기 질투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네 재산을 빼앗고 싶다고 하고 싶지 않다.

곰팡이는 확대 · 재생산 되기 마련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드러냈다는 점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성과다. 한국불교는 드러내면 살아난다. 총무원, 봉암사, 통도사, 해인사 등 한국불교 방방곡곡에서 무애실상의 모습을 드러내자. 드러내면 바람과 햇빛을 볼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다고 본다. 참된 수행이고 해답이라고 본다.

성전 스님: 처음 주제를 접하고 한국 승단의 문제, 수행자의 자질 문제에 대해 재가자들이 함께한다는 점이 염려스러웠다. 삼보 중 하나로 존경받아야 할 출가자가 재가자들 앞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추락시킬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

법회를 마치고 우리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복기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동안 불교는 위선과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도법 스님의 "10년 선방 다니는 것보다는 이번 4박5일 동안의 야단법석이 더 낫다"는 말은 한국불교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택회 거사: 모자라고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사부대중이 함께 정법불교를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진오 스님: 과거지향적인 것은 옳지 않다. 종단이 바로 서고 불교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봉사와 신행이 더 필요하다. 존경받는 큰 스님들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울림이 홍보가 돼서 불교는 허영과 사치에서 벗어나 희망이 돼야 한다.

임완수 거사: 나는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큰스님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법문을 하는 지가 궁금해서 왔다. 첫 날은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실망스러웠다. 둘째 날 수행기를 들으면서 "저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 날, 도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다고 전망했다.

임영광 거사: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은 불자들이라면 삼보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내면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무비 스님: "재가자들 앞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지적은 재가자들을 바보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지 않는다는데 왜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법석이 끝났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출 · 재가자들이 한 방향으로 한 목소리로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다.

박오광 거사: 불교를 소설 수준으로 알던 내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불교를 알기 전에는 불교 공부는 혜국 스님처럼 손가락을 자르고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향봉 · 도법 · 무비 스님을 뵈면서 의외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작은 실마리를 안고 간다.

전영철 목사: 2600년 불교 역사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새로운 불교의 중흥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였다. 기탄 없는 토론은 긴장감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도를 넘지 않는 절제가 돋보였다. 서로를 배려하는 불국정토의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받았다. 부처님, 역대 대승보살, 선사들의 뜻을 받들어 참 대승, 새로운 대승불교로서의 정법불교를 세우려는 절실한 대발원의 장이었다.

월암 스님: 건전한 비판의 장(야단법석)에서 비판 대상의 한 사람(선방 수좌)으로서 내가 곰팡이가 아닌가 한다. 선원과 수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선원과 수좌들이 거듭날 수 있는 자리. 수좌스님들이 이 자리에 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야단법석의 횃불이 불타올라. 조계종, 한국불교, 전 중생의 야단법석이 돼서 화엄장엄의 불국토가 되기를 기원한다.

각묵 스님: 혜국 스님의 말씀을 6년 만에 다시 듣는 자리였다. 선학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싶어졌다. 혜국 스님의 "간화선이 전부가 아니다. 수행체계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은 간화선이 다시 일어설 발판을 디딘 것이라 생각한다.

노치환 거사: 한나라당에서 활동 중이다. 여기서 하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 현정부가 불교에 대해서 탄압을 한다는 말을 항상 듣다보니 이런 자리에 오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겁다.

환경문제는 절집처럼 생활한다면 다 해결될 것이다. 여러 문제가 현실 부분에서는 부딪히는 부분이 많고 불가능한 부분도 많다.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터널은 도룡뇽 때문에 환경손실 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스님과 사부대중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듯 MB도 우리나라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도법 스님: 한나라당 측과 야단법석을 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토론자(비구니): 때로는 환희심, 때로는 먹먹해졌다. 더욱 철저히 수행정진하고 자비심을 발현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자리였다.

불교정화운동의 아픈 역사, 스님들의 해외여행과 숙박업소 이용 등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재가자들이 있어 고마웠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

승가가 청정해야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교를 이해해 달라. 수행하는 스님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따뜻하게 봐 달라.

재연 스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자는 것이 수행하자는 것이다. 가부좌와 근엄함, 참선 수행도 중요하다. 또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되돌리고 되돌리는 것이 수행이다. 연기와 무아를 깊이 있게 알며 부처가 된다가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때 부처다. 희생, 헌신이 자비가 아니라. 친구의 아픔, 남들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고 안쓰러워하는 것이다. 내가 중요한 만큼 불성이 있는 모두가 중요하다. 이제 돌아가서 진짜 부처 · 보살이 돼보자.

법인 스님: 한국불교의 문제가 허심탄회하게 드러나니 고통스럽다. 재가불자들의 질책을 하소연과 안타까움, 원망, 애정, 격려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문제를 드러낼 때 신뢰와 존경, 격려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4박5일 야단법석이 제대로 이뤄졌다. ***특별취재팀***



정토원 초코파이고봉스님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당뇨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개발



제일종묘사와 농촌진흥연구소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3년 연구 끝에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AGI(A-Gluosidase Inhibitor)라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하였습니다.

AGI는 십이지장 등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조고추를 당뇨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결과 식후 30분 후 혈당치가 120-150mg/de로 평소 180mg/de에 비해 상당한 혈당강화 효과를 거두었다.

정토원 주지 고봉 스님의 당조고추

"현시대 불교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사를 찾던 중 새롭게 개발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를 재배하게 되었다." 평소 농사를 수행처럼 생각하시던 스님은 대중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당조고추에 천연항생물질(프로폴리스)을 살포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추작물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명상음악을 들게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황금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체 친환경농법을 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첫 출하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식품검사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여 280성분수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 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

크기 및 색상
고추명은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였고, 이 당조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 20-50% 가량 크고 색상은 파피색이나 연노랑에서 오렌지색으로 크며 익을 땐 일반고추와 같이 빨강색으로 익습니다.

맛
당조고추의 맛은 일반 고추 맛과 똑 같으며 안 매운 것과 약간 매운 맛으로 구분됩니다.

혈당저하 체험
당뇨환자들이 식사 전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조고추 3-4개를 먹고 40여분 경과 후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에 효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장기 섭취를 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된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어도 되며 파프리카와 같이 생식용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품종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능성고추입니다. A-Gluosidase Inhibitor 기능성 성분이 다량함유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최초 기능성 당뇨고추입니다. 농림부 산하 농림기술관리센터의 농림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해익 교수와 원예연구소 조명철 박사가 제일종묘농산과 공동으로 연구, 육성한 품종입니다.



■정토원 :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
☎ 054-383-0407

7월 부터 출하 된 "당조고추"가 필요하신 불자님들 전화주시면 "당조고추"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초혼 · 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라고 노력하는만치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장애를 갖고 있는 분
특별 결혼 정보
캄보디아 = 베트남 = 네팔



해성불원 자비회는 특별히 불자 가정 장애우님들께 봉사의 마음으로 해외에서 포교하시는 스님들과 짝지어 주기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자격조건=생활능력 있는분

1. 직장증명서 (갑근세 증명)
2. 자가, 전세 계약서
3. 장애 급수 증명
4. 정신 질 환자 제외
5. 심사 규정에 맞아야 함

위와 같이 자격을 갖추신 분에 한하여 특별 우대 하여 모십니다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도 1번출구 옆 (아쟈빌딩 1505호)

이웃 종교 RELIGION

종교간 평화 위한 이슬람 순례길 나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17~27일 대화순례 예정

한국민족종교협의회 7대 종단의 연대협력기구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8월 17~27일 종교간 평화를 위한 이슬람 순례길에 나섰다.

KCRP는 종교간 대화위원회를 중심으로 17일 서울을 출발해 종교간 분쟁의 현장인 중동을 방문, 현지 종교지도자와 만나 종교간 평화공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순례를 가질 예정이다. KCRP는 10일간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을 순례하며 민간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KCRP의 대화순례는 지역 종교문화지도자들에게 한국 NGO의 종교간 평화활동을 자연스럽게 알림으로써 한국이 가까운 미래에 국제적 종교평화운동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지를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KCRP 관계자는 "국내적으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중동의 소수 종파들의 역사와 현황을 대중에게 현장감 있게 소개해 국내 종교문화 지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화위원회는 이번 대화순례를 대중 교양학술서로 엮어 지식베이스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화순례는 종교심을 지닌 인간이 만들어 내는 안타까운 현실적 갈등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하고,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지닌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해 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하느님 말씀, 소리로 들어요"

천주교회, 비장애인들과 정보격차 줄일 것으로 기대

가톨릭 시각장애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주보를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보급해 눈길을 끈다. 천주교 의정부교구(교구장 이한택 주교)는 8월 6일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성모승천대축일인 15일부터 의정부교구 주보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가톨릭에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용 주보는 봉사활동자들이 육성 녹음 또는 점역작업에 참여하는 '소리주보'와 '점자주보'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시간이 많이 걸려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바코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녹음, 점역 없이 주보를 곧바로 음성 재생하므로 시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시에 주보를 읽을 수 있다. 가톨릭에서 주보는 신자들이 교리와 교회 정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다.

또한 가톨릭 주보는 교구별로 일괄 제작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같은 교회 구성원으로서 동시대의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필수적인 매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미디어팀 이영식 팀장은 "주보 바코드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 정착될 경우 장기적으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정보격차를 줄여 시각장애인 신자들의 교회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종교벽 허물고 사랑과 희망 나누자

9월 4~5일, 제13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제13회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가 9월 4~5일 국립중앙박물관 앞 광장에서 펼쳐진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사랑나눔, 희망나눔'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다.

첫째 날인 4일은 나눔을 주제로 종교음악회가 열린다.

공연은 오후 7시 30분부터 110여 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LMB Singers 혼성 중창단, 코리아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 김남윤,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권미나 등 다수의 음악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마지막 날인 9월 5일은 본격적인 축제 행사가 진행된다.

행사 프로그램은 △개막식 △종교 북카페 △체험마당 △전시마당 △나눔마당 △무대 프로그램 △희망 콘서트 순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이번 종교문화축제는 각 종단별 추천 작품과 선별된 작품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돼 서로의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정 기자

책속에 숨겨진 '보물찾기'

경불련 · 연화사 어린이도서관 1호점 개관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선 신행단체와 지역사찰이 손을 잡고 새로운 지역어린이포교의 모델을 창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상임대표 법등, 이하 경불련)과 이웃을돕는사람들(이사장 지현), 연화사(주지 묘장)는 어린이도서관 '보물찾기 1호점'을 8월 18일 서울 연화사에 개관했다.



경불련과 연화사는 8월 18일 지역주민 · 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 '보물찾기'를 개관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지현 · 묘장 스님을 비롯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동대문구 방태원 부구청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지현 스님은 개관식에서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이 희망과 꿈을 키워가는 곳이다. 지역주민들이 이곳을 찾아 함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1호점을 시작으로 2 · 3 · 4호점 등 어린이 도서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종교사찰과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는 좋은 사례다. 연화사는 도서관 운영을 통해 현대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35석의 어린이 열람실과 컴퓨터방, 유아방 등을 갖춘 119㎡(약 36평) 규모다. 올해 5월에 내부공사를 시작해 6월 한 달 동안 각 단체 및 회원으로부터 5000여 권의 도서를 기증받았다. 매일 오후 1~5시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은 휴관한다.

그동안 연화사는 2006년 5월 문화센터를 개원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왔다. 문화센터는 사불수행, 풍물, 판소리, 단소, 요가, 천연비누 · 화장품 만들기, 라인댄스 등 매주 강좌를 열어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있어 불자포교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은 "보물찾기의 개관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문화생활의 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의 문화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책속에 보물이 있다'는 뜻에서 도서관명을 보물찾기로 정했다"며 "동대문구 어린이들이 어린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 책속에서 꿈을 얻고 리더십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린이도서관 보급 사업을 주최한 경불련(사) 이웃을돕는사람들은 불교계 최초로 만들어진 NGO단체로 방과후 교실, 빈민국 구호활동, 독거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자비의 집 등의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마음 건강해야 몸도 건강"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 개소식 개최

서울시 신노인정책 '9988 어르신 프로젝트'의 일환 사업 중 하나로 지난 6월 문을 연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가 개소를 공식 선포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8월 18일 종로구 경운동 SK허브플라자에 위치한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 현판 제막식을 하는 모습.

이날 개소식에는 가섭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기성 서울시의회의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 김충용 종로구청장, 종로구의회 의원 등 어르신들을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환영인사, 경과보고, 격려사, 내빈축사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현장 시찰 및 격려휘호가 전달됐다. 가섭 스님은 환영인사를 통해 "어르신 중심의 편안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로 어르신만의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상담센터이용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상담은 정신건강 도움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어르신상담센터의 효과를 지켜본 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이러한 시설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사일정을 마친 후 가섭 스님과 오세훈 시장 등 내빈들은 상담센터 옆 어르신들을 위해 오픈한 실버북카페 '삼가연정'에서 차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은정 기자

"희망걷기로 생명 나눠요"

생명나눔 제2회 희망걷기대회 개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올해 두 번째로 환자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2008년 가을에 진행된 '제1회 희망걷기대회'에 일면 스님과 환우가 동참하고 있다.

2009년도 행정안전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제2회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희망 걷기대회'는 9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월드컵공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대회는 월드컵공원 별자리 광장을 출발해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주변의 난지순환길을 도는 6㎞의 코스로 진행된다.

일면 스님은 "이번 행사는 장기기증 홍보를 통해 장기기증 등록자를 확대시키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박용희 팀장은 "헌혈캠페인과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 모집 캠페인도 진행하는 한편, 선착순 1000명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지급할 계획"이라며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희망 걷기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02-734-8050 농협 053-01-271485 (예금주:(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나은 기자

충청도 사찰(암자)
오래된 사찰이 있던 자리로 남향의 앞이 "탁~트인 부지.
고려시대 추정 "미륵석상" 2분이 모셔져 있음 (문화재 등재 가능)
부처님과 산신이 모셔져 계시는 작은 법당과 도량이 깊은 "터" (현재 마을에서 임시 관리 하는 중)
■ 마당 앞 기암괴석을 감돌아 흐르는 "청정계곡과 웅장한 폭포"가 (원천수) 있음.
■ 토지 내 "산신터와 용신터"가 있음.
■ 보너스 국유지 900평 접 (제천시에서 임대사용가능)
■ 약 300년 지난 노송과 계곡 옆 여러주의 소나무 운치 (정자터 최고)
■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최상류 정남향의 "배산임수"
■ 중앙고속도로 서제천 IC에서 10분소요.
충북 제천시 봉양읍
2,040평 (국유림 9백평은 평수에서 제외)
2억8천만원 (평당 137,000원)
017-422-6645
* 저는 불자로서 이 땅은 꼭! 절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과 인연될 스님을 빨리 기다립니다.

사) 대승불교 조계종 부산교구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1기 학인 모집 안내
◆ 교 육 과 정 ◆
이론교육 : 본 종단 총무원장 한파스님 직강
실기교육 : 본 종단 강주 교육부장 성각스님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욕, 시식
천수바라무, 오공양 작법무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개 강 일 : 양, 8월 21일 금요일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 금요일
◈ 수강시간 : 오후 3시
◈ 교 육 비 : 개강일로부터 1개월 무료
◈ 타 종단 스님도 환영합니다.
◈ 범음대학 : 홍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 문의 및 접수처 : 홍은사 (051)243-3165
본 총무원 (051)527-7733
종단홈페이지 http://dsbuddha.org 참조 인터넷 검색사이트 (다음, 네이버) 에 대승불교조계종 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산교구 범음범패 불교대학 학장 유초 합장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사)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 불교예술로 승화된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에서 의식교육 3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 의 내 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의 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화	2시~5시 야간반7시	30명 (6개월)
2.의 식 전문반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법 각종사찰행사전문반 ⊙전통예능(범음범패:삼신이운,진언성,복청게,원강도량,운심게,오공양소리,진령게,사다라니,욕건이,실개수공발보리,칭양성호,관욕게,합장게,영산작법소리등,30여곡)	목	2시~5시	20명
3.작법무반	바라,나비,사찰학춤	금	2시~4시	30명
4.국악기반	태평소,단소,대금 (영산회상,청성곡등)	금	4시~6시	30명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영남불교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 010-2314-1279
◇ 기숙승방 운영(선착순 우선):단기 수련 후 심사 거쳐 이수증 발급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부설
嶺南佛敎藝術大學
Young Nam Buddhism College of arts
★ 각종 사찰행사 전문으로 하는 스님 전국에 배정되어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마음의 힘이 모이면 어두운 길에 환한 등불이 됩니다.
(보시금중 일부는 어려운 불자 자녀들의 장학기금에 쓰입니다)
010-2314-1279 , 051)327-5095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 빙의 · 퇴마 ·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_ 6주
• 모집 인원 _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_ 100만원
•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 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식제공
★ 개인 특별지도 ★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특별상담환영
http://www.yuma119.com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032)349-0666
» 수련원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171번지 백련사 010-5100-6612

“심안이 열렸다고 법집에 사로잡히지 말라”



혜암이 오대산을 잠시 떠난 것은 은사 인곡이 위독하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인곡은 고성 옥천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리에 눕더니 갑자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고열에 시달렸던 것이다. 노환이라고는 하지만 뜻밖의 소식이었으므로 문도들이 모두 놀라 옥천사로 모여 들었다. 혜암은 오대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약재와 마가목차를 걸망에 넣고 즉시 옥천사로 내려갔다.

다행히 인곡은 혜암이 옥천사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열이 내리고 의식을 되찾았다. 혜암의 인사를 받은 다음날에는 미음도 한 사발 들었다. 옥천사 대중들은 혜암의 정성이 인곡을 살려냈다고 덕담을 했지만 혜암은 귓등으로 흘렸다. 새벽예불이 끝난 즉시 인곡이 누운 방 앞에서 마가목차를 우리고 한약재를 다려 올릴 뿐이었다.

“뭐하러 내려왔는가.”

“스님을 모시려고 왔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정진을 잘하는 것이 실다운 시봉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인곡은 혜암의 속마음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무심하게 말했다. 혜암이 옥천사로 내려와 아침저녁으로 약 시봉을 한 지 한 달이 지나서였다. 인곡은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해 지팡이에 의지해 경내를 산책하기도 했다.

겨울 햇볕이 따사로운 날이었다. 옥천사 뒤 대숲이 햇살에 반짝였다. 인곡은 모처럼 멀리 포행했다. 옥천사를 감싸고 있는 연화산 봉우리로 가는 산길을 올랐다. 혜암은 앞서 걷다가도 계곡을 건널 때나 돌밭길이 나타나면 인곡을 부축했다. 혜암은 인곡의 건강을 염려해 한 암자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스님, 암자에서 쉬셨다가 돌아가지요.”

“저 허공에 백운을 보니 초의 선사가 생각나는구나. 선사께서 청산응소백운망(靑山應笑白雲忙)이라고 했어. 청산이 왔다갔다 하는 백운을 보고 웃었다는 얘기지.”

암자에는 스님이 없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비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암자 마루는 번질번질했고, 마당에는 비질자국이 선명했다. 마루 끝에 걸터앉은 인곡이 갑자기 물었다.

“오대산에서 공부한 것을 꺼내보아라.”

혜암은 주저하지 않고 마당으로 내려갔다.

“무엇으로 보여 드리면 좋겠습니까.”

“내 지팡이로 마당에 꺼내보아라.”

혜암은 망설이지 않고 오대산 사고암에서 심안(心眼)이 열렸을 때 읊조렸던 게송을 써내려갔다. 단숨에 미혹할 미(迷)자로 시작해서 밝을 명(明)자로 끝냈다. 그러자 인곡이 눈을 반개한 채 천천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심안이 열렸다고 해서 법집(法執)에 사로잡히지 말라.”

“어찌하면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정진할 뿐 물러서지 말라(精進不退轉).”

“그리하면 어찌 됩니까.”

“광명이 세상에 비치리라(光明照世間).”

인곡은 햇살에 눈이 부신 듯 얼굴을 찡그리며 혜암에게 경책했다. 순간 혜암은 인곡의 당부를 자신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듣고 주위의 모든 유무정물이 듣는 것 같은 직감이 들었다. 혜암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경책 같기도 했다. 인곡의 목소리는 자비롭고 사뭇 비장했다.

“머리를 만져보고 법의를 돌아보고 중노릇 잘하라. 지옥고는 고통이 아니다. 가사 아래서 사람 몸 잃는 것이 비로소 고통이니라.”

옥천사 대중들은 약을 달이는 혜암을 볼 때마다 ‘효상좌’라고 위로했다. 그러나 혜암은 인곡을 모시고 정진하는 동안거가 더없이 좋았다. 인곡과 혜암의 마음이 이심전심했으므로 행복했다.

혜암은 아침저녁으로 약을 달이는 데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눈보라 치는 날에도 불쏘시개 숯에 불을 붙여 약을 달이곤 했다. 약을 달려 올리는 시간도 정확했다.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인곡의 방문 앞에는 약사발이 놓였던 것이다. 동안거가 끝나가는 어느 날이었다. 인곡이 불쑥 혜암 앞에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팔공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로 있는 효봉이 인곡에게 보낸 편지였다. 편지는 도반인 인곡에게 함께 지내자는 사연을 담고 있었다.

인곡은 이미 결심한 듯 말했다.

“나는 동화사로 갈 것이니라. 너는 어찌할 것이냐.”

“스님, 옥체를 생각하십시오.”

“내 걱정은 말라. 나는 오고가는 것에 상관하지 않느니라.”

“저도 스님을 모시고 갈 것입니다.”

“잘 생각했다. 동화사로 가 큰스님들에게 점검 받도록 하거라.”

혜암은 인곡의 지시대로 동화사로 갔다. 기력이 쇠잔해진 인곡을 좀 더 시봉하면서 효봉 회상에서 하안거를 나기 위해서였다. 동화사 금당선원은 신참과 구참 수좌들이 즐겨 찾는 선방이었다.

혜암은 금당선원에서 정진하는 동안 내원암까지 포행을 나갔다가 돌아오곤 했다. 내원암 앞의 입석에는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혜암의 눈길을 늘 사로잡았던 법어였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맑히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혜암은 그 깊은 뜻이 마음에 계합된 바가 있었다. 바위에 새겨진 글을 보고 있으면 마음에 불이 하나 켜진 듯 환했다. 그날도 혜암은 그 바위 아래서 걸음을 멈추고 무심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한 노승이 지팡이를 꾹꾹 찌르며 올라오고 있었다. 혜암은 고개를 크게 숙이고 합장했다. 효봉을 만나기 위해 지리산에서 온 금오(金烏)였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일러 보게나.”

혜암은 금오의 턱 밑에 주먹을 들어 보였다. 산길을 올라오느라 숨이 턱에 찼던 금오가 다시 물었다.

“내가 뜻을 일러 보라 하지 않았는가.”

이에 혜암은 금오를 사정없이 밀어버렸다. 뒤로 나동그라진 금오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화를 내기는커녕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동화사에도 사자새끼가 한 마리 있군.”

사자란 깨달음을 이루어 번뇌 망상이 사라진 도인을 뜻했다. 그래서 도인의 법문을 사자후라고 하는 것이었다. 금오의 격려는 혜암에게 불퇴전의 신심을 솟구치게 했다. 혜암은 은사 인곡이 걱정됐지만 다시 오대산으로 향했다.

이미 상원사 선방에는 활안(活眼), 진제(眞際), 월현 등 10여 명의 수좌들이 결코 방바닥에 눕지 않고 좌선만 하는 1주일 용맹정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혜암도 기꺼이 입승이 돼 용맹정진에 동참했다.

1주일 용맹정진이 끝나자, 대중들은 선방의 일과대로 정진을 이어갔다. 훗날 오대산에만 30년을 머물게 돼 수좌들 사이에서 ‘오대산 호랑이’라고 별명을 얻는 활안은 그 무렵에도 기백이 넘쳤다. 그 기백으로 탄허가 인민군에게 잡혀갔을 때 홀로 찾아가 담판을 지어 구출해냈을 것이었다. 활안의 화두는 ‘나고 죽는 그 이전의 나는 무엇인가(生滅未生前 是甚)’였다. 활안은 태백산 동암에서 참선 중 비몽사몽간에 땅이 갈라지면서 쏟아지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두 손으로 받아내는 불연을 맺은 바 있는 수좌였다.

그때 진제의 나이는 선방 대중들 중에서 가장 어린 26세였다. 향곡의 지도를 받다가 분심이 일어나 오대산으로 달려온 젊은 수좌가 바로 진제였다. 진제는 적멸보궁으로 포행 갈 때마다 향곡의 경책을 떠올렸다.

진제가 묘관음사로 갔을 때 향곡이 대뜸 물었던 것이다.

“일러도 삼십방(三十棒)이요, 이르지 못해도 삼십방이니 어떻게 하겠느냐.”

“… .”

“남전 선사가 고양이 목을 벴다고 하자 조주 선사가 신발을 머리에 이고 나갔다. 한 마디 일러 보아라.”

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으므로 향곡을 찾아 왔는데, 진제는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그러자 향곡이 진제를 내쫓듯 꾸짖었다.

“아니다. 공부를 다시 해라!”

진제는 향곡의 말을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전국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번민했다. 도를 알 것 같다는 소견과 선지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번민 끝에 들어온 곳이 오대산이었다.

분심을 크게 내어 화두가 잘 들렸다. 칼바람이 휭휭해 선방 안의 한 끼 밥과 숭늉이 얼어붙는 강추위에다, 동안거 동안 단 한 번의 특식 때 두부 한 모와 사과 한 개를 나눠먹을 정도로 더 없이 궁한 생활이었지만 공부가 잘 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진제는 날씨가 포근해 선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아 스스로에게 자문했다.

‘정말 내 공부가 제대로 됐는가. 됐다면 어떤 법문도 막히지 않고 누가 묻더라도 전광석화와 같이 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데도 나에게 과연 혜안이 열렸다고 할 수 있는가. 내가 이전에 ‘알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견성을 삼는다면 허물이 이만저만이 아니리라. 이는 결국 나를 속이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선지식을 찾아가 망견을 냈는데, 이번에는 자기한테 정직하게 묻고 있었다. 자기한테 물으니 거짓이 한 치도 통하지 않았다. 진제는 그 길로 상원사를 떠나 향곡에게 돌아가 무릎을 꿇었다.

“화두를 내려주십시오. 깨칠 때까지 걸망을 메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관문을 어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진제가 향곡에게 받은 화두는 향엄상수화(香嚴上樹話)였다. 중국 당나라 때 위산의 제자인 향엄이 법문한 것인 바 그 내용은 이러했다.

‘어떤 스님이 아주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지도 않고, 발로 밟지도 않고 오직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매달려 있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일이 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묻는 이의 뜻에 어긋나고, 만약 대답한다면 수십 길 땅바닥에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니 이러한 때를 당해 어찌해야 되겠는가.’

결국 활안은 북대 미륵암으로, 혜암은 동대 관음암으로, 월현은 서대 염불암으로, 진제는 향곡이 있는 묘관음사로 갔다. 혜암이 동대 관음암에서 해인사로 내려 간 것은 인곡 때문이었다. 해인사로 돌아간 인곡이 다시 병환이 깊어져 자리에 눕게 됐던 것이다.

<계속>



그림 · 최문정

> “머리를 만져보고 법의를 돌아보고 중노릇 잘하라
> 가사 아래서 사람 몸 잃는 것이 비로소 고통이니라”

> 병환 깊은 인곡에
> 아침저녁으로 약 시봉
> 수좌들 용맹전진 준비에
> 입승으로 동참



일제잔재 털고 전통 찾다

범어사 13일부터 종합정비 들어가

일제의 왜곡, 훼손으로 한국 전통 사찰 고유의 멋을 잃었던 천년고찰 범어사가 광복 66년 만인 2011년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범어사의 민족문화 복원 및 중 · 장기 발전 계획인 '범어사 종합 정비 계획'이, 8월 13일 일제잔재의 상징물이던 조선총독부 표지석 제거와 3층석탑(보물 제250호)을 원형대로 복원하기 위한 난간석 해체를 신호탄으로 시작됐다.

범어사는 한국불교건축의 진수를 간직한 대표적인 사찰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람 배치와 문화재 등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일제에 의해 크게 훼손 · 왜곡됐다.

이번 왜색지우기 작업은 13일 조선총독부 표지석 제거와 3층석탑을 둘러싼 일본식 난간 해체를 시작으로 최하층에 일본식으로 기단부를 세워 우리 고유의 미학이 사라진 3층석탑을 원형 복원한다. 대웅전을 정면에서 가로막은 일본식 보제루를 누각 형태로 복원하고, 일본식 석축 쌓기와 축성법으로 지어진 범어사 외벽 등도 철거하고 재건립한다.

대웅전 앞마당의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금송 세 그루와 천왕문 · 불이문 사이에 심은 일본 편백나무 · 삼나무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우리 소나무로 바꿔 심을 계획이다.

본래의 가람 배치는 전통 불교건축 양식인 상 · 중 · 하단의 3단 구성의 틀을 지켰고, 선교양종(禪敎兩宗)의 교리를 적용한 체용설(體用說)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원칙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사찰을 이후 중 · 창건하는 과정이나 크고 작은 불사를 행할 때에도 철저히 지켜져, 일제강점기 이전 범어사의 가람 배치는 전통불교건축의 고유한 형태를 지녀왔다.

범어사 종합정비계획 연구책임자 서치상 교수(부산대)는 "범어사의 가람배치를 한국불교 전통건축 양식에 맞춰 복원하는 일은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한국 사찰양식을 후대에 바르게 전하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일제잔재청산이 마무리 되면 2014년까지 총 예산 200억원 규모의 '범어사 종합 정비 계획' 2단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지원 기자

대입합격 기원 '다채'

부산 지역 사찰들 기도법회·입시특강 등 호응

2009학년도 대입수능을 100일 앞두고 부산지역 각 사찰에서 합격과 고득점 획득, 수험생의 건강을 기원하는 백일기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범어사(주지 정여), 관음사(주지 지현), 내원정사(주지 정련), 대광명사(주지 목종), 동명불원(주지 정산), 미타선원(주지 하림), 삼광사(주지 화산), 선암사(주지 원범), 안국선원(선원장 수불), 홍법사(주지 심산), 혜원정사(주지 원허) 등 부산 각 사찰들은 8월 5일부터 수능 하루 전인 11월 11일까지 일제히 대학입시백일기도에 들어갔다.



8월 19일 동명불원에서 열린 입시특강에서 메가스터디 이석록 강사가 올해의 입시 전략과 2010년 대입경향분석을 설명하고 있다

범어사는 백일기도에 동참한 300여 명의 수험생 학부모에게 주지 정여 스님이 직접 쓴 '하면 된다 忍' 족자를 증정해, 공부하는 학생의 책상 앞에 걸어둘 수 있도록 했다.

주지 정여 스님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침착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를 한다면 마음 자체만도 원력이고 신심"이라며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아들, 딸의 발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보살심을 갖고 기도하면 알찬 기도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주지 지현)는 수능 백일기도와 백중기도를 겸해 매일 오전 11시 주지 지현 스님의 특별법문이 마련된다.

내원정사는 매일 오후 2시 스님의 집전으로 백일기도를 올린다.

동명불원은 학업성취를 위한 백일기도와 함께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특강을 마련한다. 8월 19일 오후 1시부터 대웅전에서 서울 메가스터디 인기강사 이석록씨를 초청해 2010년 대입경향분석 및 전략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어 28일 오후 1시부터 홍승 스님을 강사로 수험생을 위한 건강 사찰음식 강좌를 열고, 수험생에게 적합한 건강음식 요리법 및 수능일 도시락 만들기 특강을 마련한다.

9월 16일과 30일에는 주지 정산 스님이 직접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호흡법으로 요가와 단전호흡 등의 수행법을 수험생에게 직접 지도한다. 또 11월 9일 오후 9시부터 합격기원 촛불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용두산 미타선원은 '경전 읽는 관세음보살상'을 극락전에 모시고 백일기도를 올린다. 수능일인 11월 12일에는 법당에 모여 종일기도를 올릴 예정이다.

한편, 종립학교인 **해동고등학교**(교장 김진구)는 오전 11시 50분부터 '수능 100일 법회'를 봉행했다. 교내에 마련된 법당에 학생 간부 및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학생회장의 발원문 낭독, 교장선생님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각 교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며 전교생이 법회에 동참했다. 법당에서는 수능일까지 매일 아침 백일기도가 봉행돼, 고3 수험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지원 기자

"중생들 안식처로 만들 터"

부산 최초 천태종 사찰 광명사 대법당 상량식

부산 최초 천태종 사찰인 광명사(주지 화산)의 종합불교회관인 대법당이 올 연말 낙성을 앞두고 대들보를 힘껏 올렸다.



8월 15일 열린 광명사 대법당 상량식에서 대들보를 올리고 있다.

광명사는 8월 15일 오전 11시부터 현재 불사가 한창인 대법당 3층 강당에서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정산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및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량식을 여법하게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은 종의회장 도산 스님의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 봉독, 연혁보고, 주지 화산 스님의 개식사, 종정 도용 스님의 법어, 총무원장 정산 스님의 치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화산 스님은 "부산에서 천태불교가 뿌리내리는데 밑거름이 된 최초의 도량인 만큼, 어려웠던 지난날의 초심을 잃지 않고, 방황하는 중생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명사 대법당은 2008년 6월 6일 첫 삽을 뜨고, 부지 5.775㎡(약 1750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670㎡(약 1415평) 규모의 종합불교회관으로 연말 낙성을 목표로 신축 중이다.

박지원 기자

점수 따기 위한 봉사 이젠 '옛말'

두송복지관 청소년 사회복지학교 운영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학교가 문을 열었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맹자)은 8월 12~14일 사하구 내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복지학교를 운영했다.

기존의 자원봉사에 국한된 사회복지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학교는 사회복지 기본이론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청소년에게 올바른 사회복지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커리큘럼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자원봉사활동, 장애인복지, 학교폭력 등의 순으로, 실제 노인용품을 착용하고 노인이 돼보는 노인학대 역할극 등 실습을 통한 살아있는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됐다.

조영아 사회복지사는 "일반적인 청소 등의 봉사활동이 아닌,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이론교육과 체험수업, 복지관 이용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과정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명문종가의 미학 강좌

영광전통예절미학회

영광전통예절미학회(원장 이경순)는 9월 한 달간 한국 명문종가에 담긴 미학을 찾아 나선다.

'작가 이연자가 만나본, 114집의 명문 종가를 찾아서' 특별강좌는 1강 '거대한 버팀목 한국의 종가', 2강 '조선의 문화 공간', 3강 '아름다운 예절, 종가의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특강은 9월 7일과 14일, 21일 등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에서 열린다. (051)816-9500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 회장 효선 스님

'눈높이 법회'로 새싹포교 앞장

"불교와의 인연은 빠를수록 좋아요. 그 인연의 향기가 밴 어린이들은 자라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않아 자연스레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 부산지구 회장 효선 스님(공덕원 주지 · 사진)의 화두는 단연 '어린이 포교'다. 스님은 "어린이 포교는 불교의 미래다"라는 일념으로 그간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한 길을 쉼 없이 걸어왔다.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이 생각보다 많아 이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을 찾다보니, 결국 훌륭한 지도자를 기르는 것이 참된 불자의 씨앗을 싹틔우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2008년 대불어 부산지구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효선 스님은 역량 있는 어린이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다. 양질의 연수프로그램을 정기 운영해 한 번 졸업하면 끝이 아닌,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 어린이들에게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가르치게 했다. 또 지도자 간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정립해 베테랑 지도자들의 노하우와 신예 지도자들의 재기발랄한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어린이법회를 어떻게 개설하고 운영해야할지 몰라서 뜻은 있으나 선뜻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제 조계종이 아닌 소수종단 사찰에서 어린이법회를 개설하고자 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봄이면 전국 각지의 대불어 지구에서 연꽃문화제를 열고, 가을에는 전래놀이한마당, 겨울에는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 여름에는 부산에서 전국의 어린이법회 및 어린이법회에 소속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대규모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하려고 하던 중 신종 인플루엔자를 고려해 취소하게 돼 정말 아쉬웠습니다."

최근 절에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어지기 시작했다. 그나마 법회를 여는 사찰도 어린이 불자들이 줄어들었다. 낮은 출산율도 문제지만, 스님이나 부모가 어린이포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어린이들은 절을 떠나 학원과 PC방으로 향하고 있다.

"요즘 어린이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흡수하는 대중문화는 전혀 새롭잖아요. 지금의 법회 방식은 어린이들에게 그만큼의 매력을 줄 수 없잖아요. 최근에는 놀토 시행으로 새롭게 각광받는 일반적인 자연체험학습과 농촌문화, 전통문화체험 등에 불교색을 가미한다면 어린이들에게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어린이지도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효선 스님은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직장인이라서, 전근을 가게 되면 사찰의 어린이법회를 그만둬야 하고, 또 모자란 운영비에 사비를 털어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기에 부담이 커 그만두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합니다. 지도자 스스로를 보시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사찰에서도 적극 후원하려는 의지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진시황제가 비밀시 활용하던 천비술서! 금쇄옥약시의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720면/정가 각120,000



십자성 래정비법 전수생모집
사주를 뽑지않고, 자신이 갖고 들어온 점괘로 쉽게 푸는 법
1:1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百超律歷學堂
입금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계좌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故 김대중 前 대통령 추모 물결

광주전남추모위원회 지선 스님 위원장 추대… 선운사 근조 현수막

호남의 정치적 지도자 김대중 前 대통령의 서거에 온 국민이 깊은 시름에 잠긴 가운데, 그의 정치적 고향인 호남지역에서도 경건한 추모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종교 · 시민단체는 8월 18일 모임에서 '故 김대중 前 대통령 광주전남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를 결성하고 지선 스님(백양사 유나)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19일 합동조문 후 열린 기자회견에는 지선 스님을 비롯해 현지 스님(원효사 주지), 행법 스님(선덕사 주지) 등 호남지역 불교계 인사와 각 종교 지도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추모위는 성명서에서 "나라에 큰 별이 떨어졌다.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김대중 前 대통령은 불굴의 신념으로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 화해와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발표했다.



8월 19일 故 김대중 前 대통령 광주전남추모위원회(위원장 지선)는 합동 조문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추모위는 "정부는 6 · 15 공동선언의 실천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며, "온 국민이 장례일정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행사에 참여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반세기 현대사에 있어서 김 前 대통령만큼 뛰어난 지도자가 없었다. 김대중 前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 평화통일, 인권,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추모위는 6일간의 국장 일정에 따라 매일 저녁 7시 구 전남도청 시민합동분향소에서 추모문화제를 개최하며, 23일에는 광주전남 시도민이 참여하는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전북지역에서도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을 추모하는 열기가 이어졌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김대중 前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대웅보전에 근조 현수막을 게시해 애도의 뜻을 알렸다.

현수막에는 "지난해 선운사에 오시어 옛 추억을 그리던 대통령님의 따스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는 듯 합니다. 나라의 민주주의와 발전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시던 님의 열정을, 못다 이루신 꿈. 통일과 중생의 행복을 위한 뜨거운 발원은 오래오래 기억 될 것입니다. 남은 짐 우리에게 두고 훨훨 나소서"라고 적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노점상에 닭죽 공양

광주 금선사 복날 잔치

전국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때, 지역사찰이 시장 노점상 어른들을 위한 복날 잔치를 벌여 화제가 되고 있다.

금선사(주지 일명)는 8월 13일 광주 송정시장에서 500여 노점상 어른들에게 여름을 이기는 닭죽을 공양했다.

20여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진행된 이번 음식공양은 더운 여름에 시장 좌판에서 생필품을 파는 60~70대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 어르신들은 대부분 점심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다.

일명 스님은 "시골풍습이 남아있는 송정시장에 가봤는데 할머니들이 거리에서 행상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금선사 신도들과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인근 나주에서 올라와 채소류를 판매하는 김복순 할머니(68)는 스님이 전해준 따뜻한 점심을 받으며 "오늘은 복날이라 날씨가 너무 덥다.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게 돼 기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대해노인복지센터장 · 법림사 주지 무진 스님

"어린이 · 노인 위해 헌신하고파"

"한국불교는 가장 많은 노인을 신도로 하면서, 가장 노인복지에 무관심한 종교가 돼버렸다"는 어느 스님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기간이 가장 빠른 나라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광주는 이미 2005년대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제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훌쩍 넘었다.



광주 동구는 타 시도에 비해 노령인구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불교사찰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광주의 5개 자치구 중 불교세가 강한 곳이다.

하지만 광주시내 300여 노인복지관련시설 중 불교계가 운영하는 곳은 단 2곳 뿐이다.

그 중 대해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무진 스님(사진)은 2008년 센터 설립 후 동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일을 해나가고 있다.

"누군가는 해야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든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불교집안에서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대해노인복지센터는 설립된 지 이제 일 년 남짓 됐지만, 주간보호, 방문요양, 노인일자리사업, 집청소 등 의미있는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통정리와 건강한 노인이 아픈 노인을 돌봐주는 일 등 노인일자리사업 등도 펼치고 있다.

대해노인복지센터의 활동에는 지역신행단체들도 힘을 보태주고 있다. 광주철도청 직원 불교모임 연등회와 KTX 불교모임 보현회 등이 매달 30여 어르신을 온천, 목욕, 점심대접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또, 대해노인복지센터 부설로 운영되는 수자타식당에서는 매일 60~70여 어르신에게 밑반찬을 제공한다.

대해노인복지센터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매주 화 · 목요일이면 사찰주변마을 경로당에서 한바탕 잔치가 벌어진다. 무진 스님과 자원봉사팀들이 점심 공양을 올리고 노래자랑을 벌이기 때문.

"1990년대초 광주시라고는 해도 시골 같은 이곳에 토굴을 마련해 기도중이었습니다. 주변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니 문제는 아이가 아니라, 가족이더군요. 그중 할머니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한 것이 노인복지센터 운영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무진 스님의 원력에 뜻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모였다. 먼저 사찰주변 내지, 용면, 남계마을 주민을 돕고, 법회 후 법당의 과일 · 떡을 마을회관에 제공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점점 교회로 갔다. 무진 스님이 고민했고, 결국 알아냈다. 교회에서 노인복지단체를 만들어 무료로 점심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스님은 바로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했고, 전문적인 노인복지사업을 펼치겠노라 원력을 세웠다.

지금은 마을 경로당에서 "우리 무진 스님이 최고"라는 말이 들릴 정도다.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미륵전 벽화 보존처리

문화재청 등 벽화보존처리 자문회의서 결정

국보 제62호 김제 금산사 미륵전 벽화가 보존처리 된다.

문화재청과 금산사, 김제시, 벽화처리업체 관계자 등은 8월 13일 금산사에서 '미륵전 벽화보존처리 자문회의'를 열고 손상된 벽화 전체를 보존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훼손이 심한 부분은 떼어내 처리한 후 별도 보관하고 떼어난 자리에는 모사본을 붙이게 된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내년부터 6년에 걸쳐 33억원을 들여 벽화 전체(185폭)를 손상 정도에 따라 보존처리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산사 미륵전은 정유재란 때 불탔다가 1635년 중건됐다. 3층 규모의 '통층' 건물로, 높이 20m, 최대 폭 15m의 구조물 내외부에는 185폭(1폭은 길이 1.5~2m)의 범천, 제석천, 팔부금강 등 다양한 종류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미륵부처 세계를 표현한 미륵전 벽화는 조선시대 사찰벽화의 전형적 양식을 계승해 보존가치가 높은 회화 문화재지만 벽화가 외부에 노출돼 빛, 바람, 비 등 자연적 영향으로 손상이 극심해 시급하고 광범위한 보전처리가 요구돼 왔다"며 "보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 금산사는 미륵신앙의 본산으로 백제 때 창건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퀴즈로 교통안전 책임져요"

고창노인복지회관, 교통방송과 보안 프로젝트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8월 19일 고창군노인복지회관에서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TBN 교통방송 교통약자 보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TBN 교통방송과 고창경찰서가 공동으로 최근 급증하는 노인 교통사고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어르신 안전하세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참가 어르신들은 교통팀과 안전팀으로 나눠 교통안전 OX 퀴즈 등을 진행했다.

또, 고창사회복지관은 지역 경로당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을 제공하기 위해 삼계탕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고창군 성남북여자경로당과 삼영경로당 40여 어르신에게 삼계탕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9월 10일까지 관내 10개 경로당에 삼계탕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공 스님은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선 주기적인 교통안전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 행사를 마련했다"며 "거동이 불편해 복지회관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백련축제 산사음악회

완주 송광사서 29일

전북 완주의 대표적인 천년고찰 송광사(주지 도영)는 8월 29일 오후 5시부터 '송광사 백련축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를 주제로 대전시 무형문화재 대전 현불사 주지 법우 스님의 승무와 정태춘, 강산에, 신형원, 가야랑 등의 인기가수 등이 여름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연꽃사진작가로 유명한 성효 스님의 연꽃사진전과 백련녹차 시음회, 백련음식 시식회와 연씨(연자) 나눔행사가 진행된다.

송광사관계자는 "지역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연꽃축제 산사음악회'를 비롯해 봄의 벚꽃과 철쭉축제, 여름의 연꽃축제와 템플스테이를 통해 송광사를 전주와 완주군을 알리고 찾게 하는 대표적 관광아이템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향림사, 황룡강서 물놀이 행사

광주 향림사(주지 혜향)는 8월 17일 황룡강 일대에서 물놀이 행사를 개최했다.

향림사 반야봉사단과 광주기관차승무사업소 연등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30여 지역 어르신과 어린이회, 봉사단 등 50여 명이 참여해 물놀이, 장기자랑, 오락 등을 벌였다.

행사를 준비한 담당자는 "불교가 지향하는 자비실천과 경로효친에 비중을 두고 삼복더위 속에서 가족의 안녕을 위해 기도한 어른들께 심신을 위로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41 밥은 기행

불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근 들어 내 몸에는 알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됐다. 채식주의를 지향한 적도 없는데 몸이 의식과는 다르게 '따로국밥'이다. 소든 돼지든 그러한 생명들이 인간들의 세상에서 치를 수밖에 없는 희생에 대해 내가 느끼는 비애감이란 사실 그다지 크지 못했다. 우리가 흔히 즐겨먹는 유동(有動)의 생명체에 대한 나의 생각은 부동(不動)의 생명체와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채식' 또한 생명을 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평소 생각은, 어느 날 샤워 물에 익사돼 하수구로 휩쓸려가는 개미들의 떼죽음을 목격한 후로 더욱 굳건해졌다. 샤워를 하는 중에도 어딘가를 터벅터벅 걷는 중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익사나 압사 등의 사고를 수없이 당하는 사실은, 불살생의 정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상'인지를 말해줬다. 그러니 내 입에 와 닿은 인연됨이 무엇이든 감사히 받아들이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는 생각이다. 여하튼 확고부동했던 이러한 생각이 근자에 들어 헷갈리고 있다. 내 몸이 육식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먹다가 배탈 난 아구 수육.

이러한 정체성의 혼돈기 중에 일본에서 영국인 지도교수 부부와 경주에 놀러온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지도교수부부가 골프를 즐기는 동안, 가이드를 맡은 후배와 자유 시간이 주어졌으니 자신들의 일정을 알아서 책임지라는 얘기였다. 우선 한낮의 더위부터 피하고자 질좋은 커피와 빵으로 소문난 카페에 들렀다.

"불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팔에 감긴 염주를 의식했는지 친구의 후배가 뜬금없이 물어왔다.

"도올이 달라이라마에게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달라이라마는 '과학'이라고 답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불교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교는 종교라기 보단 철학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친구와 마찬가지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후배는 내 대답이 터무니없게 들린 모양이다.

모태신앙이 불교라는 그에게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보통 그러하듯, 기독교적인 사고관이 그렇듯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이 필요한 종교였다. 그에 대한 반박에 "기독교적으로 불교를 바라보면 불교를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라는 말이 튀어나왔지만, 학자인 그의 따짐도 만만치가 않아 우리의 언쟁은 바깥의 더위만큼 찌는 듯했다.

카페에서 나와 백로의 서식지로 유명한 숲을 들러 다음으로 향한 곳은 경주 시내의 한 횟집이었다. 그곳에서 후크 선생님 일행과 저녁식사가 약속되어 있었다.

"이 집이 자연산만 취급한다네요. 저녁은 후크 선생님이 한 턱 낸다니까 양껏 먹어보자구요." 회라면 환장하는 친구나 그의 후배는 자연산회에 대한 기대가 커 입맛을 쩝쩝 다시더니, 후크 선생님이 오기도 전에 회 한 접시를 동을 내고는 아구 수육까지 주문했다. 평소 회를 좋아하지 않는 나는 두 사람의 부추김에 한 점 두 점 입에 넣다보니 '이 날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갈등도 이내 사라져, 그 좋아하는 아구 앞에 서는 마지막 한 점까지 독점해버렸다. 약속시간을 한참 넘긴 후에 나타난 후크 선생님 일행이 그날의 에피소드를 쏟아놓는 중에도, 쫄깃한 아구 수육에 반해 체면치레도 잊은 내게 후크 선생님이 갑자기 질문을 했다.

"불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한 문장으로만 말해볼래요?" 내게는 종교를 넘어 그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는 심오한 철학인 불교를 어찌 한 마디로 하리오만,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순간 내 입에서는 "Buddhism is just life"라는 말이 나왔다.

고개만 두어 번 끄덕이다 일행들과 다시 여담을 나누며 회를 먹던 그가 잠시 후에 다시 물어왔다. "그렇다면 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문명에서 자란 그에게 신도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답했다면 뭐라 했을까. 후덕해 보이는 그의 반응이 궁금해 짓궂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 순간에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구를 수육으로 먹어보니 너무 맛있더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날 밤에도 어김없이 배탈이 났고, 내 몸과 의식이 따로국밥이 된 까닭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아직 나는 그 답도 찾지 못했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47 삶의 흔적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하고 행복한 흔적 남겨야

#흔적이 남는다는 것

삶을 살다보면 수많은 흔적을 보게 된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소복히 쌓인 하얀 눈 위에 발자국도 흔적이 될 수 있고, 가끔 신기하게 쳐다보는 파란 하늘 위에 구름을 헤치며 지나간 비행기 자국도 흔적이며, 또는 누군가 오랫동안 물건을 쓴 듯한 흔적, 누군가 내 차에서 내리고 난 후 남은 향취도 흔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듯 흔적은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흔적이건 간에 흔적을 보고 느끼는 우리는 그 흔적의 실체가 현재 옆에 있거나 없어도 그 존재 자체를 상상할 수 있고, 되새겨지거나 아스라이 떠올릴 수 있다.

"발자국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인가 보구나", "지나간 저 비행기는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이었을까?", "이 고가구에는 사용하던 그 사람의 정성이 가득 배어 있구나…", "그녀의 향수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네…" 등등 흔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존재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게 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흔적을 아주 잘 남겨야 지나간 발자국이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는 것이며, 나의 잔향이 향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누군가 마음에 다녀간 흔적

뭐니뭐니 해도 흔적 중에 제일은 사람이 마음에 다녀간 흔적일 것이다. 누군가 마음에 다녀가고 나면 두 가지 흔적이 남는다. 아름다운 향기를 남길 수도 있고 아픈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아름다운 향기는 따뜻하고 설레게 만들어주며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아픈 상처는 시리고, 차갑고 슬프게 만들어주며 미어지는 통증을 느끼게 한다. 특히 시간이 길었던 짧았던 간에 질긴 정이 들었던 사람이 다녀가면 그 흔적과 여운은 더욱 지워지지가 않고 오래 남기에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만 한다.

내가 흔적의 주인공이면 나의 뒷발자국이나 여운에 대하여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내가 흔적이 남아 있는 필드의 주체라면 너무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 다녀간 사람에게는 흔적이 남지 않지만 흔적이란 것이 남겨진 사람에게만 깊이 새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다녀간 흔적을 문득문득 느낄 때마다 그 여운을 잊지 못하고 놓지 못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워하며 웃음 짓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흔적이 남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흔적은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남기 마련이다. 누군가 마음에 다녀 갈 때도 원하건 원치 않던 예고 없이 왔다, 통보 없이 가는 것처럼.

#내가 남겨 놓은 흔적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다녀간 흔적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챙겨볼 필요성이 있다. 어떤 흔적이냐에 따라 상대를 너무나 기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너무나 힘들고 슬프게 만들어 줄 수도 있기에. 힘들고 슬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다들 겪어 보아 잘들 알지 않는가? 기쁘고 환한 웃음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너무나 잘들 알지 않는가? 고통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슬픔을 상대에게 남기고 싶어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 남기지 말도록 해야 한다. 행복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그 기쁨을 상대에게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 해야 한다. 아니 많이 남겨야만 한다. 그래야 흔적을 남기고 온 나의 뒤가 함께 풍요로워지고 밝고 따뜻해지며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 나의 흔적으로 인해 울고 있다면 비록 내가 함께 있지 않아도, 평생 만날 수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그 슬픔과 고통의 에너지는 그대로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 반대로 누군가 나의 흔적으로 인해 뿌듯해하고 따뜻해하며 웃고 있다면 행복에너지는 수백 배가 되어 그대로 나에게 전이돼 나도 함께 환희로워지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한 수수법칙이다. (02)576-7575





초극세사 방수원단과 보아털을 사용해 보온효과에 탁월한 만행화 털신.

보온효과 탁월한 '보아털' 만행화에 사용

겨울이 올 무렵 충주 석종사 혜국 스님을 찾아 뵌 적이 있습니다. 석종사 혜국 큰스님은 불사로 바쁘심에도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이렇게 좋은 신발 만들어 스님들이 신을 수 있도록 해줘 고맙다'고 하며 만행화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석종사를 찾아간 날 저는 직접 절에다 제가 만든 만행화를 널리 알리고 싶었기에 스님께 홍보를 하고 싶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전국의 사찰에 다니면서 신발을 알리기 위해 방법들을 물어보며, 혜국 스님께 전국 선원에 가서 만행화 신발을 선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동안거 결제일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방부를 들여야만 선원의 스님들이 신발을 찾아도 찾지 않겠느냐며 조언을 해주셨고, 또한 100일간 공부하러 들어가시고 100일간 산문밖 출입을 안하시는지라 스님들의 신발구입은 어려울 것이라며 선원의 스님들이 방부를 하면 해당 사찰의 원주실에서 일괄구매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큰스님은 신발가격이 비싼 것 또한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제가 만행화 신발을 수제로만 만들어야 한다고 마음먹었을 때 생각했던 '부처님의 불법을 전하는 스님들이 신을 신발이기에 스님 신발은 정성과 혼이 담긴 신발이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며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석종사 혜국 큰스님께서는 신발을 알리러 온 저에게 방한용 털신을 어느 정도 가져왔냐고 물으시며 스님, 재가자, 종무원직원이 신을 수 있게 수십 켤레의 털신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만행화 털신은 신발로 초극세사원단과 바이오실리콘깔창(바이오와 실리콘을 첨가해 만든 깔창으로 지압효과에 탁월한 기능)으로 만들어져서 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초극세사 방수원단을 사용, 보아털을 사용해 보온효과에 탁월하기 때문에 겨울에 산문 밖을 출입하는 스님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정성을 담아 만든 100% 수제화 만행화 신발들을 대중이 신어 편안함이 입소문을 통해 전달되다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한번 석종사 혜국 큰스님께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02)733-5715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초발심자경문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째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핀란드에서 온 100% 야생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기능성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폭격하던 영국공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 전에 블루베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이후 물체식별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량의 안토시아닌 덕분에 블루베리는 우리몸의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인판매


블루베리 파우더 ~~35,000원~~ ⇒32,000원


블루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크랜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YADANBEOPSEOK 야단법석 구입문의:010-5318-0704 www.01053180704.com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법성사 불사기금 마련을 위해 사찰에서 직접 담아 보급합니다
황토 전통메주, 죽염장, 죽염된장, 매실 고추장, 국내산 대두콩 100%
새마을금고 : 2918-09-002988-0
예금주 : 조정환
전남 장흥군 관산읍 용전 2구 80-1 법성사
전화 061)867-2331
010-8643-6680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우주 氣편지 받고 부처님 신통력 업장소멸
● 건강, 인생, 우환, 사업이 잘 안되는 분.
● 영적장애, 신내림 등 고통받는 불자, 수행자.
● 빙의, 신병, 정신질환, 치매, 우울증 등
● 병원치료, 최면술, 천도재를 해도 안되는 분.
031)321-9555
011-586-6091 일광사

출가 수행 예비자 모집
인천의 사표가 될 조계종 승려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 40세 이하 남. 녀
지원 : 조계종 전 교육 지원
상담 후 종립에서 행자 생활 수행.
011-737-2658

보살선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각종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영업하실 분 모집
● 남,녀 연령제한 없음
● 높은 능율급 지급
● 취급품목 : 불교서적, 작품, 불교 달력, 각종서화, 표구 액자 전문
● 불교계 활동하시는 분 환영
부산불교문화사
051)202-8770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전통 범패 배우면서 행자, 스님 하실 분
▷무료 탱화필요하신분
경남
016-428-6665

토굴처럼 사실 노스님이나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도 구함)
▷부천 도심산사
011-9707-3490

산세 좋은 대둔산 토굴에서 관리하며 공부 하실 스님 한분.
▷모든시설 갖추어져 있음 무료
010-2665-2393

기도하며 염불 (49재의식) 배우며 기도하실 행자 · 비구 스님 모십니다
▷대전지역
018-220-0566

女종무원 구함
PC가능자, 숙식제공
30세 미만
▷서울시내 사찰
02)3460-5300
010-7211-5066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세수 50세 이상 각 정각의식이 능하신 분, 부전 스님 모십니다
010-8819-8988

부전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02)338-2158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경남 양산
011-880-6606

공양주 보살님 (급) 모십니다
▷서울 상계동
011-1787-573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40-50세) 양평 용문면
010-7484-6885

공양주 보살님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여
041)835-3933
010-8353-33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사찰
011-393-0013
011-710-7294

기도하시며 함께 할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7278-1193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부전스님 초빙
신심으로 함께 수행 정진하실 조계종 소속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연락처 051)853-5486~7
범어사부산포교원 여여선원 부산불교회관(부산시청 옆)



하루 저녁에 깨우치는
패철 보는 법
문학박사 전 용 원 저
개정 증보판 2만 5천원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1688-1137) 주시면 책에 저자가 직접 사인과 낙관찍고 월간역학(8천8백원) 무료동봉, 함께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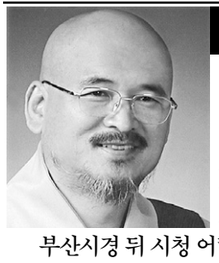
봉은불교미술원 수강생 모집
우리나라 전통회화의 정수인 불화(탱화)를 직접 그려 보십시오.
● 모집부문 : 불화반, 1일체험
● 교육내용 : 불화(탱화), 사불화, 전통문양 및 단청문양그리기
● 일시 및 교육장소 : 2009년 9월 4일부터 수시 접수합니다
1. 일반(어른)반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5시 (천안 한암사 어린이 회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5시 (아산 봉은불교미술원)
2. 어린이반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4시 (천안 한암사 어린이 회관) 매주 다섯번째 주는 쉽니다
● 수강료 : 불화(탱화반) 1달(4회) 5만원, 재료비 1만원 / 1일체험 2만원 (재료비 포함)
● 문의 : 봉은불교미술원 041)541-3545, 016-751-3545 / 한암사 종무소 041)592-4747
홈페이지 www.bongen.pe.kr 봉은불교미술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학공부
집에서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자미두수 주역
사주 전과정 45만원부터. 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 전화 1688-1137

오가피뿌리
오가피가 몸에 좋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수행자가 경북 안동에서 생산한 오가피 뿌리를
갈근, 두충, 당귀, 대추(이상 국산), 감초(중국산)와 함께정성껏 다렸습니다.
60팩 1박스 10만원(3박스 이상 구매시 9만원)
주문 후 입금 확인되면 3일 이내 배송해 드립니다.
농협 121022-56-217821 정부연
경북 상주시 모서면 백학리 526 유일한농원 머슴 정원규
011-886-1256 / 070-7743-1258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단기출가학교 모집
● 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50세 미만, 미혼인 남자
● 일시: 10월 5일(월)~10월 19일(화) 15일간
● 대구큰절, 감포선방 동시 교육, 참선, 기도 교리습의=수행자의 모든것
● 출가 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 문의 : 010-2488-8228

단기출가나 및 사미, 비구계 미득도 스님 모집
● 현재 비구, 비구니 스님으로 사미, 구족계를 받지 못하고 활동 중인 스님.
● 출가는 하였으나 예불과 천도의식에 자신이 없으신 스님.
● 출가를 하고 싶으나 세수가 많아서, 혹은 어려운 행자생활에 자신이 없으신 분, 또는 시간이 없으신 분.
(본 선원은 30년의 역사를 가진 종단소속으로 득도 및 단기 출가자 교육 전문도량입니다. 단기출가자는숙박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정의 교육비가 있습니다. 단기 교육 후 사미수계를 받으며 수계증명원과승려증, 사찰등록도 가능합니다)
한국불교의식대학 거한선원 043)853-9798

명당 탐지기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상표
관룡자!!
관룡자는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90~180도 회전한다.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 된다. 이미 국내외 유명지사들이 사용 중이며 100% 정확하다. 사찰, 집터, 건물터, 묘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 관룡자는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케이스(2만원)+수맥탐지봉(1만 5천원)+월간역학 1년 구독(10만 5천 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구입방법: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패철 보는 법 책(2만 5천원)>도 판매합니다. 구입 시 월간역학(8천8백원)도 함께 무료 증정.
*역학공부: 저렴한 비용, 집에서 간편 신속 확실히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주역 자미두수 동영상 강의 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www.kbs.cc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월간역학
창간 20주년 기념 이벤트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하여 주역 .사주 .관상 . 풍수 뿐만 아니라 유.불.선의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수록하여 매월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월간역학은 2010년 창간 20주년을 맞는 기념 이벤트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지금 회원가입 하시면 총 120만 5천 6백원을 단 10만원으로 할인해 드림.
1년 구독료 10만 5천 6백원+월간역학 <해설위원> 광고(1년 50만원)+ 월간역학 인터넷 광고(1년 50만원)란에 사진, 사찰명 한의원이나 역학자 기타 업체 상호와 영업내용, 주소, 전화번호 1년간 게재+수맥탐지봉 1세트(1만 5천원) = 120만 5천 6백원. 이 행사는 10년만의 행사로 다음 기회는 2020년에 있음.
2. 회원증(호화 금박, 가로 42cmx세로 30cm), 해설위원 위촉장 보내드리며, 본사 발행 모든 도서 20% 할인, 타 출판사 취급 도서 10% 할인 해 드림.
3. 국내외 학회 및 토론회, 풍수기행 등의 행사에 초청 받으시는 외에도 많은 혜택을 드림.
가입방법: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10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주역 동영상 강의- 저렴 속성 완성
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 www.kbs.cc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일붕사 ● 법 명 : 혜륭(조병태) ● 주 소 : 경남 의령군 궁유면 평촌리 175번지	● 사찰명 : 일붕사 ● 법 명 : 혜운(김영희) ● 주 소 : 경남 의령군 궁유면 평촌리 175번지
● 사찰명 : 지원사 ● 법 명 : 지공(엄외출) ● 주 소 : 경남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61번지	● 사찰명 : 지원사 ● 법 명 : 혜정(김성순) ● 주 소 : 경남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61번지
● 사찰명 : 수도사 ● 법 명 : 원각(김진동) ● 주 소 :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산 47-4	● 사찰명 : 용주사 ● 법 명 : 도현(김태영) ● 주 소 : 경남 밀양시 초동면 검안리 407-3번지
● 사찰명 : 수량사 ● 법 명 : 운학(박호진) ● 주 소 : 충남 아산시 용화동 299번지 5동 6호	● 사찰명 : 정심사 ● 법 명 : 도진(정일호) ● 주 소 :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소사리 153-2번지

상기 8인과 상기 8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서로 달라 귀 종단으로부터
탈종을 하고자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오후 마감.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부지 : 600평 (실사용 1,000평)
- 가액 : 15억

- 위치 : 경남
- 법당 : 3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140평
- 가액 : 23억

- 위치 : 경기도
- 법당 : 40평
- 요사 : 50평
- 부지 : 800평
- 가액 : 1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00평
- 법당 :지상4층(160평)
- 시내최고자리고찰
- 급양도가 : 20억

- 위치 : 경기
- 대지 : 13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5천

- 위치 : 전남
- 부지: 12,000평
- 법당 : 15평
- 요사 : 20평
- 가액 : 1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가 보이는 사찰(3층)

- 총대지 : 약 108평
- 법당 (와가) 30평, 공양간 30평
- 요사채 방 8개, 공양간 30평
- 법당 뒤편 산(공원)
- 도심 중앙 도접
- 가액 : 4억 3천

지리산 최고 아름다운 토굴

- 대지 총평수: 1450평
- 토굴 30평(현대식)
- 토굴 주변 산세, 전망, 풍광 최고
- 계곡물 사계절 졸졸
- 주차장 및 텃밭 마당넓은 절
- 가액 : 2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비밀보장 철저, 세무상담 무료 서비스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소재
- 부지 : 약1,200평(종교용지)
- 법당 : 50평(목조)
- 요사: 2동 140평
- 나한전 50평 산신각: 7평(목조)
- 기타: 석등, 연못 등
- 가액: 18억원
- 특징 :도심 인근의 대작 불사된 도량임 (농협 융자 11억원 가능: 연 6%)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소재
- 부지 : 1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3층)
- 요사: 35평 (2층)
- 종무소: 35평(1층)
- 대중공양간 : 20평
- 가액: 2억 8천만원
- 특징: 도심에 위치한 포교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서울 보문동
- 대지 160평, 법당 45평
- 토굴 : 산신기도 40평
- 요사채 : 130평(해우소 별도3개)
- 2층 건물 중 1, 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
- 전세 5억(시설비포함)금액조정가능

010-8577-1811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학가산 해발 550M 동향 도청 신도시에서 15분거리
- 부지면적: 1만평(전으로 지목 변경 중)
- 진입로, 전기, 신수 완비
- 조경석 자체 조달
- 가액: 12억

017-522-1729

한 국 불 사

- 서울 약 50평 9억
- 경기도 4억 8천만원 외 매물 다수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재개발 지역 보상문제 상담환영

02)6674-3535
010-3154-3535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 평수: 236평
- 임법당: 13평, 방2개, 주차장 넓음
- 스님 혼자 기도하시면서, 법회하실분 언제든지 걸망만 풀면 법회할 수 있음
- 가액: 7000만원

010-6357-5860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대입구 1분거리
- 평수: 30평,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있음, 종무소 법당 에어컨완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8653-3216

전통사찰(급) 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45억(금액조정불가)

017-227-5965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석관동
- 평수: 3층 건물 2층 42평
- 구조: 법당 25평, 방2, 주방, 간이 사무실, 화장실
- 시설: 불단(원목) ,영단(영구위패 500개) 1년연등(500개)등 최고급 시설
- 가액: 보증금 2천 월 8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7609-092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600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고층질수있음)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5억(절충가능)

011-9888-156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후문 부근
- 5층 건물에 3층 약 40평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상담하시는 스님 최적지

02)887-2138
010-9940-977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김천역 10분거리
- 법당, 요사채 각 2층
- 대지 170평, 법당 45평 요사채 60평
- 김천 혁신도시, 고속철 역사 도로 개입
- 가액: 7,000만원 인수 (대출 승계 조건)

054)435-3816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주문진
- 법당: 60평(2층)
- 요사채: 60평(1층)
- 가액: 2억 8천만원(절충가능)
- 자연경관수려, 지하천연수 시설 최고 완벽

016-347-5308
033)661-5308

토 굴 안 내

- 위치: 청도 비슬산 자락
- 부지: 1400평
- 가옥: 황토집(58평)
- 창고: 22평
- 특징: 산속 청정계곡 참 좋은터
- 가액: 6억 5천만원

010-9057-211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2동 2동 중 황토방 1개,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5억 5천만원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기도 군포시 군포역전 시장 앞
- 5층건물 중 2층 전체
- 약 80평.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8811-7599

사찰(급)안내

- 위치: 포천시 송우리(의정부경계)
- 총평수: 430평
- 1. 2층 건물 중 1층 명부전 50평(위패단 및 극락도량) 2층 대웅전 34평
- 2. 별채 1호80평 중1층휴게실, 2층 산신각 및 선방 1칸
- 3. 별채 2호 150평중 일부 주차장 일부 60평 중 종무실, 매점, 공양실, 선방2칸, 화장실4평
- 모든집기 일체 양도합니다
- 가액: 15억 5천만원

010-9757-7245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 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 옆)
- 대지: 230평사용(등기 192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3천 8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678-957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능곡 전철역 3분거리
- 3층건물 중 2층, 5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냉난방완비
- 시설총액 1억원 이상 소요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0-9889-9442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역 근교(4층) (지하철 5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50만원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5280-0260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 4층건물 중 2층
- 평수 40평
- 완벽한 시설, 즉시 법회 가능
- 스님 사정으로 급 안내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51)501-272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마산 운동장 옆 산호시장 부근
- 평수: 30평(3층 중 2층 전체)
- 삼존불, 신중탱화
- 즉시법회 가능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5백만원
- 스님 부재 중으로 급 안내

055)232-7151
019-550-9725

포교당 안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대입구 1분거리
- 평수: 3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있음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8653-32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우척산 무위사
- 평수: 대지 220평, 요사채1(22평, 방3) 요사채2(공양간, 목욕실, 화장실)
- 법당25평 (임시 하우스 법당) 산신각 4평,시설일체완비
- 가액: 1억 1천만원 (융자3천포함)

010-8327-3808

사 찰 안 내

- 위치 : 하동군 묵천면 직전리 산 70-3번지
- 대지: 1,000평
- 임법당: 16평, 삼존불, 마애불 (도 문화재 지정 사찰)
- 현재 공양간, 요사채 토목공사중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

055)882-7887
010-2428-366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서구 8부능선
- 평수: 대지 50평 건평 45평
- 가액: 2억 2천만원

010-4578-8277
010-9998-2926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 부지: 총 1650평,대지 300평
- 건평 100평
- 구조: 법당 요사채 2동 산신각 용신각, 황토벽돌 .
- 요사채 1동은 구들방으로 된 황토 귀틀집임(방 5개)
- 가액: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4320-884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산계곡 상류 도량이 깊음 물이 흐르고 있음
- 1170평
- 가액 : 평당 5만5천원

010-4130-0606
(주인직접)

포교원 안내

- 위치:부산시 기장구 기장읍 (기장읍 사무소 옆)
- 평수: 40평, 4층 건물 2층 (법당, 친견실, 침실, 공양실)
- 상담하시는 스님 최적지 즉시 법회 가능(시설 완벽함)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900만원

011-551-17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33평, 건물 2동,
- 도로인접, 주차, 교통편리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7천 5백만원

055)744-4879
010-8223-4879

암자터 및 토굴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산계곡 상류 도량이 깊음 물이 흐르고 있음
- 1170평
- 가액 : 평당 5만5천원

010-4130-0606
(주인직접)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 평수 : 55평
- 법당 완벽, 호신불 150불
- 오존불, 탱화
- 시설일체완비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2천만원

010-6215-9749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
- 법당 : 20평, 요사 30평
- 대지 : 151평
- 가액 : 9천만원
- 인근 국가공단 100만평 한방특구공단 조성 착공 교통편리한 사통오달 포교적지

011-811-5466

임법당 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동
- 평수 : 12평, 삼존불, 공양간 딸린 방 1칸, 요사채
- 전세금 : 삼천만원, 월10만원
- 언제든지 법회가능 시설비 없음

051)524-0107
016-9669-010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문무대왕릉 인근
- 대지: 1,000평
- 건평 : 3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010-3511-3511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춘천시 남산면
- 교통: 가평 터미널에서 10분 강촌 나들목에서 12분
- 특징: 완벽한 기도처, 현 산중턱 독립펜션운영중
- 평수: 700평, 가옥 50평 사찰터에서 펜션을 운영하니 사정상 사찰을 하실분에게 양도하고자 합니다
- 가액: 5억 3천만원(주변 땅은 매입 가능함)

033)263-1719
019-9177-1084

암 자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약 일백년 된 좌청룡 우백호 산세 좋은 명당터
- 신축 요사 35평인 법당,십야 기름 겸용, 삼성가 목조 5평
- 자연석 조경 및 돌탑 잘 되어있음, 큰 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300m
- 교통 : 원주시청-충주시청 4차선 전용도로 개통 시 약 10분거리 위치 중간에 있음(현재 부분개통사용)
- 땅 : 1230평, 시세 : 평당 40만원, 현지답사 후 절충가
- 주지스님 건강 문제로 급매,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371-5567

전원주택 ·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원통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텃밭 1개
- 산중턱 황토집, 심야보일러
- 집근처 강이 흐르고 경치가 아주 좋고 , 조경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
- 가액: 3억 3천만원

033)462-9734
016-337-9736

콩만한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용암사)
- 대구에서 50분 창영에서 20분 합천에서 25분 부산에서 80분) 진주에서 대구가는 국도 20번에 접합
- 100M 차량 출입가능
- 대지: 200평+200평...평당 약 20만원
- 건물: 법당(목조 13평 6천소요)
- 요사채(신축 32평: 슬라브일부기와, 평당 300만 소요)토목 및 석축 옹벽에 많이 소요되었음
- 가액 : 몽땅 1억 4천만
- 스님 부재로 운영곤란 하여 양도 하려고 합니다

011-9329-4241(처사)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사정상 급양도

010-3019-223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의 2층
- 약 45평, 삼존불, 각단, 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 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5366-4905

사찰안내

- 위치:경기도 화성시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 부근
- 대지: 220평 , 건물1층 요사채 47평
- 2층법당 23평,방6, 주방, 거실, 화장실,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산신당 4평별도
- 기타: 심야전기, 옥외주차장 약 80평, 옥외화장실 남녀 각 1, 집기일체
- 당일 법회 가함, 몸만 오시면 됨 노령으로 양도코자 함
- 가액: 4억(절충가능)

011-9114-9935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 강서구 화곡역5분거리
- 평수: 2층건물 2층. 45평
- 옥상방1개(옥상 사용)
- 구조: 법당, 방1, 주방, 화장실
- 시설: 삼존불, 상단, 신중단, 영단 원목 불단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3889-8078
오전 10시 ~ 오후 9시까지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0

마음으로 전하는 오직 하나는?

[원문]
이심전심시하법(以心傳心是何法)
불불조조유차전(佛佛祖祖唯此傳)
조계산상일륜월(曹溪山上一輪月)
만고광명장불멸(萬古光明長不滅)
–조계사 일주문

[번역]
마음이 마음으로 전하는 법이 그 무엇인가
부처님과 역대조사가 오직 이를 전하였네.
조계산 꼭대기에 걸린 둥근 달처럼
만고에도 이 지혜광명 영원히 멸하지 않네.

[선해(禪解)]

며칠 전, 지장재일 법문을 하기 위해 제주도 천왕사(天王寺)에 왔다. 한 여름의 땡볕인데도 시원한 바닷바람 때문인지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사색의 끈을 풀고 명상을 이끌어 내기에는 더없이 좋은 풍광(風光)이다. 이곳에 앉아 차를 마시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

요즘,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는 '중도와 통합'이다. 과거 한국 사회는 정치와 종교 문화에서 매우 폐쇄적이었다. 이것은 정치적 이념에 의해 좌지우지 된 탓으로 다분히 사회의 모든 귀와 눈을 닫아버린 결과이다. 하지만 이젠, 이 시대는 합리적인 사회적 통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런 시대의 흐름이며 요청이다. 중도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화합을 이끄는 최선의 방법이며 미래지향적이다. 이를 빨리 깨우쳤다면 한국 사회는 정치문화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한국불교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조선 시대의 숭유억불정책으로 인해 멸망의 기로에 서 있었을 때도 몇 몇의 위대한 선승(禪僧)으로 인해 그 명맥을 이어 왔으며,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불교의 본질이 퇴색됐을 때도 만공 스님 이하 효봉 · 동산 · 금오 스님의 불교정화운동 정신으로 오늘날 그 명맥을 찬란히 이어 왔다. 하지만, 그 이후 군부에 의한 법난과 일련의 좋지 못한 사태로 인해 한 때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시점에 불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와 화합의 정신'이다.

부처님 사상의 근원은 '중도'이다. 이는 불교의 원천적 사상이며 불교인들이 미래에도 점진적으로 가져야 할 안목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국불교가 부처님의 위대한 사상인 '중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한국불교의 미래를 지향할 선승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종교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의 이념은 '화합과 사랑, 자비'가 바탕이 돼야 한다. 더 이상 반목과 투쟁이 연속돼서는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종교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마음 닦음'에 있다. 먼저 종교인들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종교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들로부터도 종교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중도 화합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어떻든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 그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서민 위주의 중도 실용으로 자신의 지지층을 두텁게 하자는 데 있을 것이다. 물론, 그의 발언은 매우 정치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도적 시각은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도 반드시 가져야 할 시각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고리타분한 지역적 연대나 문중(門中)의 연대를 끊고 진정으로 한국불교를 이끌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세 번 전한 그 뜻' 부처님과 역대조사 다르지 않아
중도화합으로 나와 남 분별없는 삶 실천할 때 행복

일각에서는, 내년이 한국불교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다고 벌써부터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앞으로 예견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생긴 염려 때문일 것이다. 왜 그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산승으로서는 유감스럽고 통탄할 일이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불교의 가장 즐거운 행사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회고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비단, 이것은 그들의 시각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불교인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불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치적인 색(色)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며 다만, 부처님의 법안에서 모든 일이 이뤄져야만 한다. 이러한 부처님의 법인 '중도'와 오늘날 국민적 염원인 '통합'을 바탕으로 불교도 변하지 않으면 결코 호응을 얻을 수 없다. 말하자면, 불교에서의 중도실현은 곧, 2000만 불자들의 종교적 삶과 괴리된 관념과 구호로부터 벗어나 종교적 화합의 실현에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종교의 궁극적 목표이며 '중도'적 삶인 것이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조계사 일주문이다. 그동안 많은 사찰을 탐방했지만 정작 한국불교의 1번지인 조계사를 찾아가지 않았다.

조계사는 우리나라 불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 전체를 아우르는 총 본산(本山)이다. 따라서 조계사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일주문은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 이곳이 바로 근대 한국불교의 고승인 만공 스님이 주창하신 세계일화(世界一花)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심전심시하법 불불조조유차전'은 부처님의 삼처전심(三處傳心)을 뜻한다. 부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세 번의 법'을 전했는데 오늘날 불교의 대표적인 선수행의 기본이 되는 간화선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이 세 곳에서 세 가지의 마음을 전했다는 의미이다.

첫째 '다자탑전분반좌'인데 부처님이 다자탑 앞에서 설법하고 있을 때 가섭존자가 그곳에 나타나자, 부처님은 당신이 앉으셨던 자리를 반쯤 비켜 앉고 그 자리에 가섭존자를 앉게 했다. 두 번째는 '염화시중의 미소'다. 대범천왕이 영취산에 모인 대중들을 위해 법을 청하자, 부처님은 말없이 제자들에게 받은 꽃을 들어보였으며, 마하가섭존자만이 꽃을 들어 보인 이유를 알고 빙그레 웃게 된다. 세 번째는 '곽시쌍부'이다. 부처님의 열반을 지켜보지 못한 가섭존자가 늦게 돌아와 안타까워하자 관 속에서 부처님의 두 발이 밖으로 나와 가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한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마음으로 전하는 법이 그 무엇인가'이다. '불불조조유차전'은 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이나 역대조사가 오직 이것을 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일찍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법은 부처님과 역대조사들이 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조계산상일륜월'은 조계산 꼭대기에 걸려 있는 둥근 달처럼 부처님의 법은 '만고광명장불명' 즉, '만년 동안 지혜광명이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만큼 부처님의 법은 영원히 멸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가히 조계사의 일주문에 새겨진 주련의 의미는 한국불교의 모든 정신을 아우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으며, 오늘날 한국불교가 선불교 중심으로 흐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선례라고 하겠다.

부처님이 보여 주신 '삼처전심' 법의 핵심도 바로 이와 같다. 인간의 모든 마음은 얼굴 속에서 나타난다. 항상 남을 위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에게서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인면수심의 범죄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부처님이 전하는 이심전심의 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조계종 원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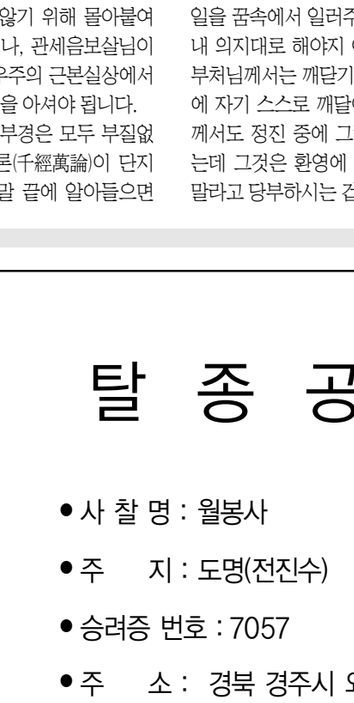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0

집착하면 본성을 보지 못한다

[원문]

若知諸法從心生 不應有執 執卽不知. 若見本性 十二部經 總是閑文字. 千經萬論只是明心 言下契會 敎將何用. 至理絶言 敎是言詞 實不是道. 道本無言 言說是妄. 若夜夢見樓閣宮殿象馬之屬 及樹木叢林池亭 如是等相 不得起一念樂着 盡是托生之處 切須在意.

"모든 법이 마음에서 생긴 것임을 알면 마땅히 집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니라. 집착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만일 본성을 보게 되면 12부경은 모두 부질없는 문자일 뿐이니라. 천경만론이 단지 마음을 밝히려 하는 것이니 말끝에 알아들으면 경전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극한 이치는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가르침은 말씀일 뿐이니 사실은 도가 아니니라. 도는 본래 말로 할 수 없으므로 말로 해봤자 허망한 것이니라. 만약 꿈에 누각이나 궁전이나 코끼리나 말 따위나 나무나 숲이나 못이나 정자 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잠깐이라도 빠져들지 말지니라. 모두가 망념에 의해 생기는 것이니, 부디 주의 할지니라.


사명대사가 찬(讚)한 것으로 추정되는 달마도(간송미술관 소장).

[해설]

'모든 법이 마음에서 생긴 것임을 알면 마땅히 집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니라. 집착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도 '하나의 마음(一心)'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기에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집착해서 본래 모양이 없는 진리 즉 실상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내가 있다고 고집하는 순간에 실상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놓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언을 외우고 염불을 하며 정진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상(相)을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한다면 그 생각 생각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내 눈앞에 보일 것인가, 안 보일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달마 스님께서도 정진 중 내 눈앞에 보살상이 보인다면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상이자 환영입니다. 집착은 본래 불성을 가리기 때문에, 염불을 한다면 염불에만 일념으로 한 생각 놓치지 않기 위해 몰아붙여 나가야 됩니다. 지장보살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문자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우주의 근본실상에서는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일 본성을 보게 되면 12부경은 모두 부질없는 문자일 뿐이니라. 천경만론(千經萬論)이 단지 마음을 밝히려 하는 것이니 말 끝에 알아들으면 경전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주의 실상이 둘이 아닌 하나의 도리를 깨쳤다면, 부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팔만사천 경은 모두 부질없는 문자일 뿐이란 말씀입니다. 눈을 뜨면, 즉 성품을 깨달으면 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문자 ·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도리를 깨닫게 되면 걸림이 없는 겁니다. 경은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겁니다. 경을 통해서 목적에 도달했으면 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리라는 얘기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뗏목이란 방편에 비유를 했습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주의 근본실상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팔만대장경도 진리 차원에서는 휴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선사들은 "정진을 통해 깨달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깨닫고 나서 경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학문을 하시는 입장에선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깨달은 진리인 실상 차원에서 보면 팔만대장경 역시 부질없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시고 당신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법을 설했다고 하면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이라는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군더더기이기 때문에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실상자리는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극한 이치는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가르침은 말씀일 뿐이니 사실은 도(道)가 아니니라.'

지극한 실상의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역대 조사들도 한 마디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도는 본래 말로 할 수 없으므로 말로 해봤자 허망한 것이니라. 만약 꿈에 누각이나 궁전이나 코끼리나 말 따위나 나무나 숲이나 못이나 정자 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잠깐이라도 빠져들지 말지니라. 모두가 망념에 의해 생기는 것이니, 부디 주의할지니라.'

꿈속에서 이것 저것 나타나는 것들은 모두 환영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앞일을 꿈속에서 일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대로 해야지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닫기 위한 길만 일러 주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달마 스님께서도 정진 중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환영에 지나지 않으니, 거기에 속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불자정보 746호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장흥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평
● 건물 뒤 거대 바위 산 있음
● 가액: 1억 5천만원
018-603-1456

암 자 안 내
● 위치: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 요사채 1, 작은법당 1
● 가액: 6,000만원
011-723-664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
● 약 900평
● 법당, 요사채
● 산세 수려하고 물도 좋음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1억 8천만원
055)672-0340

임법당 안내
● 위치 : 논산시
● 부지 : 520평,건평 4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일체 시설완비
041)733-0925
010-4157-0925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 평수 : 780평
● 평당 18만원
● 건물 1-26평
● 건물 2-20평
● 건물가액 : 8천만원
054)371-602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주시 풍동소재
● 종교시설 : 현재 절은 아님
● 사찰로 최적지임
● 대지 : 480평
● 건평 48평
● 가액 : 2억 7천만원 (융자 3천 2백만원)
016-472-5654

암자터 및 토굴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차령산계곡 상류 도량이 깊음 물이 흐르고 있음
● 1170평
● 가액 : 평당 5만5천원
010-4130-0606
(주인직접)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사직동
● 1층 약 30평,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000만원(절충가능)
010-6578-3566

포교원안내
● 위치: 성북구 길음동 전철 출구 바로 앞
● 4층건물 중 2층
● 실평수: 40평, 법당 20평
● 방2, 욕실, 공양간, 삼존불, 후불탱화, 각단탱화(고려불화)
● 가액 :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비 총 2000만원
010-2665-2393

암 자 안 내
● 위치: 전남 여수.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인근이며, 공원부근 암자로 공기 좋고 시원한집
● 대지: 82평, 건평 58평
● 1층주택, 2층법당
● 예쁜 정원과 교통 편리한 시내 가까운곳 전원주택 적합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1-609-4197

s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평수 : 약 45평(2층건물)
● 삼존불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700만원(시설물 최상)
● 현재 법회중 꼭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010-4176-0772

신도시부근사찰
● 경기북부 시내중심(도보10분거리) 풍치 수려한 절
● 부지 680평(실사용 천평이상)
● 대웅전 20평, 요사채 2동 (100평 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전철역(2블럭) 개통예정
● 잠실,강북 30분거리 포교와 수행의 최적지
● 가액: 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 선이나 상담후 절충가
011-393-0013 /011-710-7294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월봉사
● 주 지 : 도명(전진수)
● 승려증 번호 : 7057
● 주 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 2리 387-1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재)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소속
일붕 법왕종 창종 선포



초대 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이사장 담화)산하에 일붕법왕종이 창종 되었습니다. 일붕법왕종은 2009년 8월 15일 법왕청 제1청사에서 제3차 임시중앙종회(의장 능인스님)를 열어 명예종정에 인간문화재 9호 조혜륭 큰스님, 종정에 일붕법왕청 총본산 일붕사 주지 김혜운스님, 종회의장에 지원사 주지 엄지공 스님, 총무원장에 수도사 주지 김원각 스님이 종회의원 21명의 만장일치로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일붕법왕종의 총무원은 법왕청 제 1청사 2층에 설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일붕법왕종은 문도와 각 사찰을 모두 통합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종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활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통불교조계종 산하 170개 사찰이 모두 일붕법왕종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으로 의론이 되었으며, 현재 법왕청 산하 등록사찰은 모두 670여개 사찰에 이릅니다.

일붕법왕종은 일붕 큰스님의 업적사업은 물론 일붕법왕문도회와 연합하여 일붕큰스님 뒤를 이어 한국불교를 세계화하고 세계불교를 한국화 한다는 방침으로 창종을 선포하였습니다. 기타 각분과 원장 및 교구 종무원장은 오는 9월 중순경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혜운 종정스님과 원각 총무원장스님은 우리 불교도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생명존중 불사 정신의 자비와 규율의 종단으로 우뚝 서는 밑거름이 되고, 원융과 화합을 지향하는 총무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히고 종도들에게 약속한 대로 '종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일붕큰스님의 업적을 제조명하고 불교가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확고히 다져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정 혜운


종회의장 지공


총무원장 원각

2009' 일붕법왕 문도의 날 대축제

삼보에 귀의 하옵고!
일붕법왕 문도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번 아래와 같이 일붕법왕 문도의날을 기념하여 일붕조사전 기공식과 함께 일붕법왕 문도의 날 기념행사를 봉행하고저 하오니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9년 10월 10일** (오전 11시 부터) ■ 장 소 : **충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법왕청**

1부 – 일붕조사전 기공식 및 일붕법왕 일대기 출판기념회 / 2부 – 법요식 및 시상식, 가수초청 공연

■ 참고사항

1. 일붕법왕큰스님으로부터 건당 및 수계를 받으신 스님, 법사(문. 형제 및 손상좌 포함)님들께서는
   이메일wbstf@yahoo.co.kr 또는 02)3216-3216으로 주소, 성명, 법명, 수계년도 등을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왕청 제2담화정사에 건립 예정인 일붕 조사전에 문도님들의 이름과 법명을 동판에 새겨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접수하고 있습니다.
2.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큰스님의 저서나 사진, 비디오테이프 및 큰스님과 인연이 있는 물품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저희 일붕법왕문도회 02)3216-3216 으로 기증해 주시면 특수 제작하여 큰스님의 조사전에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우 110-846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76번지 귀빈빌딩 5층 **(재)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 02)3217-3217**



내마음의 향을 피우고 내마음의 촛불을 켜세요

안되면 조상 탓?

문 우리가 속된 말로 흔히 잘되면 내 탓 안되면 조상 탓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조상님들과 전혀 무관하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도재도 지내고 그러는 거 아닌지요?

답 내가 지금 물 한 그릇을 먹는 데도 우주 천체가 먹고도 이 물 한 그릇이 되남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또 남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다 한다면 촛불을 켜 놓고 향을 피워 놓고 위패를 써 놓고 그러고서 모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도 내 마음의 향을 피우고 내 마음의 촛불을 켜 놓고서 가만히 그 은공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인등이거든요. 그 은혜를 갚는 마음, 모든 걸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관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로는 묵은 빚을 갚는 일이죠. 또 아래로 햇빛을 주려면 그런 능력을 길러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먹는 밥 한 그릇을 놓고도 천도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는 모시고 아래로는 이 육신 안에 들어 있는 생명들을 제도하면서, 바깥으로는 부모를 모시고 그렇게 가지만 육의 부모나 법의 부모나, 부처님 조상이나 육의 조상이나 둘이 아닌 겁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부처님이 중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둘로 보지 마세요, 그것도. 왜 구차하게 삽니까? 왜 그렇게 자기가 얼기설기 해 놓고 자기가 고달프게 삽니까? '주인공'이라고 하면 그 안에 부처도 중생도, 또는 육의 부모의 조상도 다 같이 응하고 계신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우리 육의 부모, 그 전의 부모도 부처님도 다 거기서 받으시고 또는 내가 맛없는 걸 먹으면 맛없는 것대로 또 같이 먹고. 그러면 이 뱃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도 다 같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여러분은 보고 응감만 했지, 이 속에 있는 중생들이 다 달라고 해서 이 입만 빌려 주곤 넣는 거예요. 넣을 때 여러분은 맛만 보고 진짜 먹는 건 이 속에서 다 먹거든요. 여러분은 씹어 가지고 넘어갈 때 맛만 보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제가끔들 섭취를 합니다. 먹으면서 작업을 하면서. 작업을 안 해 주면 자기가 자꾸 먹을 수가 없거든요. 작은 고기도 큰 고기의 지느러미를 다 청소해 주고 거기서 얻어먹고 있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먹고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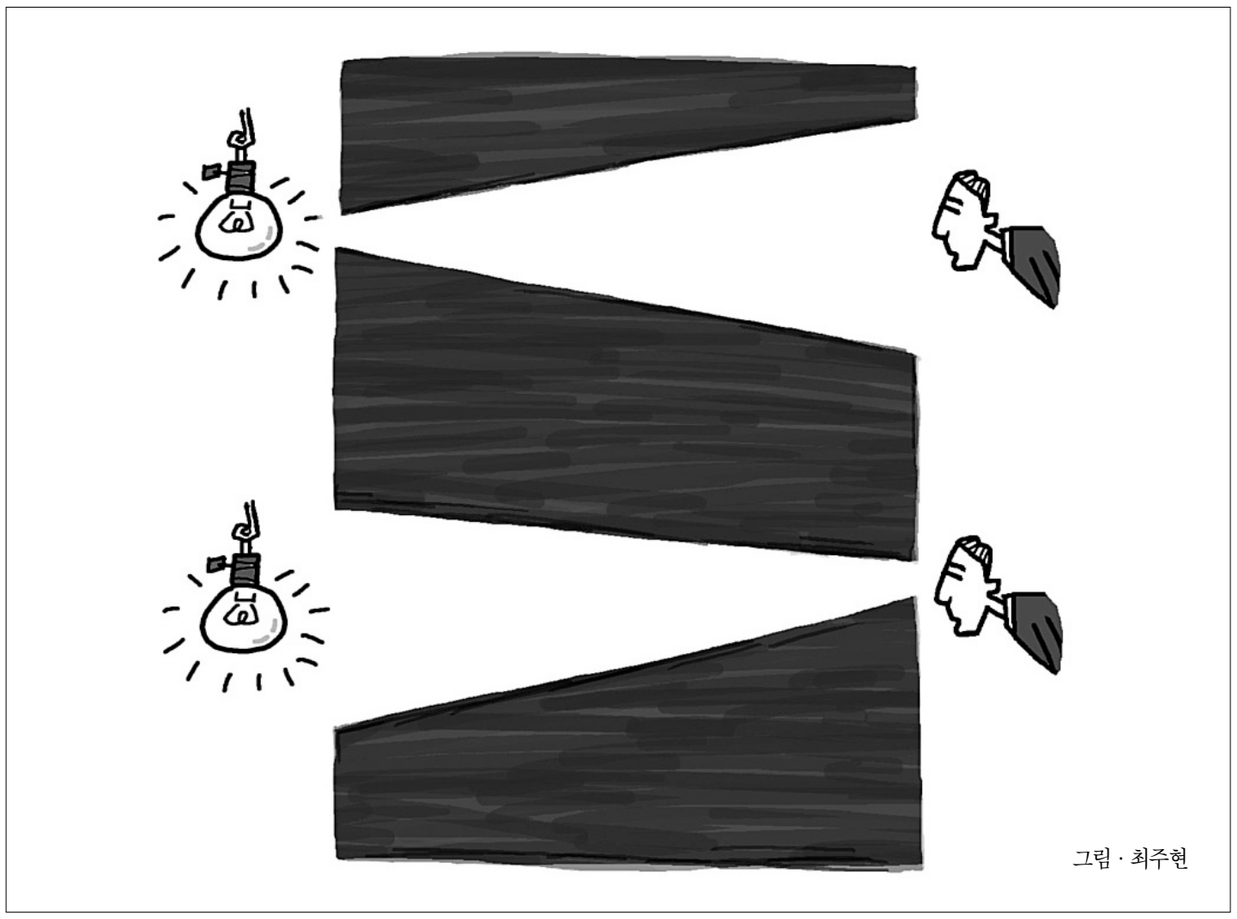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수화풍도 얼마나 고마운가. 지수화풍이 계합이 되지 않았으면 생명이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공기가 조금만 없어도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고맙다고 한 번이나 해 봤습니까? 또 물이 없어도 우리는 죽겠지요. 그러면서도 물이 고마운 줄 모르죠. 물이 있을 때는 펑펑 씁니다,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물도 절약을, 아주 광신적으로 절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도껏 분수껏 쓰라는 거죠. 불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 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흙을 딛고 흙에서 나는 걸 먹고 흙에서 자랐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우리는 지금 고마운 거죠.

그리고 자기 몸뚱이 자체가 바탕이 된다면 그 바탕 속에 자기 근본이 있기 때문에 또 고마운 거죠. 자기가 자기 고마운 줄 안다면 우주 법계가 다 고맙다는 그 뜻이 전체 한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모두 한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로 나오게끔 돌봐주는데 어찌 안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보이는 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심성과학이에요. 천체물리학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 가진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그 몸뚱이 속의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자기예요. 그 참자기가, 즉 말하자면 소라껍데기를 해 놓고 그 알맹이가 소라 속에 들어가서 소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나쁘면 또 갈아서 들어가요. 그럼 껍데기 속에 껍데기가 있고 껍데기 속에 또 껍데기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는 지금 껍데기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잘 끌고 다니죠. 어디가 바숴지면 안 되니깐요. 부딪쳐서 바숴지면 안 되고 고장이 나고 집이 망가지면 내가 집에 들어 있을 수가 없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본다면, 돌아가신 분들 천도를 시킬 때에도 그렇고 제사 지낼 때도 위패를 해 놓고 하죠. 거기 안주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주할 데가 없으면 지접을 못하니까. 꽃이라도 갖다 놓고 거기 안주하라고 하죠. 그래서 산소에 가거나 이래도 꽃을 한 송이 이렇게 가져가죠. 잠시라도,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마음만은 같이 상봉하자고 말입니다. 그러나 혼백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만 계신 게 아니고 그건 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고 상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법의 부모든 육의 부모든 다 주인공에다 넣고 그냥 나를 집으로 삼아서 거기서 살게 해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체가 없는 거니까 그 혼백을 내 속에다가, 다 주인공 안에다 넣어 놓으면 아, 그냥 내가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집이 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바깥으로 끄달리고 잘되게 해 달라고 빌고, 잘되게 해 주기는 뭘 잘되게 해 줍니까. 자기가 거기다 넣고 그렇게 주인공에 하나로 다 모아서 '다 그냥 일체다' 할 때 그 혼백도 다 자기 마음 쓰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물리가 터지고. 아, 그래야 만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보살로 화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있는 것을 모르고 이사를 가도 항상 '아이구, 이거 어느 날 이사 가야 좋을까? 올해는 또 삼재가 안 들었을까? 우리 아빠가 언짢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식이 언짢으면 어떡하지. 가게를 하는데 영 안돼. 그럼 뭐가 잘못되지나 않았나. 조상이 어떻게 잘못되지나 않았나.' 그런단 말입니다. 조상은 왜 들먹입니까, 글쎄? 아니 자식들을 길러서 그렇게 해 준 것도 고마운데 조상 탓을 왜 생각을 합니까?

물론 죽으면 냉정하고 죽으면 사정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하곤 정 반대죠. 언제 적의 부모고 언제 적의 자식입니까? 자식 부모라는 걸 아예 상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죠. 인연에 따라서 해를 입히는 걸 바로 과(果)라고 그럽니다. 인연에 따라서 오는 과. 그러니까 모든 걸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여러분이 늠름하고 당당하게 사신다면 앞으로 부모도 자식도, 또는 형제도 잘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고 걱정할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들 걱정인 거예요. 괜히들 발버둥일 친단 말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집안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생겼다,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면 금방 이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여기에서 거기에 알맞게 용도에 맞게 나와 줍니다. 몸이 아파서 뭐 어떻게 됐다 그러면 금방 자기 속에서 약사가 그리로 그냥 통신을 하게 됩니다. 빛보다 더 빠른 광력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몸에 찰나에 들어가서 찰나에 해결하고 찰나에 나죠. 이러한 도리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조상 탓 하지 마시고 열심히 이 마음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6면으로 계속

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8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입교일시 :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수 강 일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6시까지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서진주 I C에서 5분거리〉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 문의전화 : 055)747-8419

영남범패불음원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 CD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 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 사업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 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 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도암 합장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향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buddhanews.com

모든 걸 주인공에 맡겨놓고 늠름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25면에서 계속

좀더 긍정적으로 밝게 살고 싶어요

문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을 통하여 우연히 스님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마음공부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청년입니다. 근데 저는 언제나 마음이 부정적인 편이어서 늘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 안 맞는 상대에 대해서는 흉도 많이 보고 원망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남에게도 좀더 베풀면서, 그리고 좀더 긍정적으로 밝게 살고 싶습니다.

답 옛날 어느 스님이 어느 가난한 집에서 보리쌀 뜨물로 쑨 미음 한 그릇 공양을 받고는 너무 고마워서 나무를 한 짐 해다 주려다가 은사 스님께 지게 작대기로 호되게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은사 스님이 한생각의 무주상 보시가 있는데 그것도 보시라고 하느냐며 불호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스님이 그 소릴 듣고 '아이구! 알았다.' 하고서 나무를 동댕이치고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은사 스님께 삼 배를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뭐가 감사하냐 하니깐 그냥 가만히 합장을 하고 싱긋이 웃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스님께서 '아하! 그러면 부처님의 골수를 얻어서 너는 오늘 그 집의 물 한 그릇의 그 이치를 알았구나.' 하고선 비켜나셨대요. 그 후에 그 집은 그 해에 마름을 받고 자연히 보리쌀 뜨물을 안 먹게 되고 쌀밥을 먹게 되더랍니다. 그러니 그 동네 일판에서 둘째가라면 섧게 먹고살기가 넉넉하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처님 공양을 잘하고 그 집의 자손들이 불가에 인연을 맺고 그래서 크게 부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잘하면 길을 지나가다가도 그대로 말없이 건질 수 있고 길을 가다 오다가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은 남의 흉 볼 사이가 없습니다. 남을 원망할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길 가기도 바쁜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가을이 돌아 닥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내 마음에 봄이 오도록 하셔야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아주 용하다고 하는 스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마적 도둑이 많았죠. 그런 산도둑들이 떼로 몰려 얘기를 했습니다. "저 스님이 그렇게 유명하다니 내가 한번 만나 보리라." 그래서 칼을 들고서 그 스님이 오시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오시니깐 자기 속의 말로 하는 소리입니다. '저렇게 용하다는 스님이 내가 여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오는구나.' 하고 아주 호탕한 웃음을 웃었죠. 그런데 그 스님이 오시니까, 그 도둑은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유명해 봤던들, 당신 가슴에 철판을 깐 것도 아닌데 칼이 안 들어가겠느냐? 당신이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이 칼은 사정없이 당신의 가슴을 찌를 수 있고, 당신의 가슴을 찔러서 뭐가 그렇게 유명한 게 있나 하고 한번 갈라 보고 싶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깐 그 스님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추운 겨울에 고목을 자른들 꽃이 나오겠나? 스스로 봄이 오면 스스로 이 고목에서도 꽃이 피고 스스로 열매가 열릴 것을…. 그러니 그 뜻을 알게." 그러니까 그 도둑이 가만히 생각을 한 것입니다. 수십 년을 마적으로 살면서 그래도 경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만 그 소릴 듣고 칼을 뚝 떨어뜨리고 거기서 그냥 삼 배를 올리고, 자기와 함께 부하 도둑들도 다 그 스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좀더 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서, 이 마음 도리 속에서는 봄은 항상 봄이지 사계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봄이 와서 물이 흐르고 그 물맛이 좋고 열매가 열려서 수많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무르익히신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 만 가지 열매의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 가짐가짐을 가지고 봄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여러분은 남의 흉 볼 사이가 없습니다
> 남을 원망할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 지금 내 갈 길도 바쁜데…

주인공과 관계가 있는 건지요?

문 현대과학에서도 한 물체를 쪼개 본다면 분자, 원자에서 소립자, 미립자까지 증명이 되고 결국 그 근본은 어떤 것도 고정됨이 없는 공이라고 합니다. 결국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뜻과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공도 그런 맥락인지요?

답 예, 당연한 말이지요. 지금 물리학이나 이런 분야에서 과학적으로 증명 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살림하는 데도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몸은 근본적으로 지 · 수 · 화 · 풍으로 일체가 다 뭉쳐져 있습니다.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그런 소립자, 미립자까지 있을 리가 없죠.

나는 현대 용어는 잘 모르지만 핵이 있으면 전자가 있고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바로 핵이 되고, 핵을 보호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미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안의 눈이라는 것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수천 수만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자기 곁을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둘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이 돼서 둘이 아니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서 보느냐? 그게 아니죠. 자기의 그 명경과 같은 밝은 마음으로 본다면 앉아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천체를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적인 것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을 불가에선 천안통이라고 하는데 천체망원경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심성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것은 다 볼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무위심, 즉 말하자면 무심과 유심이 같이 혼합이 돼서 행을 할 수 있는 그 봉을 본다면 과학자들도, 천문학자들도 이름 없는 진짜 천문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름만 천문학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이지 천 가지의 그 뜻이 다, 내가 보는 눈이 그대로 문이 돼서 벽도 없고 걸림 없이 내가 볼 수 있다면 연구를 하면서도 자기가 자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볼 수 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본다고만 해서야 무슨 이익이 있어야지요. 또 듣는다고만 해도 이익이 없고, 남의 속을 안다 해도 이익이 없고, 또 남이 어디서 어떻게 왔다는 걸 안다고 해도 이익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왜 이익이 없느냐? 무꾸리쟁이에게 무꾸리를 하러 갔는데 '새 달에는 너는 죽을 운수다.' 이걸 안다고 합시다. 쪽집게처럼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죽을 운수만 알았지, 남의 속만 알았지 그 죽을 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자유스럽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보고 듣고 아는 그 오신통과 더불어 누진을 통한다면 그냥 자유자재죠. 여기 지역이 좋다 저기가 좋다 이러한 문제도 자유스럽죠. 그러나 이것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고 언짢은 것만도 아니니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내가 정하는 대로 그냥 법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남의 흉내만 되지만, 이 마음의 도리를 길러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말을 흉내나 낸다면 자기 몸이 해쳐지고 자기가 흉내 내는 그 말이 자기한테 그냥 관념이 돼서 자기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가 창창한 젊은이니까 그러한 것을 다 담고 있는 내 주인공의 도리를 진짜로 믿고 실천하신다면 내게도 남에게도 다 좋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은 없다고 하는데…

문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일이건 모두 우연은 없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모든 게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것인지요?

답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내가 수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어떠한 일,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자기가 짓고 산 그 차원대로가, 즉 말하자면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 속에, 수십억 마리가 있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서 몸 하나를 받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뼈, 어머니의 살을 받아서 몸 하나를 딱 받고 나면 그 수십억 마리가 모였다가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고 그 한 몸 받은 데 가서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지었던 악업이나 선업, 즉 의식 자체, 업식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포함이 돼서 이 세상에 등장하면 여러분은 내가 과거에 인연에 따라 업을 지은 것 중에 좋게 한 것은 좋게, 언짢게 한 것은 언짢게 받을 것입니다. 모르고 저지른 것은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지은 것은 알고 받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 속에 지금 그냥 수십억 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때는 기쁘게도 해 주고 어떤 때는 잘되게 해 주다가도, 어떤 때는 그 잘된 것이 망하게도 해 주고 어떤 때는 속상하게 해 주고, 어떤 때는 병들게 해 주고 어떤 때는 남편과 이혼하게 해 주고, 여러 가지로 고정됨이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것을 '고(苦)'덩어리라고 이름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과거도 현재에 짊어지고 나왔으니 짊어지고 나온 그곳에서 지금 나오는 그곳에다가 되놔라 이겁니다.

카세트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카세트에 녹음되어져 있던 말이 내가 지금 또 집어넣으면 앞에 넣었던 말은 없어지는 것이나 같습니다. 연방 넣으면 없어지고 넣으면 없어지고 그러면 과거에 어떠한 인과로 인해서 업을 가졌어도, 지옥고를 당해도, 악업을 지었어도 다 녹아들고 무너진다 이 소립니다.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듯이 그렇게 나온 자리에다 되놓는다면 카세트에 녹음하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거기다 모든 거를 맡겨 놓으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업이 있다, 나는 죄가 많다, 하는 수많은 이름들의 업, 팔자 운명 이런 말도 붙이지 마시고, 내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가 하는 생각도 마시고, 그런 생각이 나거든 그냥 자기 주인공에 다시 맡겨 놓으세요. '모든 게 당신 속에서 나온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지.' 하고 놓고 또 좋게 되는 일이면 '아, 감사하구나.' 하고 또 놓고 그렇게 하라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게? 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든 게 과거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물질로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내 가정에 다가오는 모든 걸 녹이면 됩니다. 그것이 일차적으로 내 마음을, 내 참나를 발견하는 데도 이익이고 내 자식들을 이끄는 데도 이익이고 부부지간에도 이익이고, 모든 게 아들이다 딸이다 부부다 부모 형제다 하는 데 가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본래. 그러니 나 하나의 자가발전소에서 불 하나를 켜면, 자가발전소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다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다 녹아진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필연이라 해도 내 한생각으로 다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생활 불교며 생활 참선이며, 바로 이것이 좌선도 되고 참선도 되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좌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그 창살 없는 감옥에다 내 몸을 옴쳐 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런 걸 탁 털어 버리세요. 마음은 저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우주도 갈 수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도 내 집에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내 가정과 내 몸과 내 자식들을 튼튼하게 하고 부모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나라는 아집을 내세우지 말고, 모든 것은 내 탓으로 돌리면서 모든 걸 주인공에다 놓는다면, 그리고 부지런히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그러한 발전적인 여러분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실 겁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여여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대불교현불샵 입점 기념 특별 세일전 17%DC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압축 참숯부착)



- 대한민국 명장 가풍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항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수의 등 수납한 모습


제기 등 제수용품 수납한 모습

· 가 격 : 대형 ~~₩238,000~~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소형 ~~₩198,000~~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자 세상보기

고 우 익
금강승가대 교수

사랑 잘 하려면 수행 잘 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갖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누구나 아는 〈법구경〉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법의 구절로 많은 이에게 회자되는 것을 보면 누구도 사랑과 미움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불교는 사랑을 부정하는가. 그렇다면 중생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된다. 모든 생명은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 사랑으로 태어났으며 사랑으로 성장하고 사랑 속에 죽어가는 게 인생의 일반적 모습이다. 불교에서 경계하는 사랑은 어리석은 중생의 거짓된 사랑이다. 사생결단의 열정적인 사랑, 맹목적인 사랑은 치명적인 독성을 갖기 마련이다. 그 속에 자신도 모르는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한자로 표기하면 두 가지로 표기할 수 있다. '애(愛)'자와 '자(慈)'자이다. 둘 다 사랑이란 의미이다. 흔히 '애욕'과 '자비'로 쓰이듯이 불교에서 애(愛)는 부정적으로 자(慈)는 긍정적으로 사용된다. 애욕은 자기 중심적 중생의 사랑이요, 자비는 불보살의 평등한 사랑이다. 늘 상대의 자리에 서서 그를 배려하고, 끝없이 베푸는 사랑이 자비이다. 결국 상대를 최고의 자유인 해탈의 경지까지 인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인 것이다. 중생연(衆生緣) 자비로 시작된 보살의 사랑은 수행의 정도에 따라 법연(法緣) 자비와 무연(無緣) 자비로 그 깊이를 더해간다.

중생의 사랑은 그 가운데 자기중심적 욕망이 있기에 위험하다. 상대를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도 모르게 욕망 충족의 교묘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주부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자살한 인기 연예인의 유골이 도난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자고 일어나면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은 우리같이 평범한 서민들에게 일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 배후에 거의 사랑이니 배신이니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한 가정을 엄청난 불행으로 만들어도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다. 중생은 욕망의 존재이기에 세간적 사랑도 필요하겠다. 그러나 끊임없이 출세간적 사랑[자비]으로의 지향 속에서 세간적 사랑이 갖고 있는 독성을 억제시켜나가야 한다. 왜곡된 사랑의 표출이 많은 사회일수록 종교가 건강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지 못한 것이다. 종교를 통해 사랑을 포함한 세속적 욕망을 절제하고 승화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숙한 종교와 덜 된 종교인들이 오히려 사회 갈등을 촉발하고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모습을 흔히 본다. 출세간의 자비와 출출세간의 사랑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원효의 행적을 보자. 중생으로서의 욕망도 버리고 다시 수행자로서의 위선적 탈도 벗어버려 그 어디에도 구애받음이 없는 무애자재의 삶과 사랑을 실현하고 있다. 수행과 깨달음 속에 피어나는 꽃을 보듯 아름답지 않은가. 이렇듯 사랑도 깨달음을 통해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랑의 완성을 위해 종교적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라는 자각,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다.

여기에서 자비심이 넘쳐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비심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념을 갖고 원력의 삶을 산다. 모기 한 마리를 죽이면서도 이 녀석을 꼭 죽여야 하나 고민 하고, 길에 떨어진 1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착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러기위해 조건을 달지 말고 수행하자.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김대중 前 대통령의 영면을 빌며

또 한 분의 선지식이 우리 곁을 떠났다. 한국의 현대정치사를 말할 때, 한국의 민주화를 말할 때 누구보다 비중 있게 거명될 수밖에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를 무척이나 쓸쓸하게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 민주화의 꽃을 피우지 못했고 억압과 소외의 고통이 다 사라지지 않았는데 일생동안 민주화를 위해 살았던 선지식은 무더운 사바를 떠났다.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했던 만해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은 현재진행형이다. 그가 심혈을 쏟은 많은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땅에 사는 민초들은 그를 보내지 아니하고 그의 정신을 투영하여 즐기차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동초는 스러졌어도 그 향기는 남아 있다. 그의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가 남긴 가르침들이 자랑스러운 미래가 되려면 남은 사람들이 보다 정열적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북관계에 큰 업적을 남긴 그의 행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들어 경직됐던 남북관계에 해동의 바람이 불고 있다. 불교계도 잠시 접어뒀던 대북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입장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가톨릭을 착실하게 신앙했지만 불교와도 많은 인연을 남겼다. 종교를 초월해 그의 정신은 21세기 한국의 민주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될 것이다. 그의 영면을 빌며 이 땅에 자비와 평화의 꽃이 무궁하길 기원한다.

지리산 야단법석의 수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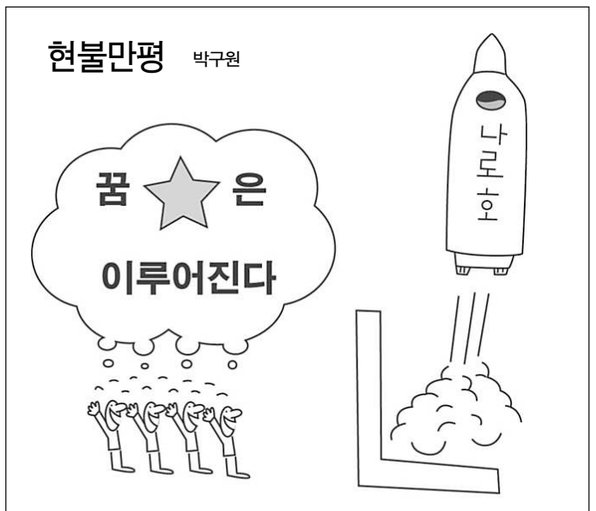
지리산에서 획기적인 불사가 있었다.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것이다. 이번 야단법석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현실에 대한 치열한 자성과 비판이 있었고 보다 새로운 미래를 열기위한 열정이 돋보였던 법회였다.

이번 야단법석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진중한 토론문화의 형성이다. 종교계 내부에서 스스로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불교 집안에서는 안쪽 살림의 불합리한 점들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을 꺼려 왔다. 그러나 이번 야단법석은 잘못 가고 있는 한국불교의 일면들을 허심탄회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자는 원력을 여실히 드러냈다. 불교계에는 토론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야단법석은 매우 진지한 토론이 돋보였다.

참가한 사부대중의 질서의식도 감격적이었다. 200여명이 5일이라는 기간을 한 자리에서 생활하며 진행된 법회였지만 매우 질서정연했다. 그만큼 이번 야단법석의 주제에 대한 갈망이 컸다는 반증일 것이다.

급변하는 첨단 디지털 사회에서 종교계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불교계는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없다. 그렇다고 옷 위에 옷을 덧입는 것도 불가한 일이다. 이 화두를 풀기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토론과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불교의 내일을 위해 더 자주 법석을 펼쳐야 할 것이다.

현불만평 박구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마음의 고통 · 소리 들어주자

8월의 테마-질병

아침 7시, 새벽까지 작업을 하다 늦게 잠든 나. 조금만 더 눈을 붙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못들은 척 애써 눈을 감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 아이는 아침부터 무언가로 송사를 벌이고 있고 여지없이 막내의 요란한 울음으로 마무리 되어가는 중이다. "아…나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다니…"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이렇게 수시로 터져 나오는 웃음과 울음들. 작은 일에도 이렇게 기뻐하고 슬퍼하고 툭툭 털어버리는 아이들의 다채로운 일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웬만한 일에는 대중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게 되어버린 나를 쳐다보게 되면, 대견하다고 스스로 위로해주기에는 일면 마음 한 켠이 씁쓸하다. 나는 그 많은 눈물과 웃음을 어디로 삼켜버리고 있는 걸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현명하고 세련된 사람으로 인정하는 세상. 웬만한 아픔은 그저 좀 참아주고 견뎌내고, 속상한 일들은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고 인정 있는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희생하며 책임감 있게 일을 완수하는 사람들을 신뢰로운 사람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내가 속해 있는 심리상담실에는 이렇게 인내롭고 인정있고 신뢰로운 사람들이 찾아오시고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쭈면 대부분 마음의 고통을 말하기보다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신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라며, 병원에서는 심리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셨단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지 못하는 현대인의 병, 신경성 질환들이다. 우리는 이미 내 감정을 들어주고 받아들이는 것에 무디어 지고 있는 것이다.

힘겨운 책임감과 마음의 상처는 늘어가고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일은 용인되지 않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매일 매일의 눈물과 웃음을 삼키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렇게 삼켜진 감정들이 연기처럼 하늘로 승화해 버리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우리가 도인이 아닌 이상, 그 아픈 마음의 상처들은 고스란히 육체의 섬세한 세포 속에 쌓이게 된다.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 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미덕을 넘어 몸의 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병원에서 약과 주사와 물리치료로 수습해보지만 그때 뿐.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듣고 이해해 주지 않는 한 다시 증상은 재발되고 때때로 더 악화되기도 한다.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내 존재의 하소연이다. 세상을 모르는 아이들은 너무나 잘 울고 잘 웃는다. 그 미소는 빛처럼 밝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이 기막히게 아름다운 치유의 빛을 잃고 살게 되어버린 걸까.

때때로 아프다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구하는 동시에 내 마음에게도 물어보아야 한다.

혹시 울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진 것은 아닌지….

몸. 가장 솔직하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가장 소중한 내 삶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김이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리상담학과 석사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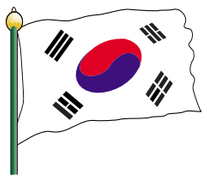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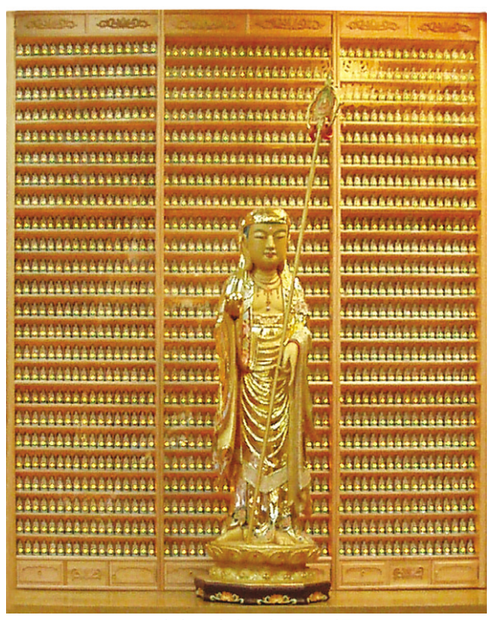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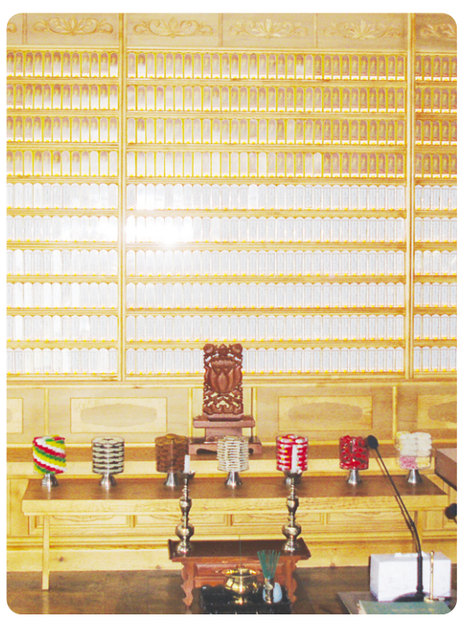
'동해 독도는 한국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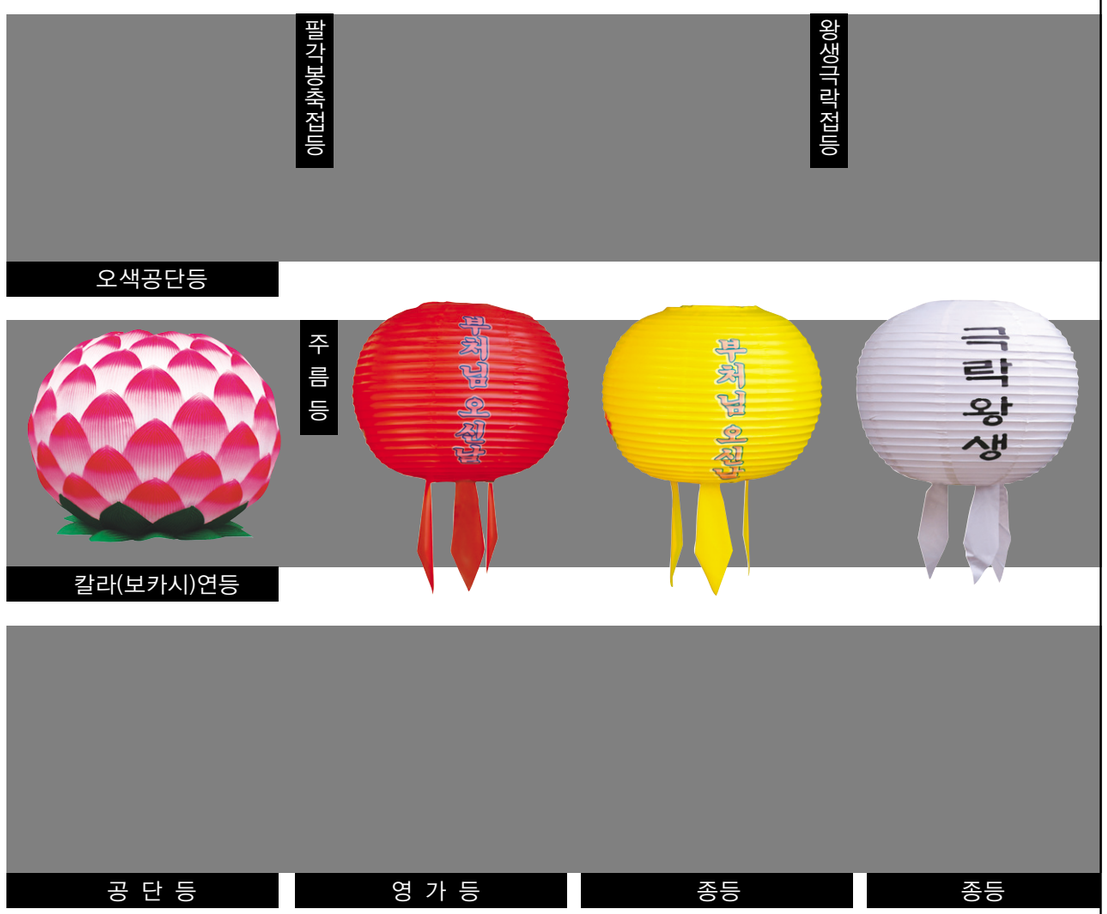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

전수교육 안내



[장한빛 仙師]
-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 메디컬센터 특수침술교육
- 암동 난치병 공동연구
-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 동아대학교 대체의학 최고위과정 교수역임
- 애타게 찾았던 숨은 명의 50인 선정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특별강연
-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등 7권의 건강서적 집필

◆ 교육장소 : 강화도 한빛修練院 (전등사인접)

◆ 교육기간 : 8월 28일 ~ 8월 30일 (2박3일)
9월 11일 ~ 9월 13일 (2박3일)

◆ 교육문의 : 032)937-7356, 7182

◆ 주 최 : 제 3의학재단 설립 추진 위원회

◆ 교육대상 :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한의사, 중의사, 물리치료사, 승려, 목회자, 태권도, 합기도 관장, 수련원, 단식원 운영자 및 대체의학 전통의술에 관심있는 분, 각종 난치, 고질, 희귀성 질환자 가족분
(유선연락후 안내자료 원할시 발송가능합니다.)

◆ 후 원 : 한빛웰빙건강 창업 지원센타 (피부,비만,통증)
한빛웰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지부설립문의)

※弟者구함 : 자연의학,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주경야독하면서 醫通君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를 구함

전수교육 내용

◆ Triple combination therapy (三正요법)

1. 正骨整體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 (活人氣功)
2. 正血淸血
   전신의피가맑아야 無病長壽 (15개연못論)
3. 正氣(通經活絡)
   萬病之根源 氣滯血瘀, 세계최강 山蔘면역침술

◆ 내과적영역

초,중,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시, 백내장, 치주염, 아토피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종, 물혹(파킨슨,루게릭은 임상중)

※10년~20년 이상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10회의 시술로 90% 이상 치유됩니다.

◆ 외과적영역

수술날자받은경추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초기강직성척추염, 안면마비, 모든 종류의 두통, 삼차신경통, 좌골신경통, 골반통, 항강통, 어깨결림, 오십견, 테니스. 골프엘보우, 수족마비, 3.4기골다공증, 하지무력증, 통풍, 류마티스, 퇴행성무릎관절염, 악성무좀,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생리통, 채머리증, 수전증, 족저통, 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10년~20년 이상 된 묵은 통증이 5분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90%이상 사라집니다.

전수교육 수료자 체험사례

신문 광고를 보고 이것은 가짜 아니면 진짜일수가 있다고 생각했다. 20년 한의사 생활에 비추어 보아 내가 저런 자신만만한 광고를 일간지에 낼수 있는 치료에 자부심을 가진 실력이 있는지 반문해보니 자신이 없었다. 그냥 광고를 보고 넘겼으나, 다음날 아침, 기수련중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신문을 찾아 강화도에 6일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
(바쁜시간을 쪼개서) 정골정체 시간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결과가 도출되는 나 자신도 놀라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이 교육은 나의 의학적 시각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고, 인체를 다루는 모든분들이 공부해서 우리 사회에 이바지 하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장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구 수성구 한의사 송oo (2기수료)

국민일보 5월 14일 자 13면 하단에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활인비법전수 안내라는 광고문을 보았다. 그동안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도들의 질병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경침과 봉침에 대하여 교육도 받았고 관심이 많은 터라 자세히 광고문을 읽는 중에 정골정체, 정혈청혈, 통경활락이라는 삼정요법과 비법전수라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5박6일의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고 나서 보니 여기와보지 않았더라면 두고두고 후회를 할 뻔 했다. 침술비법은 물론 교정법, 터주기등 임상실험과 함께 이명으로 고생하던 할아버지가 듣게 되고 20년동안 다리가 저려서 유명한 병, 한의원을 다 다녀보았으나 효과를 얻지 못했던 환자가 2회의 시술로 뛰는 것을 보게 되고, 후두통이 즉시 사라지고 요통으로 고생하던 교육생이 완치가 되는 등.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한마디로 놀랍고 대단한 세계 최강, 최고수임을 실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의학의 도인이고 인술의 대가이시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반드시 또 와야겠다.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목사 김oo (3기 수료)

오늘이 재교육의 마지막 날이다, 처음 교육때는 배워서 남을 치료한다는 생각보다는 나의 지병부터 고쳐보고자 생각하고 왔는데 나의 생각이 너무 웅졸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몸을 관리하면서, 옆에 아픈 분들과 관리를 하면서 그 즉시 각종 통증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병원에 수없이 다니면서 치료를 받다가 낫지 않았는데 단 몇 분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모든 통증이 싹 가시고 낫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또한 십수년 동안 아파왔던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고 걷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졌다. 또한 위장병과 변비도 많이 개선되었고, 이제는 생각이 확 바뀌었다.
이 좋은 치료방법을 배워서 남을 위해 아픈 사람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나 자신에 대한 모독이며 선사님의 가르침에 대한 따르지 아니 함이니 부족하나마 열심히 배워 활인비법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몇 번 망설인 끝에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하며 왔는데, 지금의 생각은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제는 제법 과정이 몸에 익어 가는 것 같다. 침 몇 개로 오십견과 허리통증을 낫게 하고 정골정체 비법으로 몇 분만에 몇 십년 앓아오던 관절과 발 저림을 낫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런 좋은 활인법을 가르쳐주신 원장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번교육에 같이 참석하여 서로 도와주며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 강원 홍천군 홍천읍 승려 OO (3기 수료)